우리역사의 비밀

솔본

5편

갑골문의 어순이 현재 중국어와 같았나?

일전에 어느 분께서 갑골문이 우리 한겨레가 만든 거라면 왜
어순이 우리 말과 같지 않고 중국어와 같은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왜 좋은 가하면 간단한 의문인 것 같지만 현대 수 많은 언어학자들이
골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언어의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에 대한 질문이기
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겨레가 만든 갑골문의 어순이 왜 중국어처럼 주어+동사+목적어 (SVO)냐는
질문은 그대로 왜 인도유럽어의 갈래인 라틴어가 한국어처럼 주어+목적어+동사
(SOV)냐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더 의아한 것은 인도유럽어의 시조라고 생각되는 히타이트어조차 그 어순이
오늘날 영미계통의 SVO가 아니라 한국어와 같은 SOV체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언어학자들 사이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서
조차
SVO가 아닌 SOV형태가 출현하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에 들어 노암 촘스키의 생성문법에 의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에 있어 SOV형과 SVO형 가운데 어떤 것이 더욱 일반적일까요?

학자들은 당연히 말로 의사소통하는 자연어(natural language)의 경우 한국어와 같은
SOV형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보면,

아르메니아어, 터키어,일본어,한국어,만주어,몽골어,아이누어,길략어,유카기르어,에스키모어
페르시아어,쿠르드어,부루사키어,바스크어,벵갈리어,버마어,티벳어,아브카즈어,아바르어,
수메르어,아카드어,엘람어(예수 그리스도가 쓰던 말),히타이트어,힌디어,나바호어,호피어
케차어,팔리어,네팔어,기타 인도어..

중요한 것은 고대 수메르,아카드,페르시아어등이 SOV형이었고 한-장어로 그룹핑되는
티벳어조차 현재 지나의 SVO어순이 아니라 SOV형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일어나 네덜란드와 같은 어군조차 과거에는 SOV형태가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SVO형태를 띠는 언어군은 어떤 것들일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1] English[2], Chinese, Vietnamese, Thai, Khmer, the Romance languages, Russian, Bulgarian, Kiswahili, Hausa, Yoruba, Nahuatl, Quiche, Guaraní, Javanese, Malay and Indonesian.

색슨족의 영어,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크메르어,러시아어,불가리아등등...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어군들은 상고대에는 강력한 주변제족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상당히
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색슨의 영어는 그 전에 강력한 켈트의 지배하에 시골 촌뜨기들의 말이었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었고...오늘 지나 한족의 중국어 역시 당대에 주류가 아니었음은 지나의 한어가 베트남,태국,크메르
등과 같은 남방 주변어군이었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이들 언어는 아득한 상고대에는 헤게모니를 잡은 제족과 방언정도
로 통했는데 지배족이 이들을 노예로 삼으며 그 신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지배층과 같은 언어를
쓰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은 의문으로 남겨두고 과연 상고대 하,은시절의 갑골문이 현재 지나족의 문법과 같았을 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한족은 하,은시대에 동북방면에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따라서 하,은의 언어는 지금 지나의 SVO체계가 아닌 SOV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나라의 갑골문이 SVO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출토된 갑골문, 금석문 가운데 지나 학자들의 손에 의해
해독된 것은 30%도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은의 복사 갑골문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위한 점복문입니다.
따라서 은의 갑골문을 통해 그 어떤 역사가 기술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나 학자들은 갑골문편에서 하,은의 역대 왕의 이름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주 웃기는 것은 이 갑골문을 짜 맞추는 방식입니다.
출토된 갑골문은 거의 조각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리저리 꿰 맞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형,전주등을 구분해서 각각의 자형을 정의합니다.

아울러 읽는 방법도 아주 희한합니다.
밑에서 부터 위로 문단을 나누어 읽고 행을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읽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갑골문의 해석이 30%밖에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무언가 접근이 잘못된 것이죠.

지나학자들은 갑골문이 현재 한자의 원형이라는 전제하에 글자 하나하나를 현재의 한자에 대입하여 정의하고 그 문장들을 꿰 맞춰 해석하여 겨우 한 두줄 문장의 해석만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1917년 왕꿔웨이라는 학자로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은의 갑골문에는 반드시 뜻만이 아닌 동이언어의 음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단 한번도 갑골문해석에서 음차로 기록되었다는 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결과는 과거 지나 양직공도에 등장하는 滑國(활국) 사신에 대한 미스테리를
또 한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미스테리란 양직공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滑國의 사신에 대한 정보가 도대체 지나에게는 없었는데 이 滑(활)이 뜻글자가 아니라 소리 가차이며 지나의 '화'(hua)라는 발음으로는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다가 결국은 한국의 중고 한자음 '활'을 참고해 이 사신이 바로 중앙
아시아의 'uar'/ war라 불리운 제족이었고 유럽을 뒤흔든 에프탈훈의 핵심세력이었음을 알게
되어 지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것이죠.

따라서 은대의 갑골문에 등장하는 복사문자에 동이의 음차와 SOV문장에 대한 검토가 없는 한
그 많은 갑골문의 내용은 그대로 잠자고 있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지나는 절대로 갑골문의 원재료들을 외국인에게, 특히 한국의 학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테니까요.

-솔본-

솔본 (2006-12-19 13:16:44)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에게 공개된 갑골문편은 지나학자들이 해석했다고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갑골문은 더 많습니다.

갑골문 어순의 원칙이 SOV인가 SVO인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대개 갑골의 문장은,

"왕이 물었다. 가고옴에 없겠습니까? 재앙이(禍), 때는 12월인데.."

위의 문장은 지나가 해석한 갑골문을 우리 한국어문법식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저격수 (2006-12-19 13:21:53)

역시....그렇군요. 그게 그래요. 독일어만 해도 주+목+동 구조가 현재도 많거든요. 발음도 영어와 달리 우리가 소리내기에 어려움이 별로 없고요. 그 독일에서 귀화한 이참이란 분이 너무나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발음도 완벽에 가깝게) 독일 민족과 우리가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했었습죠. 제3제국 시절에 독일인을 훈족이라 불렀다는 말도 있고.... 생긴 것도 백인이긴 하지만 넓적한 형이 많은 것 같고.....
그건 그렇고, 솔본님께 질문 있습니다.

솔본님께서는 외계로부터 떨어진 종족이라고 할만큼 유럽인들이 별종 취급하는 바스크족의

기원을 어디라고 보시는지 혹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추측에 의하면, 바스크란 말의 뜻도 밝스크, 즉 밝고 크다란 의미일 것 같은데..... 어순도 우리랑 같다면서요? 결론적으로 고대로부터 유럽으로 쳐들어간 동이족, 이를테면 훈족이라든가 몽골족의 후손들이 산악지대로 몰리면서 형성된 민족이 아닐까 , 그래서, 유럽애들이 절대로 실체를 밝히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데요.....이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감', 느낌에 불과할 뿐입니다.^^

솔본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솔본 (2006-12-19 14:45:15)

저격수/

바스크족과 그 언어의 기원문제는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비유한다면 태평양 한 가운데 떠 있는 섬이라고나 할까요.

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요 담에 한번 해보십시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군요

원성도 (2009-04-24 19:35:55)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는 문외한인데 평소에 저의 궁금증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읽고 가입했습니다. 자주 들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 대한 저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지도부탁드립니다

<>
지나학자들의 갑골문해석은 믿을 만한가?

갑골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까발려 봅시다.
지나학자들의 갑골문 해석은 어느 정도 신빙성있고 타당한 것일까요?

한 사례를 봅시다.

은대 제一기 무정(武丁)때 등장하는 갑골문을 지나학자들이 해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갑골문 합집'이라는 책 8994번째 문장입니다.

貞, 龜不其南氏.
정, 구불기남씨

중국어 학자 최영애박사는 '한자학강의'라는 책에서 이 문장에 대한
지나학자 동작빈의 해석을 인용합니다.

'물었습니다.남쪽에서 거북이를 보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 貞, 龜不其南氏.라는 한자로 바꾼 갑골문내용과 해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貞(정)이라는 글자는 설문에 따르면 '卜問也'라고 합니다.
'점을 쳐 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해가 갑니다.

龜不其南氏. (남쪽에서 거북이를 보내오지 않습니까?)

이 복사문장이 그렇게 해석되는 문법적 근거가 도대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龜는 그 南왕이 아닙니까?' 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남쪽에서 거북이를 보낸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 근거를 보니 기가 막히군요..

그것은 詩經에 등장하는 문구때문이라는 겁니다.

'憬彼淮夷, 來獻其心,元龜象齒,大賂南金'
[저 깨인 회이 오랑캐, 그 보석에 큰 거북, 상아하며, 남방금을 듬뿍 바쳐오네]

다시말해 남방 오랑캐들이 고대 은허로 수많은 거북점에 필요한 거북이들을
진상 해왔다는 것이 중국 고서에 쓰여 있으므로 龜不其南氏.는 바로 '남방 오랑캐가 거북이를
보내오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이라면 열받지 않습니까?

홍산 (2006-12-20 03:30:45)

貞, 龜不其南氏
'물었습니다. 南왕 '龜'가 스스로 찾아옴이 있겠습니까?
貞, 有來自南氏龜
' 물었습니다. 남방에서 거북이를 바치러 누군가 옵니까?'

해석의 문제는 앞으로도 신설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님의 해석이 더 그럴 듯 하군요.

님이 갑골문의 원본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자로 재구성했다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재구성된 문장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님도 갑골문이 중어 최초의 attested 문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로
받이들이겠습니다.

중어에는 원래부터 SOV문장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SVO이었다는 것 또한 잘 아실겁니다.

선학의 견강부회가 있어야 후학들이 들어설 자리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중국 학자들 뿐만 아니라
숱한 세계의 학자들이 견강부회를 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부디 갑골문 해석에 돌파구를 열기를 바랍니다.

茶香 (2006-12-22 15:54:43)

솔본/ 너무 열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님이 인용하신《한자학강의》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의 각사에서 入. 氏. 來는 모두 "進貢하다"라는 뜻이다.....갑골문에서 氏는 "휴대하다", "가져오다"의 뜻으로 쓰이며 引伸義(파생의)로 "보내오다"(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230p

차이 (2007-05-04 03:04:19)

솔본 님이 전에 기록하신 신라시대 시조에서 거북이의 뜻이 그뜻이 아니였음을 확인했는데 찾으려고 하니 못찾겟군요~~~~혹시라도 이 거북이 그거북과 뜻이 통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너저리 말을 하는것에 죄송스럽습니다~

<>
[re] 인종과 종족은 다른 것인데..

유전자 검사를 통한 한국인의 기원을 밝히려는 의도는 좋으나 자칫 이것이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엄밀히 말해 유전학적으로 인종간의 차이는 정말 미세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종교,문화적 코드를 공유한 종족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언어학,비교언어학을 통해 동시에 규명되어야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학계에서는 유전자인류학과 언어 인류학을 접목시켜 제 종족간에 유전자 거리와 언어간의 거리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금번 학술작업에 인문학적으로 훈련된 학자의 참여가 없다면 그 결과가 생각보다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어 걱정이 됩니다.

-솔본-

한국인 (2006-12-19 11:44:43)

솔본님의 우려가 현실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사를 얼마나 신뢰할지는 두번째 문제이고,
몽고인과 한국인을 분리하고자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 기분나쁘네요.
터키인들마저도 한국인을 같은 조상을 둔 형제로 여기는데
고대한민족을 갈갈이 찢어놓으려는 인간들의 속셈을 모르겠습니다.

kingstone91 (2006-12-19 12:26:55)

인종과 종족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헷갈리는데 좀 알려주셈.

진실 (2006-12-19 12:50:58)

몽골인과 현재에 한국인과에 유전학적 유사성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건지 동아일보한테 물어 보고 싶어여

위에 기사를 보면서 몽골에 주류학계도 한국에서 자신들이 발원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을테니 국내 식민사학자들과 뜻이 맞아서 뭔가를 꾸미는듯 합니다

<>
한민족 기원과 디아스포라의 문제..

우리 겨레는 어디서 부터 시작된 것일까?
누구나 한번쯤 궁금하게 여겨 보셨을 겁니다.

일단 한번 '거칠게'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는대로 세부설명과 자료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바비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현생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견해가 있답니다.

유전자 인류학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현생인류는 동아프리카에서 약 10만년전에
시작되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아웃오브 아프리카'설이고

화석인류학쪽에서는 상동인으로부터 북경원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동아시아인의
두개골과 치아의 일관된 형태로 보아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인류의 진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학자들은 현생인류는 호모 에렉투스들이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진화를 겪었다는
다지역기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바비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나와 아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Come and Go'이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이 원숭이와 거의
구별이 안되던 아주 아득한 시기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논쟁이 첨가되었으니 현생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아시아로 이동하는
루트가 2개였는데 북방루트로 이동한 집단과 남방의 해안선과 순다랜드를 통해 이동한
집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성과 가운데 몽골리안 그룹중 남방계 몽골리언들의 유전자와 북방 몽골리언의 유전자간에
차이가 있는데 남방계 유전자그룹의 다양성이 북방계 보다 높은 점을 들어 몽골로이드는
남방계가 먼저 성립되고 그 이후에 북방 몽골로이드가 성립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로서 북방계 몽골로이드의 치아구조와 남방계 몽골로이드의 치아구조가 서로

다른 점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노돈트와 순다돈트로 구분합니다.

상동인과 북경원인을 비롯 북방 몽골로이드는 삽날구조의 치아를 갖고 있는 시노돈트이고 아메리카 인디언의 치아구조도 그러한 것으로 보아 아메린드는 북방계 몽골로이드가 선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죠몬인들의 치아구조가 시노돈트가 아닌 순다돈트형이라는 제시가 있어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몽골로이드의 원형이 약 7만년전 코카서스지역을 기점으로 혼혈상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점으로 보아 현재의 몽골로이드는 북방계가 그 원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몽골로이드니 코카서스니 네그로티드니 하는 구분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그 보장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현재 아이누인들의 경우 한때 그들을 코카서스로부터 이주한 인종으로 보았으나
그들의 유전자 구조는 이미 선사시대로부터 한국인과 매우 가까운 몽골로이드라는 점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의 유전자 가운데는 약 1만년전 중국의 서남부 부근에서 현재의 북경근처로 이동한
마커가 있어 학계는 이들이 농경을 전파한 현 지나족의 조상일 것으로 봅니다.

동아시아인 특히 우리와 밀접한 유전자 마커를 갖고 있는 또 한 그룹은 아프리카 해안에서 인도와 순다대륙을 통해 일본 호카이도로 올라가 만주 아무르를 거쳐 다시 서남방향으로 이동하여 현재 인도의 아셈지방에 정착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소위 Y-염색체의 하플로그룹 D,
일명 M174라는 유전자 마커입니다.

이러한 이동루트는 현재 황해가 과거 평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이 남쪽에서 황해평원과 한반도를 북쪽으로 통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들이 죠몬과 아무르의 토기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고산리토기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인도-몽골로이드들입니다.

이들이 동북아를 거쳐 인도 아셈지역에 정착한 시기가 유전자 마커로 대략 수천년전이라 하니
대개 인더스문명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아 제 최근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웃 오브 인디아'(AOI)라는 말이 문화인류학에서 자주 오르내리는데
무슨 뜻이냐하면 인도유러피언, 즉 아리안의 기원이 유럽이 아닌 인도에 있었고 그 뿌리가 바로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더스문명은 분명히 이주집단의 문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더스문명은 이미 그 자체로 상당히 완성된 것이었고 계획된 양태였으니까요.
문제는 인더스문명의 프로토타입이 인도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수메르문명처럼...

아주 거칠게 정리해 보았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솔본-

곰주먹 (2006-12-26 20:59:10)

이야.. 무진장 궁금한 부분인데 잘 읽었습니다..

아웃 어브 인디아--- 인디아 기원설이 대두된다는 동향도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시간을 인간이 거슬를 수 없기에 과학적 수단이라도 수천,수만년전 일을 밝히기는 쉽지 않겠지요.

아리아인의 뿌리가 인도에 있다는 설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물론 저는 직관에 의한 판단에 의존했지만요;;

유럽문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희랍(그리스)문명은 소아시아와 이집트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면에서 이란과 인도..... 이 두나라 사이의 지역에 아리아인 발원의 비밀이 숨어있을 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서역과 동쪽끝의 나라에 아리안의 흔적이 버젓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지요..
동서로 퍼져 나갔을 테니깐요..

오히려 아주 오랜 옛날에 유럽에는 백인들이 아닌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었을지도 모를거 같아요
스톤헨지 같은 거석유물도 아리아인이 만든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이란과 인도사이의 알타이 서부지역등의 지역에 짜안 하고 나타난 아리아인....

그래서 동서로 퍼져나가며 여러 혼혈과 역사적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기계문명을 주도하는 아리아인...

초고대 문명의 비밀에 대한 연구나 지식조차도 일찌기 탐사와 정복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리아인..

하늘(우주공간)에 까지 날아가 가장 넓은 곳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리아인..

전 솔직히 아리아인이 무섭습니다;; 특히.. 환국..(알국)의 강조지역과 이야기들이
마치 아리아인의 비밀발원 역사를 말하는거 같아 더욱 섬뜩하기 까지 합니당;; ㅎ

바비 (2006-12-27 06:24:52)

남방계 몽골로이드가 인도, 동남아시아, 남중국을 따라 육지였던 황해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것은 집단유전자 상관관계를 가지고 몇몇 중국 유전인류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이 가설의 문제는 빙하기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에 그 남방계 몽골로이드라는 것이 북으로 올라갔다는데 있다고 봐요. 기후가 추워지면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엉뚱하게 북으로 올라갔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그 중국 아이들은 이 부분 간과하고 있죠.

여기서 또 중국아이들이 같은 오류를 범하죠. 현재 인도나 동남아, 남중국 등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 조상들이 수천년 수만년 전에도 거기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죠. 수만년 동안 같은 지역에 한 집단이 살아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불가능을 가정하는 것은 중국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단국대 김모 교수도 같아요.

바비 (2006-12-27 07:08:06)

그리고 아이누와 한국인 유전자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지금 아이누는 야요이인과 유전자 교류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2천년전 아이누 모습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2천년전 아이누라면 한국인이나 야요이인과 유전자 거리가 아주 멀었겠지만 지금 아이누는 거의 야요이인이라고 봐야죠. 2천년전 아이누가 조몽인이 아니었나 짐작해요.

바비 (2006-12-27 07:10:35)

그리고 아이누와 스페인 바스크 언어 관계:

http://www.freerepublic.com/focus/f-news/1160355/posts

이 바스크 언어는 우랄어로 분류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유럽의 끝, 그리고 동아시아의 끝에서 살아남은 소수민족 언어가 매유 유사하다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고대사산책 (2006-12-27 08:32:19)

- 외모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또 다른 생활환경도 관련되고..

코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길이 높낮이.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 일종의 항온항습기능을 하다보니.

동북아인들의 눈이 가늘게 된 것도 빙하기 기온과 관련 있다고 했던가요. 열손실방지를 위한..

기마민족과 수상생활에 익숙한 사람들과의 차이도...기마민족은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길다든가...반대로 강남사람은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다든가...이런 거죠.

/ 이들이 동북아를 거쳐 인도 아셈지역에 정착한 시기가 유전자 마커로 대략 수천년전이라 하니 대개 인더스문명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아 제 최근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 이것은 어쩌면 영국인 누군가가 전에 주장했던 '석가족=코리족'설과 연결될 수 있을지도...인도의 타밀족도 혹시...

솔본 (2006-12-27 17:18:31)

남방계 몽골로이드의 성립설은 바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몇 중국학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울러 유전자간의 거리로만 집단의 이주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유전자풀내의 변이형태를 추적하면 그 선후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관 집단간에 유전자 흐름의 타임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몽골로이드의 북방계와 남방계의 구별은 크게 보아 문제가 되지는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인류의 이동 방향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만5천년전에서 8천년전 사이에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문명의 탄생과 확산이 서남아시아가 아니라 동아시아인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과
그 핵심에 우리 한겨레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아이누인들의 유전자가 몽골리언이라는 것은 야요이시대 이전에 결정되었던 것이고 아이누인들이 죠몬문화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은 가능성있는 스펙큘레이션으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본 학계에서는 선사시대 몽골리언의 디아스포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본은 미국 시카고학파들과 손잡고 죠몽문화를 인류문명의 요람지로 내세울 연구들이 속속 진행중인데 우리는 선사문화에 대한 연구가 미미해 걱정이군요..

바비 (2006-12-28 16:20:53)

physical anthropology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봐요. 가령 Y-염색체 유전자 다양도만 보더라도, 보통 다양도가 높은 곳이 source 이고 다양도가 낮은 곳으로 이주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나 이런 해석에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병목 현상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추운 북쪽에서 병목이 높게 나타나서 다양도가 줄어들 수 있고. 북에서 온 A 집단 일부가 남쪽에 있는 B 집단과 혼합한다면 당연히 남쪽에서 다양도가 높게 나타나겠죠. 또 유전자 마크에서 전이는 마크들마다 서로 아구가 맞지 않는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를 보는 것 같기도 하죠.

이들 물리인류학자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간에요. 그 큰 그림은 옛기후학과 같은 다른 학문 성과 결과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봐요. 중국 아이들이든 누구든 빙하기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에 몽골로이드가 "남에서 북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왜 몽골로이드가 기후가 점점 추워지는데 더 남쪽으로는 내려가지 못할 정 거꾸로 추운 북으로 올라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봐요.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떤 논리와 통계분석법을 썼던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솔본 (2006-12-29 00:19:04)

바비님의 코멘트에 기본적으로 공감..
고기후와 남방계 몽골로이드 북상의 모순점은 설명되어야 할 문제군요.

그런데 사르탄 빙기로 빙하가 재확대되었고 이로인해 남쪽의 열대 우림이 온대로
그리고 중부 온대가 초원지대로 변화했다면 당시 초식성 메가파우나는 중부에서
초원의 북상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 메가파우나를 쫓아 중위도권의 인류도 어느 정도 북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북방인류로서는 빙하의 확대로 초원이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겠지요.

저는 결국 동아시아에서 황해평원이 북방인류와 남방인류가 마주친
인구조밀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국 소수민족의 설화가운데는 북방신과 남방신이 만나 엄청나게
싸웠고 그 결과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전승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
지나인들은 왜 한자를 버리고 싶었나?

역사를 코미디처럼 해석하는 것은 불온한 것이겠지만 청말에 지나 한족들의 백화운동,
즉 어려운 한자를 버리고 구어(spoken language)를 쓰자고 폭동처럼 일어났던 현상은
저에게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나 한족들이 대대로 주장하는 것이 한문의 창제가 그들 손에 있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청말에 일어났던 백화운동은 도저히 한문으로 쓰여진 문어를 가지고는
말이 이뤄지지 않으니 고대문을 버리고 일상문을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자로 父는 중국어로 'fu'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비'라고 훈을 달고 '부'(bu)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 父자를 지나 한족이 'fu'로 발음하는 한, 그것이 '아버지','아빠'의
뜻을 전달하지 못한다는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인들은 백화문, 즉 한족의 구어로서 '아버지'를 뜻하기 위해
처음에는 ' 阿父 '(a fu)라는 글자를 만들어 쓰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아예 爸 (아비 파) 자를
만들어 爸爸(baba)로 쓰기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이 이 爸爸(baba)로 또 여기 저기서 아버지의 뜻이
통하지 않으니 阿爸(a ba)로, 또 阿爹 (a tie)로 등등 난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뭐, 언어라는 것이 세월에 따라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지나인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 음가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변화해야할 이유가 있었을까..

한자가 알파벳이 아닌 상형문자인 이상, 아비 父자는 후대에 그 발음들이 변화하더라도
그 뜻은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한자 父를 굳이 '爸爸(baba)'로 쓰고 읽어야 하는 것은 과거
한문문장을 그대로 읽어서는 지나인들의 '자연어', 즉 구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점은 한자라는 문자에 대해 그 발음의 역사적 헤게모니가 이리저리 움직여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한자를 중국인이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정녕 한자를 만든 이들의 후손인가?

-솔본-

솔본 (2006-12-31 20:15:36)

참고로 지나인들이 중화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계속 유지하고
중국을 중원대륙의 문화적 용광로로 치부하는 한 그들의 정치경제는
임계 폭발점을 향해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수천년에 걸친 동아시아 제 민족의 문화를 그들의 한족문화에
융합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소수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현재 몽족, 즉 묘족의 언어,문화에 대한 복원작업은 미국과 유럽의 몽족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지나 한족이 이러한 중국내 소수민족들을 한족문화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경제력이 소수민족을 부양해 줄 수 있는 한계내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적우위,군사적 우위가 주변제족 통합의 원동력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화공존이 중요한 키워드이므로
오로지 경제력으로써만 주변의 통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지나의 경제성장이 어디까지 가능할 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동아시아 제족의 문화와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한
그들의 경제력에 적신호가 켜지면 모두들 돌아설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조선족이 그 선봉에 서겠지요.

삼태극 (2007-01-11 15:14:46)

깊이 동감합니다.

차이 (2007-05-04 02:32:47)

한자? 중학교때 배워습니다~~그런데 고등학교 가선 안가르쳐주더군요~``
cOO2에 와서 얼마나 한문자에 대해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곤..... 시험을 준비합니다~ (8급부터 해야하나?>...ㅡ,.ㅡ)
한자를 배우고도 문제가 돼는것은 문장입니다`
왜?> 영어(중국어순) 문법으로 분장을 익혀야 하는가요?
이것이 상당 궁금합니다....한자를 익히기에 더욱더 좋은 우리의 문장법은 없나요?
알려주세요~

소달구지 (2007-08-08 18:10:23)

100년 전만 해도 '진서', '참글'이라 했답니다. 한자(漢子)라 칭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 라는 군요. 우리부터라도 '참글','진서'라고 칭하면 좋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글자가 바로 참글이군요.

<>
유럽 금발여성들의 자연투쟁기

인터넷에서 우연히 유럽 금발여성들의 진화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선데이타임즈 기사입니다.

The Sunday Times February 26, 2006

Corrected-Cavegirls were first blondes to have fun
Roger Dobson and Abul Taher

[정정] - 최초의 금발녀들은 선사시대 동굴녀가 즐기기위해 변신?

THE modern gentleman may prefer blondes. But new research has found that it was cavemen who were the first to be lured by flaxen locks.
According to the study, north European women evolved blonde hair and blue eyes at the end of the Ice Age to make them stand out from their rivals at a time of fierce competition for scarce males.

현대 남성들은 이왕이면 금발녀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데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히면 최초로 노란 머리채에 휘까닥 넘어간 이들은 선사시대 동굴남
들이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빙하기말 북유럽에는 남성들의 개채수가 희박해졌는데 이로인한 살벌한 짝짓기
경쟁에서 여성들은 스스로를 경쟁자보다 두드러지게 보임으로써 남성들을 사로잡기위해 금발의 머리
와 푸른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The study argues that blond hair originated in the region because of food shortages 10,000-11,000 years ago. Until then, humans had the dark brown hair and dark eyes that still dominate in the rest of the world. Almost the only sustenance in northern Europe came from roaming herds of mammoths, reindeer, bison and horses. Finding them required long, arduous hunting trips in which numerous males died, leading to a high ratio of surviving women to men.

아울러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금발의 발생은 1만년에서1만1천년전에 식량부족으로 인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전 지구적으로는 검은 갈색머리와 검은 눈을 한 사람들이 일반적이었다.

그 당시 북유럽인들은 오로지 맘모스와 순록 들소와 말을 쫓아 방랑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냥감을 찾는 과정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사망했고 결국 여성의 높은 생존율로
이어졌다.

Lighter hair colours, which started as rare mutations, became popular for breeding and numbers increased dramatically, according to the research, published under the aegis of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밝은 색의 머리채는 처음에는 드물었으나 짝짓기에 인기를 끌게됨으로써 그 개체군이 크게 증가
한 것이라고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연구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Human hair and eye colour are unusually diverse in northern and eastern Europe (and their) origin over a short span of evolutionary time indicates some kind of selection,” says the study by Peter Frost, a Canadian anthropologist. Frost adds that the high death rate among male hunters “increased the pressures of sexual selection on early European women, one possible outcome being an unusual complex of colour traits.”

" 북유럽과 동유럽에서 사람들의 머리와 눈의 색이 짧은 진화시기에 비정상적으로 다양화되었던 것은
일종의 자연선택이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연구자인 캐나다 인류학자 피터 프로스트의 말이다.

그는 또 " 남성 사냥꾼들의 높은 사망율은 초기 유럽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선택에 높은 압박을 가했고
그 가운데 가능했던 한 방법이 바로 색조를 복합적으로 특화시키는 것이었죠"라고 말한다.

[역자주 : 쉽게 이야기하면 북유럽 여성들의 경우 가능한 빨리 남성과 짝짓기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필요에 의해 남성들을 유혹하고자 신체색조가 색다르게(?)변화했다는 것입니다.]

Frost's theory, to be published this week i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the academic journal, was supported by Professor John Manning, a specialist in evolutionary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Hair and eye colour tend to be uniform in many parts of the world, but in Europe there is a welter of variants," he said. "The mate choice explanation now being put forward is, in my mind, close to being correct."

프로스트의 이러한 이론은 이번주 학술잡지인 '진화와 인간행동'에 실릴 예정인데 센튜럴 랭카셔
대학의 진화학자 존 매닝교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머리색과 눈동자의 색은 전세계에 걸쳐 단일한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유럽에서만 다양하죠,
짝짓기 선택이라는 설명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타당성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닝교수의 말이다.

Frost's theory is also backed up by a separate scientific analysis of north European genes carried out at three Japanese universities, which has isolated the date of the genetic mutation that resulted in blond hair to about 11,000 years ago.

프로스트의 이론은 다른 과학적 연구로 부터도 지지받고 있다.
세개의 일본대학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북유럽인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금발의 유전자는 지금으로부터 11,000년전에 비롯되었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The hair colour gene MC1R has at least seven variants in Europe and the continent has an unusually wide range of hair and eye shades. In the rest of the world, dark hair and eyes are overwhelmingly dominant.

머리색의 유전자인 MC1R은 최소한 7개의 변이를 유럽에서 보이는데 다른 나머지 세계에서 검은색의 머리와 눈동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비정상적인 것이다.

Just how such variety emerged over such a short period of time in one part of the world has long been a mystery. According to the new research, if the changes had occurred by the usual processes of evolution, they would have taken about 850,000 years. But modern humans, emigrating from Africa, reached Europe only 35,000–40,000 years ago.

그렇게 짧은 시간안에 세상의 한 곳에서 그토록 많은 변이를 보인다는 것은 오래된 미스테

리였다.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만일 정상적인 진화과정을 거친다면 약 85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현생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유럽에 도착한 것이 3만5천년과 4만년전 사이다.

Instead, Frost attributes the rapid evolution to how they gathered food. In Africa there was less dependence on animals and women were able to collect fruit for themselves. In Europe, by contrast, food gathering was almost exclusively a male hunter's preserve. The retreating ice sheets left behind a landscape of fertile soil with plenty of grass and moss for herbivorous animals to eat, but few plants edible for humans. Women therefore took on jobs such as building shelters and making clothes while the men went on hunting trips, where the death rate was high.

프로스트는 그러한 빠른 진화를 식량채집 방식문제로 돌린다.
아프리카에서는 식량으로서 동물에 대한 의존도가 적고 따라서 여성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 과일따위를 채집할 수있었다.하지만 유럽에서는 반대로 남성들의 동물사냥이 식량채집으로서
결정적 수단이었다.

빙하의 퇴각은 비옥한 토지를 열어주었고 각종 목초들이 풍성하게 자람에 따라 초식동물들이
이를 먹을 수 있었으나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움막집을 짓거나 옷을 만들거나 하고 남자들이 사냥에 나섰는데 이는 결국 남성
들의 높은 사망율로 이어진 것이다.

The increase in competition for males led to rapid change as women struggled to evolve the most alluring qualities. Frost believes his theory is supported by studies which show blonde hair is an indicator for high oestrogen levels in women.

남성을 차지하기 위한 여성들의 경쟁은 빠른 속도로 여성들의 고혹성을 개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프로스터는 자신의 이론이 금발의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일반 여성보다 높다는 사실로
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믿는다.

Jilly Cooper, 69, the author, described how in her blonde youth she had "certainly got more glances. I remember when I went to Majorca when I was 20, my bum was sore from getting pinched".

69세의 여성작가인 질리 쿠퍼는 자신의 금발처녀시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확실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스무살때 지중해에 있는 마주르카섬엘 갔었는데 하두 사람들이
내 엉덩이를 꼬집어 부어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역자주: 제가 알기로는 유럽남부에서는 중년남자들이 아름다운 아가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꼬집는 것이 모욕이 아니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건가 합니다. 할머님 말씀의
요지는 "예뻤던게 죄"라는 것이겠죠...]

However, Jodie Kidd, 27, the blonde model, disagrees with the theory: “I don’t think being blonde makes you more ripe for sexual activity. It’s much more to do with personality than what you look like. Beauty is much deeper than the colour of your hair.”

하지만 올해 27살인 금발의 모델인 조디 키드는 동의하지 않는다.

"글쎄요 금발이라는 것이 성적활동에 보다 완숙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 보다는
성격과 관련이 더 있겠죠. 아름다움이란 머리색보다 더 깊은 그 어디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역자주: 됐거든요. 이쁜 거 알았거든요..하여튼 여자들이란...]

Film star blondes such as Marilyn Monroe, Brigitte Bardot, Sharon Stone and Scarlett Johansson are held up as ideals of feminine allure. However, the future of the blonde is uncertain.

영화스타속의 금발, 가령 마릴린 먼로, 브리짓 바르도, 샤론스톤 그리고 스칼렛요한슨등은
요염한 여성의 이상형으로 지금도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도 금발은 그럴까?

Correction: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has asked us to remove an earlier erroneous reference suggesting it had conducted a study which forecast natural blonds were likely to be extinct within 200 years. The WHO issued a formal denial of such a study in 2002. Click here for the WHO statement.

정정: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본 기사와 관련하여 자연산 금발이 200년안에 멸종될 것이라는 2002년
연구보고인용에 대해 오보라며 삭제해 줄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WHO는 2002년에 그런 연

구가 없었
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역자 후기 : 저널리즘과 너절리즘사이에서 정말 교묘하게 줄타기를 했군요..낚시기사라도 이정도면 합격.. 근데 유럽의 금발녀들이 치열한 생존때문에 자연선택으로 고혹적으로 변신했
다는 점을 참고하면 우리 된장녀들은 나중에 자연으로부터 벌받을 듯.]

-솔본-

김한별 (2007-01-01 07:40:49)

이 관련 내용 한국 뉴스에 소개됬던걸로 기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솔본님

솔본 (2007-01-01 12:39:51)

한별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호주는 지금 덥지요?

김한별 (2007-01-03 06:50:10)

뉴질랜드 입니다 ㅠ.ㅠ ㅎㅎ
예 여름 시즌이지만 아직 그다지 덥진 않네요, 지구 온난화가 문제라는데 뉴질랜드는 영향을 안받는듯 싶습니다 ^^;

<>
로마 카톨릭은 산해경의 天毒을 알고 있었나?

1.

산해경에 등장하는 조선천독(朝鮮天毒)은 대대로 많은 학자들의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곽박이 주석한대로 天毒(천독)이 곧 천축(天竺)이라면 고조선이 곧
인도와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의 학자들은 이 기록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 여겨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왔고 우리 국내에서는 毒자와 督자가 통자(通字)임을 들어 '하늘이 돌보는 나라'로
해석하고 天毒(천독)을 조선에 대한 수식어로 본 것이죠.

그렇다면 산해경에 천독을 천축이라 주를 단 곽박은 좀 모자라는 사이비학자였던 것일까요?
곽박이 산해경에 주를 달던 당시에 천축天竺은 인도가 아닌 어떤 다른 나라였던 것일까요?

곽박은 당대(東晉/AD4C)의 뛰어난 문사요 풍수지리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산해경뿐만 아니라 초사(楚辭),이아(爾雅)등도 주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은 금낭경(錦囊經)
이라는 책은 唐과 근세조선에 이르기까지 풍수지리의 바이블이었지요.

곽박 당시에 '천축국'은 이미 인도를 지칭하고 있었고 곽박은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곽박은 왜 동북방 고조선과 함께 있던 천독을 당시에 인도라 일컫는 '천축'으로 해석
했던 것일까요?

천독(天毒)과 천축(天竺)은 모두 그 발음이 '텐뚜'입니다. 상고한음어로는 '탠둑'(Ten duk)이죠.
곽박은 그 발음들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았던 것일까요?

이 의문은 아이러니하게도 13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실마리가 주어집니다..

2.

서기 1289년, 교황 니콜라스4세 (Pope Nicholas IV)는 지오반니(Giovanni Da Montecorvino)

라는 수사에게 아시아에 로마 카톨릭을 포교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당시 로마카톨릭은 동방교회, 즉 네스토리우스교가 로마에서 이단으로 축출된 후 중앙아시아에서
강력한 유목민들을 성공적으로 개종시키는 모습에 불안함을 느꼈던 것이죠.

지오반니수사는 이러한 로마교회의 명을 받고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북경에 다다르고
초대 북경 카톨릭의 주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오반니는 로마교회에 아주 기이한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바로 '텐둑'(Tenduk)이라는 나라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오반니는 1294년 'Tenduk'(텐둑)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칸(Khan)을 만나 그를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시켰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텐둑'은 북경의 북쪽이며 몽골리아의 일부분이라고 기록합니다.
현재 우리가 만주리아라고 르는 곳이죠. 바로 홍산문명의 발원지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www.CatholicCulture.org사이트에 소개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 봅니다.

Friar Giovanni reached Kamablik in 1294, where he soon won the esteem of the Khan who ruled the region of Tenduk (part of Mongolia and what is today Manchuria, north of Beijing).

수도사 지오반니는 1294년 카마블리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는 '텐둑'(Tenduk: 오늘날 만주로 불리우는 몽골지역,북경의 북쪽) 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칸으로부터 호의를 얻었다.

The Khan had already been baptized by the Nestorians with the Christian name of George,
Kirghis in Kurkic. The name of this Khan was later given to ethnic groups known as the Kirghiz

그 칸은 이미 네스토리우스교로부터 침례를 받았으며 '게오르기'라는 크리스쳔 이름까지 갖고
있었는데 쿠르킥어로 '키르기즈'라 했다. 이 칸의 이름은 후에 키르기즈로 알려진 종족을 지칭하게
되었다.

3.

사실 이 '텐둑'(Tenduk)에 대해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다름 아닌 마르코폴로였습니다.

마르코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텐둑'은 당시 유럽인들이 아시아를 통치하고 있다고 믿은 신비의
전설적인물 '프리스터 존(prester John)의 직계가 다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코폴로는 쓰기를 '텐둑'은 아시아 동쪽 멀리에 있는데 그 나라는 광할하고 또 수많은 도시와
성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텐둑은 '웅칸(Ung Khan)'이라 불리는 지도자에 의해 통치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그 문물과 제도가 아주 뛰어나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코폴로는 '웅칸'의 군대가 징키스칸에의해 정복되었으며 징키스칸은 '텐둑'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몹시 두려운 표정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르코폴로가 이 '텐둑'(Tenduk)의 왕과 국민들이 크리스쳔이었다고 기록함으로써
후대 많은 사람들이 마르코폴로는 실제 중국을 가지 않았고 들은 이야기를 썼을 것으로 생각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후에 로마교회의 지오반니 수도사의 보고와 기록을 통해 텐둑이라는
나라가 북경의 북쪽 만주리아 부근에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이처럼 서양에 의해 발견된 '텐둑'(Tenduk)이 산해경의 천독(天毒/ 고대 발음은 '텐둑')과
위치상으로나 그 발음상으로 놀랄만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북경의 위쪽에 위치한 그런 문명국 텐둑이 있었다면 왜 중국 사서들은 그 텐둑에 대해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마르코폴로나 지오반니 수도사가 목격한 텐둑은 인도의 천축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동북아시아, 고조선의 강역에서 '텐둑'을 만난 것입니다.

12세기와 13세기에 네스토리우스교가 이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산해경이 말한 天毒과 같은 컨셉과 같은 발음을 가진 나라가 동일하거나 가까운
지역에 13세기까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마르코폴로는 '텐둑'(Tenduk)을 신비의 왕 '프리스터 존'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운데 하나라고 썼습니다.아울러 그 당시 ' 프리스터 존'은 아시아를 통치하고 있다고 알려진 수수께끼의 크리스쳔 사제이자 왕이었습니다.

당시 서구유럽의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초원의 기마민족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으며 싹티운 일종의 메시아적 개념이었는 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 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쳔 지도자 프리스터존, 그가 야만적인 아시아 유목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우리를 그들의 활과 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라는...

우리는 13세기 로마 카톨릭교회가 발견한 텐둑과 마르코폴로가 보았다는 고도 문명의 나라 텐둑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키스칸이 정복하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텐둑...

곽박은 짧은 한줄로 천독을 천축이라 했지만 어쩌면 그는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단 그 이상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금기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곽박은 그의 학문적 양심상 후대에 진실이 밝혀질 실마리로 '天毒 天竺也'라고 단 한줄 남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치 레오나드 다빈치가 그랬던 것처럼...

-솔본-

신비자 (2007-01-02 09:38:22)

"곽박 당시에 '천축국'은 이미 인도를 지칭하고 있었고 곽박은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명제의 근거는 있는 겁니까?

어찌보면 2천년래 지구 최대의 자연현상이었다는 백두산 화산폭발과 이후 거란,여진,몽골의 발호 및 일제의 잔제정리가 '텐둑'이라 불리우는 곳과 한반도의 연결고리를 끊어놓았을지도 모르겠군요.

백송 (2007-01-02 10:46:11)

사기(史記) 115권 조선열전(朝鮮列傳) 제55편

....朝鮮蠻夷及 故燕齊亡命者 王之 都王險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혹시 천독과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험독險瀆은 어떤 연관이 없을까요?

<>
백두산.. 그 순수한 우리말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 겨례의 성산 백두산..
하지만 우리는 그 산의 진정한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겨례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오늘도 그 누군가는
그 백두산에 올랐겠지만...

아무도 이 백두산을 아득한 과거 우리 조상들은 무어라 불렀는지
관심이 없었겠지요.

백두산의 순 우리말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 순수한 우리 겨례말로 백두산이 되살아 나면 그 의미로 인해
더욱 가슴벅찬 감동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올해 이 백두산의 우리말을 찾는 탐험을 시작해 보려합니다..

곰탱이 (2007-01-02 22:02:53)

근거없는 얘기입니다만..
흰머리---히말라야.
어감이 비슷해서.

조국선 (2007-01-03 01:06:19)

白 : 가장 으뜸,머리되는 것, 모든 것의 맏이가 되는 것.
지세의 근간 즉 뿌리가 되는 으뜸으로서의 장소를 뜻한다고 봄.
頭 : 그 뿌리가 줄기가 되어 으뜸인 것, 또는 그 바탕을 이루는 으뜸인 곳.
山 : 모든 뭇 생명의 품안과 그 생활 터전을 뜻하는 것

그러므로
백두산은 흰머리산 보다는
1) 맏머리 뫼
2) 마루뫼
3) 으뜸머리뫼 등등으로 생각해 봅니다.

안파견ㅋ (2007-01-04 10:01:41)

백두의 두는 콩두가 아니라 머리두인데 ..

백두산은 원래 태백산이죠

우리 발음으로는 한밝산(뫼)정도 되겠습니다.

<>
고조선의 DNA는 초기 신라속에 유전되어 있다.

얼마전 선문대 이형구교수와 교원대 송호정교수가 만나 최근 국사교과서에 실린
고조선에 대해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이형구교수는 우리 고고학계에서 '환발해문화권'을 주창하고 이를 우리 민족문화의
근원으로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지요.

이에 대해 송호정교수는 고조선에 대한 면밀한 고증과 해석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교수가 다소 '굵은 선'으로 종합적인 획을 그어가고 있다면 송교수는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쳐내고 분석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두 석학이 만나 나눈 대담을 보며 우리 고조선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더욱 궁금해
질 뿐이었습니다.

송교수의 고조선에 대한 문제는 유물과 유적의 추정만이 존재하고 그 생활상을 기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조선을 적극적으로 역사교과서에 편입함에 다소 시기상조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 '실체없는 역사 공동체'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겠지요.

그런 점이라면 저는 고조선의 정치,문화와 생활에 대해 초기 신라를 거울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이르기를 '신라는 조선의 유민이며 산곡에 분거하여 6촌을 세웠다'라
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고조선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실마리라는 생각입니다.
실마리치고는 아주 휼륭한 것이죠.

삼국사기의 이 구절로 인해 우리는 신라를 곧 고조선의 묘예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고조선의 유민인 신라인들의 언어,정치, 문화,예술속에 고조선의 전통이
남아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정의 또 다른 근거는 신라와 낙랑간의 관계로 부터도 유추됩니다.

삼국지 위지에서는 '신라가 낙랑을 '아잔'(我殘)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광옥이 펴낸 우리말 고어 사전에 '아잠'은 바로 친가 일척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는 후한시대 응소의 주를 인용해 '낙랑은 옛조선'즉 고조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말해 '고조선'= '낙랑'='신라의 동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삼국유사가 말하는 '혁거세 30년에 낙랑인들이 신라에 항복해 왔다'는 상황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낙랑인들이 고구려나 백제가 아닌 신라에 항복해 온 이유가 바로 고조선이 해체되어 부여, 고구려
옥저,사로등으로 분기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초기 신라, 즉 사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지나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기보다는 고조선의 독자적 전통을 고집했던 까닭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전통이 어쩌면 낙랑인들에게 신라가 더욱 고조선다운 유대감을 주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전통이란 바로 지나적이 아닌 유라시아를 아우르던 구리-배달의 면모였겠지만
말입니다.

-솔본-

솔본 (2007-03-11 05:24:52)

송호정 교수에 대한 재야사학의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비판과 비난은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사교과서에 대해 송교수의 '청동기 없는 청동기 시대'라는 지적은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말한다는 것은 신념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과학의 영역일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저널리즘의 영역인 것일까요...

gudara (2007-03-11 08:44:01)

아침부터 욕나오게 만드네...개념이 없는 사람이네...역사학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참으로 어이 없네....

조국선 (2007-03-11 08:51:49)

솔본님/ 어이없는 사람이군요.어처구니 없는 것 중의 하나는 님은
님의 욕심을 위하여 원수를 끌여들여 형제를 멸망케 할 사람이군요!
이런 사람을 일러 패륜아 또는 망나니라 하고
나라를 상대로 할 때는 반민족자 매국노 국가의 역적으로 부르죠!
당나라를 끌여들여 형제국을 멸망시킨 신라가 한민족의 국통이란 말입니까?
님만 혼자 그렇게 하세요!

코끼리손 (2007-03-11 11:03:14)

위에 두 분은 솔본님에 대해서 아시고 그런 건지-_-;;
저는 지금도 각 나라의 민족성을 논하기에는 이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존 강단이 만들어 낸 역사구도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마당에
섣부른 가치판단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죠.
적어도 지금은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가리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대륙조선을 접하면서 놀란 것은 민족성을 뛰어넘어 조선이라는 국체가 너무나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근대 이전의 대륙인들의 생각이 지금과 확연히 다르다는 말이겠죠.
저는 버리면 아예 더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강단사학자들의 업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추론을 가지고 낸 답을 언제까지 신용할 수 있을까요?
이 참에 다 버리고 맨 밑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지리하고 재미없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gudara (2007-03-11 11:28:47)

코끼리손님! 강단사학자들이 이룩한 업적이 뭔가요?

진실 (2007-03-11 11:37:09)

솔본님 글중 가장 경솔한 글 같은데요

kingstone91 (2007-03-11 12:21:34)

제목과 글내용과는 전혀 딴판이군요.
DNA 이야기는 하나도 안나오네요.

과학적인 추론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한 글입니다.

제 생각에는 낙랑이 신라에 투항한 이유는
1. bc37년에 망한 낙랑이 뭬놈의 낙랑군이고 신라가 진짜로 秦나라 유민이거나.
2.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이거나...
3. 소백산맥 남쪽으로는 북방민족이 관심 밖이므로 편안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고조선의 맥을 이어받은 나라는 바로 고두막이라고도 불리는 동명이 세운 부여인데, 이유는 한단고기에 고두막은 고열가의 자손일수있다고 말했기때문이죠.
그리고, 동명부여의 후손은 바로 고구려와 백제가 될 수 있으며...
삼국사기에도 보면,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동명의 후손을 자처하여 백제는 건국원년에 동명의 묘를 세웁니다.
낙랑이 고조선의 맥을 이었다는 것은 뭬놈들의 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한사군의 낙랑을 고조선의 전체인것인냥 서술한 뭬놈들의 역사왜곡에 속아나지 맙시다.

솔본 (2007-03-11 14:38:28)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하니 오해들이 많으시군요..
제가 경솔했다기 보다는 여러 맥락을 생략하고 글을 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송교수에 대해서는 민족사학진영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지 저는 송교수의 주장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고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교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분명히 민족사학진영이 풀어야 할 숙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랑에 대해서는 아직도 낙랑이 한사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군요..

고구려,부여,백제등이 고조선에서 분기해 나가면서 지나의 문물을 적극 도입했다는 것에 기분 나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란 제민족간의 교류와 투쟁의 총화가 아닙니까?

고구려,백제,부여는 분명 지나족에 많은 영향을 주었겠지만
신라와는 상대적으로 또 지나의 문물을 적극 수용해 나아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신라는 초기에 고유색깔을 오래 간직해 왔고 그 전통이 고조선의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구려,부여가 고조선의 직계로 분화된 것인지, 아니면 구리-배달시대에 이미 그 정체성이 형성된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제는 부여-고구려계로 이어지니 이 역시 고조선의 직계인지 분명하게 말하려면 좀 더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고조선의 실체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초기 신라를 모델로 해야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뿐입니다.

kingstone91 (2007-03-11 14:59:02)

오해할 소지를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목이 아주 이상해요.

고조선의 실체를 들여다보려면 고구려와 백제를 보아야죠 왜 신라를 봐야하나요.
님의 주장은 신라가 정통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체 그저 고조선을 보기 위해서는 신라를 봐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라초기의 색깔이 왜 고조선의 것인지 충분한 이유가 없어요.
신라는 변진의 세력중 일부인데... 규원사화에 따르면 비록 변진의 지도자들이 조선유민이라 할지라도, 변진의 백성들은 南夷의 세력으로 본래 고조선의 중심세력이 아닙니다.
논거가 충분하지 못해요.

삼국사기를 보면요 백제는 시조를 배알하는 기사도 나오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기록

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라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기록은 없고 시조에게만 제사를 지내요.
이것을 보더라도 신라는 고조선의 모델이 아닙니다.

진실 (2007-03-11 15:02:56)

경솔하다고 한것은 고조선 역사교과서 편입에 관한 글때문에 쓴것이고여
이것은 늦은일이죠.증거? 지나의 사고 전서에도 나오는 나랍니다

초기 신라뿐 아니라 초기에 부여와 고구려 .또 백제를 캐보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요
히스토리 21에서 대방이란 사람이 주장하길 신라를 백제가 만들고 고구려가 키웠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대방이란 사람에 주장은 일본 삼서와 화랑세기.삼국사기.상장돈장을 연구하며 고대사가
풀린다고 주장하고 김씨와 부여씨를 추적하면 고대사가 보인다고 주장하며

보통은 식민사학계는 신라를 민속학계에서는 고구려를 크게 그리지만 이사람은
백제를 크게 그릴려고 하는사람같은데 (뭔의도가 있는것 같기도 ..)
솔본님이 한번 읽어 보시면 뭔가 영감을 얻을지도 모르겠읍니다
(www.history21.org)
신라 초기 임금들에 호칭만으로도 뭔가 초기 고조선에 형태를 신라가 부여나.고구려.백제
보다 더 지켰다고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kingstone91 (2007-03-11 15:17:37)

백제의 천지신명 제사 기록

온조왕 20년 봄 2월에 왕이 큰 단[大壇]을 설치하고 친히 천지(天地)에 제사지냈는데 이상한 새 다섯 마리가 와서 날았다.
38년 겨울 10월에 왕이 큰 단[大壇]을 쌓고 천지에 제사지냈다.
다루왕 2년 봄 정월에 시조 동명묘(東明廟)에 배알하였다. 2월에 남쪽 제단[南壇]에서 천지에 제사지냈다.
고이왕 5년 봄 정월에 천지에 제사를 지냈는데 북과 피리[鼓吹]를 사용하였다.
10년 봄 정월에 큰 제단[大壇]을 설치하여 천지와 산천에 제사지냈다.
14년 봄 정월에 남쪽 제단[南壇]에서 천지에 제사지냈다.
비류왕 10년 봄 정월에 남쪽 교외[南郊]에서 천지에 제사지냈는 데 왕이 제물로 쓸 짐승을 친히 베었다.

근초고왕 2년 봄 정월에 천신(天神)과 지신[地祇]에게 제사지냈다.
아신왕 2년 남쪽 제단[南壇]에서 천지에 제사지냈다.
전지왕 2년 봄 정월에 왕이 동명묘(東明廟)에 배알하고 남쪽 제단[南壇]에서 천지에 제사지냈으며, 크게 사면하였다
동성왕 11년 겨울 10월에 왕이 제단을 만들고 천지에 제사지냈다. 11월에 남당(南堂)에서 여러 신하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신라가 천지신명께 제사지낸 기록은 없고, 시조에 제사지낸 기록과 "바다", "산", "강" 등에 제사를 지낸 기록만 있는 것으로 봐서 신라는 고조선의 문화를 계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라는 하늘 숭배사상이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본 (2007-03-11 15:29:46)

킹스톤님/

고조선의 문물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초기 신라를 모델로 하자는 것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 조선유민'이라는 구절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조선의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한단고기등을 인용하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것은 문명사적 입장이지 구체적인 생활사적 입장은 아닌 것이죠.

물론 저는 삼국사기에 '백제 조선유민'또는 '고구려 조선유민'이라는 기록이
있었다면 백제나 고구려를 조고선의 모델로 제안했을 겁니다.

kingstone91 (2007-03-11 15:41:19)

제가 삼국사기를 예를 들어 생활사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신라는 기본이되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라를 기본모델로 고조선의 생활사를 복원하자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변진의 백성들은 규원사화에서는 "남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조선의 적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진한이 고조선 유민이라고 기록하는 것으로봐서 유추할수있는 것은

조선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박혁거세 석탈해 이들 중심되는 인물들이 고조선유민이라는 것이고, 백성들은 고조선 유민이 아니라 "남이" 세력이죠. 그렇기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것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시조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고, 임금님의 호칭은 고

조선의 관습에따라 마립간, 거서간, 니사금등으로 부른것이죠.

[Mr.Crow] (2007-03-11 15:55:01)

잘했던 잘못했던 신라는 분명히 우리 선조의 나랍니다. 신라를 빼놓고 우리 역사를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도대체 왜들 그렇게 신라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지 저로써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솔본님이 올리신 이 글은 그저 고조선 유민들이 신라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낙랑이 신라에 투항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신라 초기 문화를 고조선 역사복원의 모델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신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강단사학계에서 "고조선의 실체가 없으니 고조선에 대한 확정적인 기록을 현국사서에 남기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라는 억지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다시 신라정통론과 연결시켜 솔본님을 매도하는, 여전히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저는 긴 한숨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발 소아적인 피해망상은 버리십시오. 현재의 지역감정에 기인한 역사적인 평가는 구리넷의 분열을 조장할 뿐이며 이 나라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이곳은 삼국 중 누가 정통을 이었는가를 가려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오랑캐들에 의해 축소되고 은폐되기 이전의 참역사를 복원해내기 위한 곳이란 말입니다.

모든 게 우리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영혼의 고향처럼 여기는 분들이라면 우리 민족과 역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는 모두 한결 같을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 과격한 언사를 사용함으로써 괜한 분란 만들지 마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토론자, 구성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솔본님의 글 오랜만에 뵙습니다. 간만의 방문을 환영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정신적 소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몇몇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실망감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비록 제가 운영자님은 아니지만 대신 사과드립니다. 너무 괴념치 마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올려 주시어 귀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kingstone91 (2007-03-11 16:07:01)

쌍심지를 켜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솔본님의 논거를 뒤집에 생각해보죠.

신라가 고조선 유민이라고 기록되어서 고조선 생활사 복원에 이용하자고하는 것은...
백제와 고구려는 고조선 유민이 세운 나라가 아니니 고조선 생활사 복원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가야 발해 모두 고조선의 후손들입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 고조선의 생활사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지 신라를 가지고 복원하자고 하니 쌍심지를 켜는거고... 글의 제목좀 보세요.
DNA라.... 좀 심하지 않습니까.

솔본 (2007-03-11 16:58:36)

하하하하...

킹스톤님..너무 화내지 마세요..
고구려,백제,신라,발해,부여,옥저 다 우리 민족사입니다.

제가 고조선의 DNA라고 한 것은 비유적 표현일 뿐입니다.
그 고조선의 문명사적 DNA가 초기 신라에 잘 보존되어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고구려,백제가 처음부터 중국식 호칭 '왕'을 쓸 때 신라는 마립간,거서간,차차웅등
고유의 칭호가 있었고 그것이 혹시 고조선식 호칭은 아니었겠냐는 추론입니다.

진실 (2007-03-11 18:42:24)

마립간 .거서간.차차웅 호칭이 고조선과 연관성이 있냐 이거죠
초기 신라가 고조선을 더많이 계승했다면 당연히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거죠

고구려는 태조란 호칭을 최초로 쓴걸로 압니다 중국도 나중에 이 호칭을 썼다고
하는데요 .글고 태왕이란 칭호는 독자적인거죠

글고 고조선을 알기 위해선 5국 초기역사 .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야에 초기 역사를
알아 나가야지 이중 어느하나만 찾아서는 부족하죠

한단고기 태백일사 편에는 고구려왕호는 태열제나 태황으로 쓴걸로 나옵니다

kingstone91 (2007-03-12 02:35:43)

한단고기 황제 칭호는 조작된겁니다.
"제"는 원래 하느님이란 뜻으로 임금님 호칭으로 쓰지 않아요. 옥황상제... 이렇게 하느님과

비슷한 존재에나 쓰입니다.
뛔놈들이 하두 오만방자하고 무식하여 "제"자를 쓴거에요.

원래 둘째놈(뛔놈)이 첫째(우리나라)가 되려면 무식하게시리 아버지(하느님, 帝)를 팔어먹는 법입니다.

마립간 거서간 등에 대한 솔본님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마립간에 대한 의견을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고조선의 임금호칭으로 불한, 말한, 신한이고 제일 높은 임금이 신한이라고 조선상고사에 기록되어있어요..
이는 지일, 천일, 태일로 그리고 태왕을 우리말로 바꾸면 바로 신한이라고 나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은 칸, 간 등과 통하는 글자죠.

그리고 신라가 마립간을 쓰게 된 때는.. 아마 신라의 태자가 고구려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왔을때일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문물을 약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바로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쓰게된거죠.
마립간과 비슷한 호칭이 고구려에 있는데요 바로 막지리입니다.
마립, 막리 둘다 비슷한데 이것을 저는 말한의 "말"을 한자로 표기한거고...(첫글자에서 초성과 중성을 따서 "마"를 쓰고 두번째글자에서 종성인 "ㄹ"을 따서 말이되죠)
신라는 임금님 뜻을 가진 간(칸, 한)에다가 붙여 마립간을 썼고요....
고구려는 정승이라는 뜻을 지닌 지에다가 붙여 막리지라고 쓴 것 같습니다.

결국 신라임금은 높은 임금이란 뜻이고, 고구려 임금은 임금중의 최고임금이란 뜻이됩니다.
백제는 어라하라 하였는데, 어라는 "아리" "욱리"등 크다는 뜻이고, "하"는 임금님 호칭인 "한"과 비슷하므로 큰임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한자로 바꾸면 마립간은 天王이고, 백제는 大王이 되고, 고구려는 太王이 되죠.
이는 고조선의 天一, 地一, 太一과 같고,
또한 말한, 불한, 신한과 같습니다.
삼국은 고조선의 질서안에 있었던겁니다.

사서에 나오는 한자는 뜻으로 읽읍시다!

조국선 (2007-03-13 12:33:22)

초기 신라가 고조선의 유민이라면 고구려 백제는 고조선 백성 그 자체입니다.
흘러온 유민과 그 백성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저렇게 해석을 해도 신라는 고조선의 변방에 해당하고 고구려 백제는 고조선 중심에 해당합니다!

<>
고조선 너무 무리하지 말자.

어느 나라의 역사건 거기에는 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역사란 구체적이고 입증가능한 실체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한 역사 공동체에 뿌리가 존재한다면 그 뿌리는
구체적이고 입증가능한 형태로 서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신화의 영역이 될 수 밖에 없고
역사에 편입되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조선을 이야기 한다고 합시다.

일단 이 고조선은 근세조선과 구별되어 정의된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
일연스님이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고조선왕검조선'이라고 따로 적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괄호표시 개념이 없어서 그냥 '고조선왕검조선'을 붙혀 쓴 것이죠.

다시말해 일연스님은 한나라와 전쟁을 치룬 '위만조선'의 뿌리가 단군왕검이 세운
옛날(古) 조선(朝鮮)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말할 때는 지나사서 동이전의 '조선'도 아니며
사마천이 꾸며낸 '기자가 세운 조선'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는 '조선'은 삼국유사, 동국통감등에서 말하는
'단군'이 세운 BC2333년의 '왕검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왕검조선' 또는 '단군조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민족사서에는 풍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이 '단군조선'의 실체를 시대가 요청하는 민족의 존립차원에서 '믿음'의 문제로
맡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앙인이나 민족이념가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나 학자들로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덜기 위해 일부 고고학계에서는 우리 고조선의 배경으로 그 청동기 시대를
기원전 20세기~15세기까지 올려 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편년, 즉 청동기 유물이 나오지 않는 청동기 시대라는 아이러니에 직면했던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대신 고조선의 실체와 관련해서 설득력있는 모델들에 대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흔히 이러한 것을 철학적 용어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페큘레이션은 가설단계로 머물지만 결국 이 스페큘레이션을 통해 입증의 방법들이 만들어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단계에서 고조선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가능한 많은 스페큘레이션들입니다. 하다못해 고조선은 단군이라는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와세 세웠다고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러한 '스펙큘'을 통해 유물이나 유적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요...

그러한 점에서 삼국사기가 말한 '신라 조선유민'의 구절은 고조선의 실마리를 초기 신라로 부터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스페큘레이션'인 것이죠.

-솔본-

玄朝 (2007-03-11 16:51:27)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솔본님은 예전에 활동했던 솔본님과는 전혀 다르는 모습을 보여진 것같습니다..

저는 지금 솔본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에 얽매여 집착한다면..
어떠한 곳에 있든 자신이 있던 곳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곳에 출토되는 유물을 자신의 역사학적 근거로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학식으로서의 도구로 전락시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홍산문화 유적지를 고조선(古朝鮮)의 유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의 학식또는 통념을 고수하기 위해 한반도 내에 출토된 유물로만 집착합니다..

어쩌다가 한반도 내에서도 자신의 학식 또는 통념과는 전혀 다른 유물로 나온다 한들..
자신들 스스로 멋진말로 " 검토해봐야한다 "라는 식으로 내뱉거나,
" 상식 "에 벗어난 일이니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만 내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 스페큘레이션 "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도의 위치에 따른 관점과 유물론적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며..
오직 여러 사서에 나오는 기록들을 탐구하여 찾아나가는 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자괴감을 들 뿐입니다..

gudara (2007-03-11 16:52:45)

참으로 어이 없는 사람이군요. 할 말 없습니다. 송**부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군요.

玄朝 (2007-03-11 16:54:46)

여러 사서들 가운데, 요사(遼史)와 금사(金史) 등의 기록을 찾아보면, 고조선(古朝鮮)과 고려(高麗 :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kingstone91 (2007-03-11 16:57:40)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에서 청동기가 발견되고 그 연대도 BC25세기까지 올라가는것으로 압니다.

고조선시대에 청동기유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고조선을 대동강 이남에서 찾으려 했기때문일것입니다.

玄朝 (2007-03-11 16:57:48)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주십시오..

솔본님께서 아직 젊기에 " 서서히 굳어진 관념 "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玄朝 (2007-03-11 16:59:52)

kingstone91님.. 강단사학계는 홍산문화유적지를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조선사편수회의 맥에 이어지는 관념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사학계의 전신은 조선사편수회에 왔으니까요..

솔본 (2007-03-11 17:12:17)

현조님/

제가 변한 것은 아니고요..

국사교과서에 고조선에 대한 기술이 충분치 않게 서술되는 바람에
오히려 민족사학계가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때문입니다.

민족사학의 힘은 강단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민족통합이라는 운동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지
강단사학을 대상으로 학계의 헤게모니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고조선 교과서 문제는 향후 민족사학진영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孤雲™ (2007-03-11 17:21:37)

'speculation' 한가지를 제시한 것뿐인데 너무들 흥분하시는 것같네요.

1.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많지가 않다.
2.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speculation을 제시해본다.

3. 그 speculation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고 고조선을 재구성해본다.

당장 지나땅으로 이북땅으로 넘어가서 땅을 파볼 수 없으니 현재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많이들 흥분하시는 것같은데,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만큼 열정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겠죠? ^^

진실 (2007-03-11 18:30:53)

이곳에서 쭉 봐오던 솔본님인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고조선 이전 문명들이 고조선 주강역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고
이것을 중국에서 동이 문명이라고 하고 중국역서사에서 고조선에 실존을
증거하며 그동안 민족 사학계가 주장해온 내용들이 강단사학보다
맞아 들어가는 면이 강한데

이제 겨우 역사교과서에 편입되서 신화적으로 서술된 부분을 역사적으로
명시한것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태클을 걸어서야 ...

교과서에 부족한 부분은 자료가 없다기 보다 울며 겨자먹기로 고조선을 역사로
인정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강단사학자들에 인정하기 싫고 해서도
않돼는데 억지로 할려니 최소한에 표현 수정을 해서 그런거죠

저격수 (2007-03-11 19:09:49)

흠... 그래도 많은 팬들의 실망한 마음 달랠 길이 없군요.
평소 솔본님은 실증적인 자료들을 자유로이 동원하여 이론을 전개해 나가시던데,
고조선 유물에 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신라는 고조선의 유민이다라는 그 한 구절만으로 의심스런 신라의 정체성을 화끈하게 양지로 끌어 올리는 솔본님 답지 않은 대도약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런 식이라면 고구려 백제가 고조선을 정통으로 이었다는 사료적, 실증적 자료들은 차고 넘친다고 봐야 하는데 말이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유로운 역사 전망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솔본님 조차도 역사는 정치다라는 일반명제에 '당연히' 구속당한다고 봐야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습니다.
눼, 눼!^^

[Mr.Crow] (2007-03-11 21:12:20)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었던 신라 정통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우리는 고대사에 관한한 독보적인 존재였던 "고대사산책님"을 잃었습니다. 애초에 얻을 것이 없었던 논쟁으로 인해 이곳의 소중한 자원이었던 고대사 산책님을 잃었단 말입니다. 이번 타켓은 솔본님입니까? 작전세력이 이미 너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군요. 이런 식이라면 지금의 구리넷의 현재를 이룩했던 분들을 모조리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머지 않은 시일 안에 말입니다. 그 전에 운영자님의 결단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모사 (2007-03-11 21:29:06)

분단상태에 더구나 식민사학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고조선을 확정적으로 교과서에 싣는 것은 미래에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더구나 고조선의 주강역이 동북아 지역이 아니라 훨씬 서쪽이라거나 신라가 천산너머 서쪽과 연관이 깊다는 주장도
많은걸로 아는데...개인적으로는 고조선은 우리만의 선대역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조선을 어느정도 인류문명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지는 않을까....

진실 (2007-03-12 01:22:41)

필요이상 우리역사를 서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읍니다
변형식민사학자들이 우리 인종 자체를 서구인에서 왔다고 주장하기 전에
상고대 역사를 필요이상 서쪽에 배치할려는 수작일수있읍니다

북방에서 남하해서 어느정도 정착하다 동진할수도 있고여.북방에서
바로 동진해서 바이칼을 거쳐 만주나 발해.산동.강소를 근거 했을수도 있고
이것이 두갈래 다일수도 있겠죠

서쪽을 역사에 넣을려면 서쪽으로 영토확장을 나섰다거나
밀려난 종족 일부가 천산넘어 까지 가서 토착민을 정복하고 문명을
일으켰다 뭐 이런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봐도 되고구지

서쪽에서 왔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하는것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고조선이전 일로 일단 보고 (이후에도 정벌은 있을수 있지만)

고조선 문명 이전 문명인 대문구 문명이나 용산문명.홍산문명권이 고조선 주강역에서
일어났다고 이것을 이어받아 융화시킨 문명이 고조선이라고 보는게 옳을것같읍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강역은 대륙삼국영토보다는 컷을것이고 최소한 대륙삼국이 지배하던곳이
고조선 주강역이 될것같읍니다(대륙삼국에 영토도 얼마인지 확실친 않치만)

일단 서토인들이 동이주강역.동이족이 사는곳으로이라고 역사속에서 주장한곳이 최소한의
구리국과 고조선 강역이라고 봐야하지 않을지..

고조선을 서쪽 어디에 둔단 말입니까?고조선 까지 서쪽에 위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뭔가 의심해 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조선을 역사교과서에 싣는것이 어째서 미래에 부담이 됩니까? 이해하기 힘든주장입니다
남에 나라는 이나라 역사까지 훔쳐서 자기꺼라 하는데 뭣이 문제가 되어 중국역사서에도
인정하는 고조선을 인정못한단 말이죠?

님들이 말하는 부담이 않돼는 때는 언제 입니까?

역사복원자체가 국내외적으로 반대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그들은 반대할겁니다

어느 시대가되면 부담없이 역사를 복원할수있을거라 보십니까?

코끼리손 (2007-03-12 08:41:49)

언제부터 게시판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충돌했는지-_-?
모두들 마음에 여유가 없으신 듯 합니다.
저는 솔본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납득이 갑니다.
송호정의 주장 중 하나는 옳았습니다.
그것은 이번 고조선 사태에 학문 외적인 힘이 너무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좋았지만 과정이 좋진 않았습니다.
결국엔 학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발짝만 잘못 빠지면
학문은 포퓰리즘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학자라면 당연히 경계해야죠.
이렇다 할 유물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조선 문명을 너무 밀고 나가다가는
이도저도 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고조선도 그렇고, 삼국시대도 그렇고, 유물이 너무 없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이들 나라의 유물을 연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맞는 소리겠죠.
좋은 고서 하나라도 더 발견된다면, 가설에 살을 붙일 수 있을지언정 증명은 쉽지 않습니

다.
결국은 유물타령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야의 역사연구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한계가 있는 고대사연구보다는 근현대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단은 소득이 많고 판을 엎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대사만의 연구로 환국과 구리시대가 교과서에 편입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진실 (2007-03-12 10:17:32)

여태까지 고조선을 신화로 몰고 간것은 학문적인 일 때문입니까?

역사란 국내패권세력이나 국가간 힘의 관계에서 과장되기도 축소 왜곡 되기도 하는거지요
학문 외적인 요소가 역사를 좌우하는겁니다

중국에 동북공정이 없었다면 학문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이 고조선은 신화로
남아 있었을겁니다

포퓰리즘을 말하는데 권력과 자본.언론정보를 장악한 세력이 대중을 움직입니다
대중에 눈과 귀를 멀게하고 .의지를 꺽어 버리죠

울나라 시민정신을 이끄는 보수나.진보단체 중 어느세력 제대로된 국가관.민족관을
가진 단체라도 있읍니까? 모두 서구 숭배적인 단체들이죠

그래서 대중도 서구 숭배적이되는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고대사에 대한 포퓰리즘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여 오히려 필요이상 숭서구적 시각으로 세상을 추구하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서구에 영원한 식민국으로 남을수 있다는것을 경계하는 편이 낫죠

고조선 문명을 뭘 밀고 나갔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고조선 이전문명 그것을 이은 고조선.고조선이후에 문명이 발굴되고 중국역사서에서도
실존을 기록해 놨는데 뭘 밀고 나간다는건지..

솔본님이 예전에 올린 글에서 실증사학이란 역사조작 프로그램으로 유럽이
어떻게 그리스 역사를 조작하고 백인종 우월주의를 만들고 세계 식민경제지배를
나서는지에 대해 본적이 있읍니다

실증사학은 역사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지나사서에서 고조선을 인정하고 고조선문명에
유물도 나오고 그이전 유물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유물 타령만 합니까?

상고대 연구를 않하고 근현대사연구하면 편할것 같읍니까?
매국노청산 못한 근현대사.이거 제대로 정립할수있겠어여?
이승만 .박정희 제대로 평가해서 교과서에 실을수있겠읍니까?
뉴라이트에서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주축이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교과서에 실자고 주장하죠..

환국과 구리국시대까지는 몰라도 고조선은 반드시 교과서에 편입되야하고
이미 너무 늦어어여

역사는 국가간 관계에서 결정난다고 봅니다 역사를 학문적으로만 볼수있는시대가
언제 있었는지 묻고 싶어 지내요

지금은 늦었지만 고조선을 교과서를 통해 인정한건 긍정적인것입니다
종교적으론 기독교계가 장악한 나랍니다.단군상에 칼질이나 하는 사람들이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남미꼴 납니다.종교도 서구를 지향하고
종족적으로 혼혈화되서 본래에 정체성을 상실할겁니다

역사알짜 (2007-03-12 16:29:20)

우리나라에 상고사 유물...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보이는 곳에 있을 뿐입니다. 중국의 은나라는 벌써 실존했다는 것으로 돌아섰고 하나라도 있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나라가 존재했다면 분명히 고조선도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와 고조선의 관계를 기록한 사서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이럴때면 정말 안타깝군요. 만주? 요동? 간도? 이런 땅은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북한에 묻혀있는 고구려, 부여, 고조선 관련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

구신 (2007-03-13 02:50:15)

그 하나라 유물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하나라 것이 맞는건가요? 오히려 조선것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玄朝 (2007-03-13 11:18:00)

솔본님,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Mimesis (2007-03-21 00:05:43)

많은 유물들을 요하문명전등 지나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 괜한 꼬투리나 빌미를
우리가 미처 준비하기 이전에 제공하게 되는 우에 대해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
고조선에 대한 몇가지 오해에 대하여

오랜만에 쿠투에 들렸습니다.
매일 눈팅을 하면서도 막상 글을 쓸 여유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사실 요즘같아서는 쿠투에 글을 올리는 것이 겁이 납니다.
쿠투회원님들의 매서운 질타때문이 아닙니다.

제글이 여러 블로그를 통해 포탈들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쿠투회원님들과 저는 오래동안 여기서 만나 생각을 나누어 왔기 때문에
제가 다소 생략하거나 비약하더라도 쿠투회원님들은 제 글의 취지를 아시고
행간을 읽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치졸한 논리로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엔 한 포탈 블로그에서 저의 글을 인용하며
'환빠 집단 쿠투넷에서 본좌행세하는 솔본의 글'이라고 부제를 달았더군요.

그런 거에 기죽을 제가 아니지만 전체 맥락을 모르는 일반 독자들이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 하나 쓰는데 신중하게 되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설하고요..

얼마전 고조선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고조선에 대해 무리하지 말자는 의도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대동강 문명론'때문입니다.

북한 역사학계는 1993년 단군릉 발굴을 계기로 BC3000년경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대동강은 메소포타미아,이집트,황하문명과 더불어 세계 5대문명권이라고
교과서에 기술합니다.

사실 이러한 영향이 남한 역사학계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 교과서에 단군조선의 실재를

인정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군조선의 실재가 국사교과서에 역사로 편입됨에 있어서 저 솔본 또한 반갑지 않을리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북한 역사학계가 주장하듯 한겨레의 역사가 단군조선-고조선-고구려-고려-조선
으로 이어지고 통일신라를 폄하해 버린 점에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겨레역사의 동력이 평양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 향후 통일한국의 수도가 평양이어야 한다는 미래적 암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평양 단군릉의 실재와 발굴과정, 연대측정등에 무리수가 많아
자칫 나중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북한 고고학계의 주장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고조선의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었고
우리가 주장하는 고조선의 대륙경영설은 모순에 빠져 들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입장에서는 '고조선의 평양=지금 평양'론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민족 주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민족사학이 주장하는 바와 사뭇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국사 교과서에 '고조선 BC30세기 건국'은 북한 고고학계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결코 민족사학진영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북한 고고학계의 단군릉 유물이나 유적의 연대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국사 교과서의 '단군조선 BC30 세기 건국'은 오류가 될 것이고 그 이후의 문제는
민족사학 진영에 결정타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남한 정세의 개편 분위기에 따라 '민족사학=북한 사학'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낙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강단사학이 이러한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한방에 보내려는....

우리 민족사학의 정도는 강단에서 헤게모니를 쥐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사학의 의의는 운동성에 있습니다.

남북간의 민족 통합을 이끌어 내고 지역갈등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운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운동의 모멘텀이 북한의 정치 고고학으로부터 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 신라를 폄하하는 북한 역사학계는 우리 민족사학 진영과 손잡을 수 없는 자기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정략적 고조선 인정론'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고향은 서울이고 저의 부모님은 평양이시며 저의 조상님은
고조선 마지막 임금으로서 '韓'으로 성씨를 삼은 '준'임검입니다.

-솔본-

좌계 (2007-04-09 20:54:18)

솔본 님의 본 뜻을 좌계는 존경합니다.
애초에 '무리하지 말자'는 선생의 글을 '이용당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이런 해명의 글까지 선생께서 써야한다는 한국의 현실이 좌계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픕니다.

이희석 (2007-04-09 22:02:57)

평양은 고조선 3京 중에 하나이므로...
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부심 (2007-04-09 22:46:31)

'구이넷' (저는 이렇게 압니다만) 에서 솔본님의 글을 자주 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조상님이 고조선의 임금님'이라는 대목은 좀 놀랍네요.
어떤일을 하셔서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잘 풀려서, 좀더 여유가 생기시길 바래요.

바람의날개 (2007-04-09 23:26:52)

눈팅만 하는 저에게 즐거움으로 로긴하게 만드시네요..
감솨함다.
솔본님의 블로그에 가보고 싶은데
주소가르쳐주세요^.^

한국인 (2007-04-09 23:38:23)

솔본님, 부디 님의 글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위의 좌계선생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사학계가 기원전 3000년의 청동기유물을 말한다면,
분명히 과거 고조선의 중심지역에서는 그 보다 더 오래된 유물이 나올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그것을 그 뭐라고 칭하든,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유물이라는 것은 변치않을 것입니다.
(님의 글을 헐뜯는 그 잡귀들이 혹시 저쪽 사막잡귀들입니까?)

해신 (2007-04-10 02:33:21)

솔본님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저도 대부분 공감하고있고,솔본님 글 인용해서 블로그와 포털사이트에 많이 알린것도
사실이구요..
다음 아고라방에서 신랄하게 싸운적도 있습니다.. 종교론자들 특히 사막잡신 뫼시는 야훼파들과는 말이 안통하더군요..ㅎㅎ

[Mr.Crow] (2007-04-10 06:41:19)

솔본님. 최근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민족주의에 치우쳐서

역사 = 민족 이렇게 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결코 이 민족, 이 겨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이곳을 찾으신 솔본님을, 마침, 당시에 솔본님이 올리신 글이 고조선, 너무 집착하지 말자... 뭐 이런 글이셔서 그런거지, 결코 그 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폄훼하고 갈라치려고 한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분들이 이곳에 유입될 때, 곰주먹이니, 홍산이니 하는 사이비님들이 막 유입되던 그 때였습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고 노여움 푸시고 솔본님의 깊고 넓은 글을 다시 접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푸소서.

김안나 (2007-04-10 09:05:46)

솔본님 글 잘 읽었습니다. 인터넷의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우리지만 다른 한편으론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통제력을 잃고 발생되어 곤란해 질 수 있단 생각해봤습니다. 무서운 일이네요. 그렇지만 정말 화이팅하시고요 저같이 사람들을 위해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가지 글들과 기사들이 있지만 이곳에 와서 글을 읽는 이유는 객관적이라고 뜬 뉴스 기사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나 비평이 이곳에 같이 있기에 저에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원제로 운영을 해도 이러한데...정말 적당한 무시와 모른척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글고 고조선의 마지막 임금님의 자손이란 마지막 문구에 정말 고조선이 제 가슴에 살아숨쉬는 벅찬 느낌 받았습니다. 우와~ 대단해요.

<>
어처구니 없는 한겨레?

어처구니를 아십니까?
맷돌의 손잡이.. 그걸 어처구니라고 하죠.

멧돌을 돌리려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미쳐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경우를 두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답니다.

멧돌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 사진은 좀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위 사진은 아랍여성들이 멧돌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두 여성이 어처구니를 잡고 있네요.

윗 그림은 구약성서시대 즉 고대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인들이 멧돌질하는 모습입니다.
고대 예루살렘에서는 저녁때가 되면 집집마다 멧돌돌리는 소리가 사방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위 그림은 바이킹여성이 멧돌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멧돌이 유럽에 전파되면서 영어로는 Rotary Quern이라고 이름지어졌지요,

멧돌=Quern (발음은 '꿔~ㄹ언) , 그런데 'Quern'이라는 언어의 기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셈어도 아니요, 인도유럽어도 아니고,드라비다어도 아닌데 정말 아무도 왜
그걸 '꿔~ㄹ언'이라 부르는 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런 회전멧돌을 발명했는지도 역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회전멧돌은 아득한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 그 원형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첨단 고물(?)인셈인데 고대에는 소수 엘리트층만이 이 회전멧돌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회전멧돌을 발명한 집단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
바로 고대 문명의 중요한 세력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래 사진은 BC3000년경 독일 남부에서 발견된 어처구니가 빠진 맷돌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멧돌이 발견된 곳은 이란영역인 '우라르트'라는 고대 지역으로서
과거 'Hurri /Kurri'라는 고대인들이 활동하던 지역이었지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아마도 이 회전멧돌이 서남아시아 레반트문화권에서
BC3,000~BC5000
년 경에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학자들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콜럼버스 도래이전부터 바로 이 회전멧돌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말해 회전멧돌의 기원은 아주 까마득한 시기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DeBoer, W. 2001 Of dice and women: gambling and exchange in Native North America, In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8:215-268.]

그런데 이 맷돌과 관련해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동남부 소수민족들과 우리 민족간에 아주
똑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큰 홍수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오누이만이 산 꼭대기에 살아남았는데
남매간에 결혼을 해도 좋은 지 신에게 묻고자 각자 암멧돌과 수멧돌을 굴렸더니 '떡'하니
붙어서 이를 신의 허락으로 여겨 결혼하고 오늘날 인류가 세상에 다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BC8000년전 황해평야의 침수로 이동한 중국동남부와 한반도의 proto-桓族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맷돌과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신화소가 바로 우리 한겨레에 남아있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일까요?

-솔본-

아 깜박 했네요 우리가 쓰는 잘난 척 못난 척 할때도 이 척이라 생각합니다
얼척구니가 변해서 어처구니로 된것같아요

<>
전세계 고인돌은 왜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을까.

전세계 고인돌의 숫자는 대략 7만여기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에 4만여기가 있고 다시 전남에 1만여기, 그리고 대동강유역에 1만4천여기가 분포해 있습니다.

고인돌의 분포는 유라시아를 비롯 중동과 인도에 까지
미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세계 고인돌의 약 절반 가량이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이상합니다.

만일 이 고인돌이 한반도가 아니라 북경이나 로마등에 집중돼 있었다면 분명히 지나 학자들이나 서구 학계가 가만있지 않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고인돌이 거석문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피라미드나 스톤헨지등 고대문명의 전파자가 자신들이라고 얼마나 떠들어 댔겠습니까?

그들은 고인돌의 집중지가 한반도라는 사실에 시큰둥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거 뭐 다 건너간 거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 한반도의 고인돌, 그 축조 연대는 여전히 미스테리

우리 고인돌의 축조연대는 대략 언제 쯤일까?
흔히 고인돌의 부장품과 유물연대를 들어 BC 10세기니 BC8세기니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는 분명히 부장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그 고인돌이 축조된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인돌의 축조 연대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는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른다'입니다.

이 '모른다'라는 의미는 적어도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부장품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고인돌의 축조시기는 '그 상한선이 BC10세기 이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고인돌은 프랑스 지방에 있는 BC4,000년 경의 고인돌

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인돌은 유럽에서 한반도로 전파된 것일까요?

- 한반도 고인돌의 밀집은 한반도에서 그러할 사유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자, 이제 고인돌이 유럽에서 한반도로 전파되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인돌의 축조는 무게가 몇십톤이 나가는 돌을 찾아서 운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고인돌의 축조에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고인돌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형돌날처럼 수렵과 어로에 획기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고인돌이 그 어떤 생산을 증대시키지도 않으며 또 전쟁에서 쓸모있는 무기로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고인돌에는 일반적인 문화전파,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문화차용의 성격이 처음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세계에 분포하는 고인돌에 대해 어떤 부족이 다른 부족이 고인돌을 만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차용했다고 설명하기 보다는 그 고인돌 축조 부족이 이동하면서 그러한
고인돌
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고대의 유럽에 고인돌을 처음 축조했던 부족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부족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인돌을 만들어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한반도에 이르러 이제까지 만든 고인돌의 절반을 한반도에 축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고인돌 축조부족이 있다면 이들은 이주과정에서
그 숫자가 분명히 감소했을 것이고 따라서 원 거주지역에서 멀어질 수록 그 고인돌의
축조 밀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유럽부족은 대단히 강력한 정복력을 갖고 이주한 곳의 부족을
통합하여 고인돌을 축조케 해야 합니다.

만일 정복에 의한 고인돌 축조가 이뤄졌다면 이 유럽의 고인돌 축조 부족이 유라시아와 인도, 중국등을 남겨두고 유독 한반도만을 집중 공략해서 절반의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설명이 되므로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전세계 고인돌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연대의 상한을 확정할 수 없다면 고인돌의 전파는 한반도에서 유라시아로 이주한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설명이 합리적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세계 고인돌은 특정 종족의 지표일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고인돌이 그 어떤 생산력이나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용에 의한 '문화전파'의 대상이 아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인돌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고인돌은 어떤 종족의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고인돌의 축조 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고인돌을 축조해 그곳 원주민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고인돌을 통해 그 부족의 막강한 단결력과 파워를 상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다른 부족이 함부로 얕보거나 텃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과시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에게 거대한 바위는 일종의 성물이었는데 그러한 큰 바위를 들어 올려 축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부족이 보기에 그 부족에게는 강력한 신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밀집된 고인돌 역시 부족간의 파워 과시용이었을까요?

한반도 고인돌의 비밀은 해안선과 하천에 있다

우리 고인돌의 분포를 보면 대개 서해안과 하천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천의 경우 내륙하천보다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하천이 주를 차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발해만 요동지역과 중국 동부의 고인돌 역시 동일한 분포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BC1만년에서 BC3000년 사이는 황해 해수면이 큰 변화를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간빙기에 접어들면서 해수면의 높이는 약 100M상승을 보였고 그 당시 태풍의 진로를 고려해 본다면 황해평원에 거주했던 집단들은 거대하고도 불규칙한 쓰나미를 겪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황해수면의 진입으로 고대부락들은 동과서 그리고 북쪽으로 후퇴해 갔고 당연히
이러한 지역에 홍수에 대한 여러 형태의 전승과 예방, 그리고 방재신앙등이 동반되었을 것 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돌이 초기에 홍수에 대한 측정과 방재신앙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선돌(당간지주)과 솟대를 과거에 수살막이 (水殺막이)라고 불렀던 점에 비추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물흘리면 홍수나는 돌장승'이야기는 전남 서해안에 널리 퍼져 있는 설화이기도 합니다.

선돌과 고인돌은 태풍과 지진등에도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고정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특정부면을 기준으로 해수면과 내륙수면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황해평원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고대 한겨레의 상징물. 그것이 바로 고인돌이었고
유럽과 중근동에 거석문명을 연 기원이 되었다는 설명은 하늘이 두쪽나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일까요?

-솔본-

카오스 (2007-04-17 00:42:54)

솔본님>좋은 글이시기는 한데....

고인돌이 주로 '묘'로 사용되었던 점에서 솔본님의 앞부분 추정은 매우 개연성이 잇다고 봅니다만,
후반부 즉, "고인돌이 초기에 홍수에 대한 측정과 방재신앙의 대상"일지도 모른다는 추정은 조금 비약일 것 같군요.

거대한 고인돌이나 어떤 제사적 상징물이었던 선돌 등이 홍수 후에도 남아서 수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홍수 측정용으로 저런 거대한 석물을 이용했다고 보기에는 선듯 납득이 않되는군요.

고인돌과같은 거석문화가 한반도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거석문화의 원류가 한반도일 것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추론이라고 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코끼리손 (2007-04-17 10:36:33)

고인돌이 그 규모에 비해 국내에서 애써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본님 말씀은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솔 (2007-04-17 12:55:54)

고인돌과 같은 거대한 거석은, 건축자재로 쓰기에 딱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적이 남아 있지 않은 지역이 고대에 고인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고인돌이 남아 있는 지역이 풍파가 적었던 지역이었다는 점,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안전한 지역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수몰된 서해안 바닷속 고인돌은 환타지군요. 지형이 변화되기 훨씬 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때가 언제인가요?

고대인류중에는 여러인종이 있었는데, 현대인은, 거인족의 후손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고인돌이, 서해안 바닷가 아래로 잡기기 전에 만들어 질려면, 자이언트족들이 만들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겐 그 돌이 그리 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옛 한국인은 장신이었다고 하니, 고인돌이 유독 많은 한반도 라면, 거인족들이 끝까지 남아 있던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건지?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네요.

이만..

구신 (2007-04-19 00:34:30)

아리아인??

웅스(강운기) (2007-04-25 04:12:29)

제가 보기에는 모두 맞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예전에(지금으로부터 1년 이내) 어떤 교수가 쓴 글에서 고인돌이 홍수 즉 물의 흐름에 버티는 힘이 강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한가지 빠진 내용이 있다면... 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고인돌이 영어로 '돌멩'이라는 점이죠. ^^

dolmen : (명사) 고인돌

웅스(강운기) (2007-04-25 04:14:38)

솔님의 댓글 중에서..

수몰된 서해안 바닷속 고인돌은 환타지군요. 지형이 변화되기 훨씬 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때가 언제인가요?

서해안이 가라앉은 것은 불과 몇천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지문]을 쓴 저자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에 하나로 발해만을 꼽았습니다. 불과 20미터~100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발해만 바닷속에 어떤 고대문명이 우리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민호 (2007-05-01 21:11:01)

고인돌, 영어로 돌멘은 우리말로 하면 돌묘의 영어식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읽은 적 있습니다.

<>
역대 환인과 환웅들의 이름 뜻

프로토 알타이어로 그 의미를 추적해 본 역대 환인,환웅들의
이름 뜻입니다.

더 정리되는 대로 보완해 올리겠습니다.

1대 안파견(安巴堅) 환인(B.C.7199)

==> Amba gwen (암바겐) : Amba (大) + gwen(光)

==> 이집트와 아메리카 인디언에게도 '암바'라는 위대한 존재가 있음. 우리에게는 '한배검'으로
존재함.

2대 혁서(赫胥) 환인,

==> hese / kese (헤쎄 /케쎄) : (天)

3대 고시리(古是利) 환인,

==> kesli (케슬리) ..황소?

4대 주우양(朱于襄) 환인,

==> ?? 중국신화중 여와와 복희와 더불어 등장하는 신 中央(중앙)?

5대 석제임(釋提任) 환인,

===> shude-in (슈더인) : 화염(火炎) /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의 천둥신 슈테킨과 동일

6대 구을리(邱乙利) 환인,

==>??

7대 지위리(智爲利) 단인(檀仁이라고도 한다)

==>??

==========

1대 거발한 환웅(居發桓, 94, B.C 3897, 120세, 일명 배달 환웅)

==> gebar khan (게바르 칸(한) : 용맹한, 뛰어난, 굳센 (gebar) + 군주(khan)

게바르한은 몽골의 '쿠블라 칸'(kubla khan : 쿠빌라이)과 같은 뜻이며 메소포타미아와 히브리인들의 구약성서에는 게바르(gebar)로 '영웅'의 뜻임.

우리말에는 고어로서 'kobar'(고발:여기서 'ㅂ'은 순경음)이 있었고 이는 굳세다, 강하다의 뜻이며 나중에 '고+발'>'고+알'>'괄'로 변천.

거발한이 일명 배달인 것은 'batar'의 음차로서 이 또한 영웅의 뜻이며 아프카니스탄등 인도-이란어 (토카라어)에서는 'Vaktar'(박타르)로도 불리움. 뜻은 역시 '영웅'

따라서 거발한, 즉 게바르칸=바타르=영웅이라는 한단고기의 설명은 타당하며 이 어휘의 알타이어와 토카라어 즉 고대 인도이란어는 동원관계임을 보여줌. 한단고기의 저자가 알타이어와 히브리어, 토카라어에 정통했던 것일까?

2대 거불리 환웅(居佛理, 86, B.C.3803, 102세)

==> gebar-li (게발리) :쿠빌라이'와 같은 뜻

3대 우야고 환웅(右耶古, 99, B.C.3717, 135세)

==> Auge (아우거) : 대인, 지도자, 大兄의 뜻으로 몽고와 중앙아시아,시리아에는 Aga로 알려져 있음. 그리스신화 '아가멤논'의 'aga'도 이 연장선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에게는 고조선의 왕 '우거'가 이 음차일 것으로 봄.

이하는 연구중입니다.

-솔본-

좌계 (2007-04-24 09:29:56)

솔본 님께서 늘 궁금하던 '거발한'의 의미를 비교언어학적으로 규명해주셔서, 좌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발한, 즉 게바르칸=바타르=영웅이라는 한단고기의 설명은 타당하며 이 어휘의 알타이어와 토카라어 즉 고대 인도이란어는 동원관계임을 보여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언어가 중국대륙을 에워싸고 어떤 '문화적인 교섭'이 초고대 부터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분되는 학술적 규명이라고 봅니다.

좌계가 경제인류학적으로 '박달화백' - '배달화백'을 규명하고 있는데,

이는 거석문명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정치-씨스템(system)이라고 생각을 늘 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거석문명의 전파의 흔적이 역시 언어에도 남아있구나 ?!"하는 조심스런 감동이 옵니다.

'목의 가시'같은 거발한의 뜻을 규명해 주셔서 고마 와 같습니다.

아니지 (2007-04-24 10:10:19)

좌계님

박달화백과 배달화백을 박달 화백은 나 곧 생산자 협의체 배달 화백은 라 곧 운송자 협의체 곧 나라는 위의 글을 뜻한다고 보시면 안될까요

님이 주창하신 네트워크와 같은 맥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승이 언어통역체계

철광산那--운송羅---철강회사那---운송羅---농기구那 요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솔본님

전 거발한을 주거 시스템을 처음 만드신 분으로 보고 있는데 거발한께 이 의미를 추가하면 안될까요?

아니지 (2007-04-24 11:01:13)

그리고 거발한님이 잡초제거농법이나 활을 발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태규 (2007-04-24 11:29:06)

솔본님. 쪽...쪽지좀.ㅠㅠ

솔본 (2007-04-24 12:50:15)

김태규님/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솔 (2007-04-24 13:57:34)

시도가 좋아 보입니다.

맞던 아니던 간에, 이런 시도를 한 글은 처음 보는 듯합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솔 (2007-04-24 14:20:39)

솔본님,세잎님,아니지님의 글은 언어를 분석하면서, 올린 글이라서, 나의 흥미를 끌기에 좋은 글입니다.

비록 글을 읽으면서, 100%수긍가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읽고 있습니다.

천지 (2007-04-28 09:46:55)

솔본님의 탁견이 뛰어나 보이십니다. 결국 우리고대 불교용어가 힌두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에서의 변천으로 본다면 그 뿌리인 고대 라틴어 헬라어 고대 페니키아어로 이어진다고보

면 이제사 밝혀지는 고대문화 교류의 현장을 보는 듯합니다... 박트라왕국 페트라 파르티아 빅토리아왕조 빅토르 빅토리 결국 '승리'를 향한 전진 이었던건가요...'영웅들의???

천지 (2007-04-28 11:11:32)

엠바강이 있군요... 우랄지역에...베세니오스-비너스- 비쉬느-비[雨]신?

엠바강의 써-ser-士- 엠버써-엠버서드-엠페러-하늘에서보내 땅을 견고케한 사람?

<>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의 어원

압록강은 신완순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둥 오리 머리처럼 푸른 강'하고는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자어에 대한 해석이었던 것 같구요..

압록강의 어원을 살펴보기 위해 송화강의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겟습니다.

松花江(송화강)은 중국어로 'Song hua jiang' (쏭화지앙)으로 발음합니다.
이를 한자로 풀어보면 '소나무 꽃의 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송화강을 만주어로는 '숭가리 울라'라고 합니다.
만주인들은 이 숭가리 울라를 '하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숭가리'(Sungari)는 만주어로 은하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만주어 '숭가리'를 '송화'(松花)라는 한자로
가차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이 먼저 있고 '글'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요.

두만강(豆滿江) 역시 한자로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지만
만주어로 '투먼 울라'(Tumen Ula)로 불리워지고 그 뜻이 만(萬)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만'을 뜻하는 '투먼'은 동시에 '으뜸',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두만선우'와 같이
군장 선우를 수식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록강(鴨綠江)을 만주어로는 'Yalu Ula' ,즉 '얄루 울라'라고 하는데
그뜻은 '두 평야 사이의 강'이라고 위키백과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Yalu'라는 만주어에 그런 뜻이 있는 지 찾을 수가 없었을
뿐더러 송화강, 두만강등에 붙혀진 이름의 성격으로 비교해 볼 때 압록강을 '두평야 사이의
강'
정도로 평범하게 불렀다는 건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그건 아마도 압록의 중국어 발음에 대입한 해석인 것 같고요..

이때문에 신완순 선생님께서 인용한 거란고기의 '알복록'(閼覆祿)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솔본-

밸틴 (2007-05-23 01:46:13)

광개토 태왕비에 나오는 동부여에서 태왕을 사모해 따라왔다는 다섯 족장인 '압로'들과, 삼국지연의(이문열 평역) 1권인가 2권인가에 나온, 조조(?)가 잡았다는 흉노족의 추장 이름인 '어부라'를 참조해봤을때 '압록'은 부족장이란 뜻과 가까운 말이 아니었을까요?

솔본 (2007-05-24 03:16:54)

밸틴/

저도 부여의 '압로'와 압록강간에 어떤 유츄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잇습니다.
'투먼'과 '두만강'처럼 말이죠.

이 압로와 말씀하신 흉노의 추장 '어부라'를 포함해서 'Avar' (아바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바르'는 에프탈훈의 오리지날 맹주였고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그리고 중근동, 인도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부족임에도 그 기원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동쪽에서 온 '몽골리언'이라는 점 밖에는...

<>
마한,변한,진한의 고대 음가와 그 의미에 대해

위지 동이전에는 韓에는 세종류가 있는데 마한(馬韓), 변한(弁韓),진한(辰韓)
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간 학자들은 이 마한,변한,진한의 뜻을 여러가지로 유추해 보았지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마한이 '말'과 관계 있고 변한의 변(弁)이 고깔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한이
마한왕이 쓴 모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정말 엉터리 해석이 버젓이 사전에 실려있는 정도
입니다.

어떤 설은 馬,辰,弁이 각각 방향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그런 예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 마한,변한,진한은 각각 고유의 종족을 일컫는 음가의 가차라고
전제해 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삼한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위지는 '고조선의 왕 기준이
韓(한)의 땅에 들어가 스스로 한왕(韓王)을 일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말해 기준은 이미 마한, 진한, 변한등으로 일컬어 지고 있던 韓의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한,변한,진한의 음가를 그 어떤 고유어에 대한 가차라 전제하고
재구해 봅시다.

일단 韓의 고대음가는 '한'(han)이 아니라 '가르'(gar)라고 일전에 제가 스타로스틴의
바밸프로젝트를 인용해서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漢'의 고대음가는 's/nar'(스나르))

그렇다면 마한(馬韓)의 고대음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르'(ma-gar)로 재구됩니다.

변한(弁韓)은 '방가르/벵가르' (bang-gar / beng-gar)가 됩니다.
(弁의 고대 음가는 B@ng)

이제 진한(辰韓)인데 辰의 고대 음가는 현재와 같은 '진'이 아니라 '다르'(D(h)ar)'입니다.
따라서 진한(辰韓)은 바로 '다르가르'(dhar-gar) 또는 '다가르'(dha-gar)로 재구됩니다.

정리하면,

마한(馬韓) : Ma-Gar (마가르)
변한(弁韓) : Bang-Gar (방가르)
진한(辰韓) : Da(r)- gar (다가르)

그런데 이 발음은 알타이어의 모음조화와 어말축약에 의해 여러 형태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韓의 발음이 고대에 '가르'/'구르'등으로 발음되었다면 그 뜻은 퉁구스어계에서는
'guru'즉 나라(國)를 의미하는 동시에 원 알타이어로 '게레' (gere)즉 족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삼한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는 겁니다.

강단사학은 이를 대략 1세기초로 보지만 한단고기의 '삼한관경본기'에 의하면 마한세가,변한세가등
BC2300년경에 고조선이 이 삼한조선으로 존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다름아니라 마가르(馬韓)로 부터 말갈,몽골, 더 나아가 마자르와 무굴의
뿌리를 캐어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과 '방가르'(弁韓)로 부터는 벵갈(Bengal)로의 전이, 그리고
'다가르'(辰韓)으로부터는 바로 동호와 다구르(Daghur) 멀리는 토카라(Tohara)로의 승계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벵갈(Bengal)의 어원과 의미는 벵갈어나 산스크리트어 또는
드라비다 그 어떤 어휘로도 그 의미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변한 즉 고대어로 '방가르'에 속했던 가야의 여러 문화나 어휘가 왜 인도 팔리어 즉
벵갈어와 유사성이 많은 지와 마한, 즉 마가르의 백제와 말갈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유럽에 진출한 마자르족의 '베체넥스' / 팟치낙스와의 관계, 그리고 진한 즉 '다가르'에 속한
신라의 동호,선비 및 위구르와의 근친성에 대한 실마리를 잡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보론]

참고로 신채호선생이 지적하셨듯이 진번 (眞番)이 각각 辰조선과 弁조선

을 의미하므로 眞=辰 , 番=弁으로 대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대발음은 眞=辰 = Dar / 番=弁 =Bang이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진번 (眞番)의 고대발음은 '다르방' 정도로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번 (眞番)에 한이 설치했다는 군현이 바로 '대방(帶方)'입니다.
古한자음가는 'Da Bang'입니다.

다시말해 '대방/다방'이라는 이름은 진번 (眞番)의 고대음을 다른 한자로 가차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채호선생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역사언어학적 고증입니다.

솔 (2007-07-01 01:43:53)

자세히는 모르지만, 고대음가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진실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하나의 이설로써는 재미가 있네요.

본문
[상략]
퉁구스어계에서는
'guru'즉 나라(國)를 의미하는 동시에 원 알타이어로 '게레' (gere)즉 족단
[하략]

결론
guru => 國, 우리[솔이 찾은 말]
gere => 族, 끼리[솔이 찾은 말]

이상

솔본 (2007-07-01 14:52:28)

솔/

고대한자음의 재구는 이현령비현령식이 아닙니다.
고대 한자음의 재구에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은 이미 알려져 있지요.

음운의 규칙과 재구방법을 모르고 비슷한 음가를 비교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대막리지 (2007-07-01 18:17:11)

대방의 설명 부분에서 님이 말씀하신 바에 결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명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마한,진한,변한의 고대 음가를 재구성해보신다고 하시더니 한이란 단어에만 중점을 두시고 정작 마,진,변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빠져있군요..
이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희석 (2007-07-01 20:46:55)

솔본님...
韓의 옛 발음이 가르(gar)라고 한 글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좀 찾아주시면 안되나요?

솔 (2007-07-02 09:37:53)

솔본 //

솔본님의 이야기가 이현령비현령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음가를 추출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그 규칙이 솔본님 말대로 알려졌다고 해도, 그 규칙 자체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확한 지식이 몇개나 있겠습니까?

솔 (2007-07-02 14:12:10)

겨레의 말과 글

崔鉉培(최현배)

겨레란, 피로 결어진 무리떼다. 먼 조상의 피를 함께 받아,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같이 겪으면서 살아왔다. 한 조상을 숭배하고, 같은 신앙을 지니고, 사회스런 버릇을 함께 닦으면서 평화스런 나날의 살이에서나, 요란스런 대외적 관계에서나, 항상 한 덩이로서의 협동을 하여서, 생활의 보람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누리었다. 그리하여 생활문화를 같이하고, 역사적 운명조차 같이하는 의식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에 그네들은 서로 얽고 맺어, 한 덩이로서의 의식을 높이어 왔다.

겨레말은 실로 그 겨레를 하나의 덩이로 묶는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매개물(媒介物)이다. 그네들은, 한 지역에서 사냥을 함께 하고, 혹은 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느낌과 뜻함이 흔히 일치함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 말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큼 그 마음씨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근본 꼴을 떠난 것이므로, 다만 그 겉꼴만 가지고서는 그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잘 알 수 없다. 우리가 얼마큼 그 속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제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남의 겉꼴의 비슷함으로써 그 속마음도 저와 비슷할 것을 미뤄잡음이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말씀의 교환으로 말미암아, 피차(彼此)의 아낙스런 생활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발달된 말씨를 가지기 전부터 얼을 가졌을 것임은 이치의 당연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얼의 신령한 높은 노릇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사회에서는 말이란 것이 창조, 발달되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도로 말씨로 말미암아, 더욱 그 높은 정도의 발달을 이루었다. 우리는 항상 주장하였다. ㅡ "사람이 말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마는, 말이 또한 사람을 만들어 낸다."고.

이 표현이 그대로 사람의 얼과 말씨 사이에도 들어맞음은 당연한 사리다. 또, 학자들이 흔히 논증하는 바 생각하기와 말씨와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 근본적으로, 말이 없어도 생각하기는 제 스스로 가능하다. 생각하는 능력이 말씨를 만들어 내었다 함은 주객 관계(主客關係)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렇지마는 말씨가 있음으로 해서, 생각하기는 더욱 그 노릇을 높이 발달시킬 수 있었음도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아낙에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의 우리 인류에게 높이 발단된 말씨가 없었더라면, 철학스런 생각하기는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또한 생각을 낳는다. 생각하기와 말하기는 서로 인과하여 나아간다. 그러므로 말씨의 조직이 세밀(細密)한 논리를 나타내기에 알맞지 못한 때에는, 그 말씨 임자에게는 세밀한 논리스런 생각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겨레에게는 각각 독특한 말씨가 있다. 겨레가 가진 겨레말은 그 겨레가 지어 냈음이 틀림없다. 겨레가 지었다 함은 정확히는 겨레의 얼이 지어냈다 함이다. 동시에, 겨레말이 겨레를 겨레 되게 하고, 겨레의 얼을 지어냄도 또한 사실이다. 말씨 없는 사람살이에서는, 겨레도 그 얼도 뚜렷한 존재를 이룰 수 없다. 겨레얼과 겨레말과는 서로 인과하여 끊임없이 나아감

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의 겨레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겨레가 본디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깃들여 있고, 그 겨레 고유의 생활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풍속, 습관이 나타나 있어, 그 겨레의 얼이 그 속에 엄연히 상징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겨레말에는 피의 흐름이 있고, 흙 냄새가 있고, 믿음의 거룩함조차 스며들어 있다. 겨레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버젓한 겨레가 있고, 그 겨레가 운명을 개척하고 그 역사를 창조하여 온 뚜렷한 얼이 있다. 그러한즉, 겨레말에는 홑으로 그 겨레 문화의 한 현상뿐 아니라, 그 겨레의 가장 구체화된 옹근 모습이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말은 얼의 거울이다. 무형한 얼의 모습은 온전히 그 말에 비치어 있다. 말이 가난하고 여림은 그 얼이 가난하고 여림이요, 말이 푸지고 억셈은 곧 그 얼의 푸지고 억셈의 비침이요, 말이 세밀하고 조리스러움은 곧 그 얼의 치밀함과 조리스러움을 보임이요, 말이 엉성하고 메마름은 그 얼의 무기력함과 비생산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얼은 말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을 튼튼히 함으로써 그 말을 건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얼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면, 그 어머니도 그 아들에 힘입어 생기를 얻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솔 (2007-07-02 14:18:19)

최현배 선생의 글을 쓴금없이 올린 이유는 "겨레"라는 말을 최현배 선생께서 처음 만들었다고 들었기 때문이지요.

겨레 : 결어진 무리

살펴보니 주변 나라에, 겨레 비슷한 말이 좀 있군요.

일본어에서는 가라から [일본어 잘 모른, 퍼옴]

앞에서 언급한 게레가 그 발음이면, 일본어의 가라와 비슷한 발음이네요.

문제는 우리말에서, 겨레외에는 그와 관련된 파생어나, 비슷한 말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어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현배선생께서, 만들어낸 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국어를 잘 모르고, 다른 외국어와 우리말을 아무리 비교해봐야 사상 누각이 될 것이라는 기본 생각을 전달합니다.

가라,게레의 경우 족 보다는 족族의 의미로 주변에서 쓰이겠으나, 우리말에서는 비슷한 움이 가家로 남은 듯이 보입니다.

일단 가를 기본음으로 해서 말이지요.

솔 (2007-07-02 14:25:14)

일본어에서
하라가라 : 동포 ===> 혹시 한겨레가 여기서 따온 말?
야가라 : 혈족
가라 가지고 말을 좀 만들어 내는군요.

삼한 (2007-07-07 00:35:42)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몽골이 馬可고 이것이 말갈로 발음 되는것 같고 可와 韓은 다른것 같은데 (레벨이 틀리다고나할까 고대세계에서 ㅋㅋ)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리고 진번이 대방이면 진한과번한이 대방군이었다가 돼는것같은데 책임질수 있나요... ^^;;

<>
솔본)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상한 이집트 왕족들...

수많은 이집트의 조각상들과 두상들 가운데
서구학자들의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관심을 갖기 싫은 것이겠죠.
혼란 스럽기만 하니까..

이 이집트 왕조인들은 BC2,000~BC1,800년경의 인물들입니다.
종족원으로 따지자면 그 어디에도 정확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혼혈계인데...

그런데 이집트의 평민들은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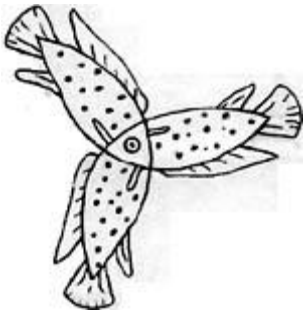
이들에는 현재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아프리칸계와
아랍계 혼혈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아주 다른 왕조인들이 있습니다.
'티우'(Tiu)라는 먼 옛날 미스테리한 선조에 대한 전설을 갖고 있는
이집트 정복자들이죠. Tiu(티우)는 이집트 창건의 전설적 인물입니다.

이 왕조인들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종교개혁하려다 축출된 아케나톤의 친척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실정이죠..

티우를 조상신으로 여기고 태양신을 유일하게 섬기던 이 왕조는 다음과 같은
제기용 그릇을 남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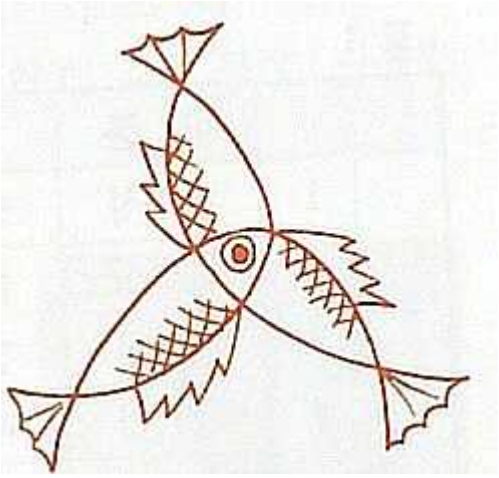
이집트의 제기용 그릇



Triqueta of fish from an Egyptian bowl

이 문양은 Triqueta (트리케타)라고 불리는 물고기 상징으로 후대에 유렵켈트의 성스러운 상징이고 나중에 크리스트교의 징표가 됩니다.

이 트리케타는 우리에게는 이를 일목삼신어라 부르는 전통부적이죠



[일목삼신어 부적]

이집트를 창건한 티우의 후예.. 태양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 전통부적을 똑같이 갖고 있던 사람들..

이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감이 잡히십니까?

-솔본-

진실 (2006-11-17 22:44:17)

흥미진진합니다..뭔가 튀어 나올것 같은데 ^^ 역시솔본님

아리랑 (2006-11-18 02:09:57)

치우 즉 자오지천황과 치애트환웅대에 서장지역으로 불의 문화가 뿌리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흔적은 불의 교단이라 할 수 있는 중동지역의 고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일 것이며, 후에 명왕조를 일으키는 배화교가 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곰주먹 (2006-11-18 05:09:25)

저도 초고대 주인공이 황인종계열인거 같아요.. 예전에 저도 좀 분석해서 올린적 있는데;;

단지 아리아인의 기원에 대한 헤깔림이 많을 뿐이죠-_-::

1. 스핑크스는 동양인 얼굴

>2.나즈카의 동양인 소년 미이라(클릭)

구신 (2006-11-18 12:28:15)

51번째 추천 누르고 갑니다.

아리 (2006-11-18 13:41:29)

솔본님의 글이 올라와 있으면 클릭하는 그 순간 손에는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살아있는 이 지구 문명사의 최고 미스테리인 우리 동이 문명의 열쇠를 하나씩 풀어 가시는 솔본님에게 오늘 또다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라무 (2006-11-18 18:05:39)

전에 제가 몇번 언급 했었은데요, 이집트 왕조의 역사에는 일반에게 알려진 연대기 말고 신왕기가 따로이 있답니다. 1500년의 신왕기가 일반 왕조사와 겹쳐서 따로이 있답니다. 누가 이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고대문명과 UFO 관련한 내용의 책인데 책명은 기억나지 않고, 내용은 이집트 문명을 비롯한 고대문명들의 주체자들이 화성문명을 건설한 이들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1500년의 신왕기를 들먹이면서 그 神王들이 수메르의 신왕들과도 연관이 있으며 그들은 화성인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저자는 이끌어 냅니다.

그 저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이집트와 수메르의 신왕들이 東夷라 생각합니다. 또, 1500년의 신왕기도 배달국의 연대기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무 (2006-11-19 01:46:24)

저 일목삼신어라는 것을 어디서 구경할 수 있습니까? 구경할 수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검색으로 찾아 봤더니 안 나오더라구요, 인터넷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구신 (2006-11-19 01:52:23)

화성에서 지구로 온 자들이였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이 설명이 되는건가요ㅡㅡ;

라비타 커피 (2006-11-19 22:53:38)

결국 중국의 피라미드,고구려의 피라미드 무덤양식,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피라미드가 서로간의 연관을 있군요..고대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먼거리에서 같은 형태와 양식이 궁금하기만 한 것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모르나 (2006-11-21 14:02:54)

치우 할배가 이집트에....솔본님 안목은 역시
라무님 - 책이름좀 알수 있습니까?

라무 (2006-11-22 10:35:54)

<초고대문명 상,하> 맹성렬, 넥서스(출), 1997년 출판입니다. (좀 찾아 봤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원문이 실려 있다고 나옵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 5층이나 공공도서관 내의 지정된 컴푸터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답니다. 저는 한번도 이용해 보지 않아서 장담 못합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데에 가시면 책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전자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0년의 신왕기'에 대한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상권인지 하권인지,,,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권 같기도 하고, 아주 짧게 다루고 있어서 책을 다 읽으시면서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나 (2006-11-29 15:25:36)

라무님,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조국선 (2006-11-30 20:03:23)

티우는 곧 치우가 아닐까요?

최종현 (2006-12-31 16:36:05)

Tiu (pharaoh) : Tiu was the first (predynastic) Pharaoh of Lower Egypt in the late 4th

millennium BC. Not much of his life is known except that he was a ruler of lower Egypt.

위키피디아에 조차도 자료가 없군요. 놀라운 것은 그 기원이 BC 4000년경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석 : Tiu는 BC 4000년 후반 전기 이집트의 (왕조가 있기 전의) 첫번째 파라오다. 확실한 것은 전기 이집트의 통치자였다는 것이죠.

김도원 (2007-01-30 18:03:12)

제가 유럽에 살면서 이집트인들을 좀 봤습니다.

기원은 잘모르겠지만 유럽사람과 몽골리안의 중간되는 얼굴형으로 동그랗고, 까만사람들이 많네요.

아랍사람들보다 더 동그랐던것 같습니다.

위의 그림들에서 보면 우리처럼 광대뼈가 심하게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집트인들과 비슷한것 같습니다.

흑인들의 둥그런 얼굴과도 관계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참 스페인, 아랍계통의 이름 중 KIM 이 꽤 있습니다. 참 신기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KIM은 성이 아니고 이름이라네요. 하기야 그놈들은 이름과 성을 대를 물려 번갈아 쓰니까요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 (2007-02-02 14:53:30)

일목삼신어의 물고기 종류는 어떤것일까요??? 밝히면 분명히 뜻있는 물고기가 아닐까요??? 제가 언뜻 생각해본것은 바이칼호에서만 서식한다는 물고기 어종중에 오물이란 물고기가 아닐까 해서 올려 봅니다.

오물이란 물고기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 자세하진 않지만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생각 합니다.

강춘생 (2007-02-10 02:07:24)

일목삼신어와 삼족오는 무슨관계죠?

자세 (2007-03-22 15:03:06)

굉장하네요. 전율에 감사.

이천권 (2007-06-10 20:14:53)

3은 음양오행을 알아야 되는데여 간단히 음양(1과2)이 변화 하면서 새로운것을(3) 만들어 내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방위로 동쪽 색상으로는 청색 계절로는 봄 입니다 삼태극.삼족오. 삼신어.삼신상제.

다 같은 의미 같네요 새로 막 태어난다 다른 의미로 인류의기원으로 따지면 인류의 시초랄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천손의 자손이다 그런 의 같네요

송 영민 (2007-06-23 02:32:31)

황금족이 아닐까요,우리선조와지중해토착민의 혼혈말입니다.

송 영민 (2007-06-23 02:39:24)

고기의 문양은 우리사서의 집일합삼 회삼귀일을 구체화한것같군요, 3이란 여러가지 뜻이있을것 같군요 마한 진한 변한,삼태극,천 지 인 등등 말입니다.

문종서 (2007-06-30 12:23:57)

3이란 숫자는 천지의 기본이 되는 수로써 완전한 수입니다.

道不遠人 (2007-06-30 20:57:40)

<제15왕조> - 이민족 왕조, 수도 : 아바리스(Avaris)

1. 살리티스(Salitis)

2. 캰(Khyan) 1600

3. 아페피 1세(Apepi I) 1555

4. 카무디(Khamudi)

<제16왕조> - 이민족 왕조, 수도 : 아바리스

1. 아나테르(Anat-her)

2. 우세르아나트(User-anat)

3. 셈켄(Semqen)

4. 자케트(Zaket)

5. 와사(Wasa)

6. 카르(Qar)

7. 페피 3세(Pepi III)

8. 베반크(Bebankh)

9. 네브마아트라(Nebmaatra)

10. 니카라 2세(Nikara II)

11. 아호테프라(Aahotepra)

12. 누반크라(Nubankhra)

13. 누부세라(Nubuserra)

14. 카우세라(Khauserra)

15. 카무라(Khamura)

?. 아포피스(마지막 왕)

<제17왕조> - 수도 : 테베

5. 세케넨라 2세(Seqenenra II)

6. 카메스[카모세(Kamose)]

<제21왕조> 1069 ~ 945 - 수도 : 타니스(Tanis), 리비아나 팔레스티나 출신 왕조라는 설이 있음

1. 스멘데스(Smendes) 1069 ~ 1043

2. 아메넴니수(Amenemnisu) 1043 ~ 1039

3. 프수센네스 1세(Psusennes I) 1039 ~ 991

4. 아메네모페트(Amenemopet) 993 ~ 984

5. 오소코르(Osochor) 984 ~ 978

6. 시아멘(Siamen) 978 ~ 959

7. 프수센네스 2세(Psusennes II) 959 ~ 945 - 딸을 솔로몬 왕과 결혼시킴

<제22왕조> 945 ~ 720 - 수도 : 부바스티스, 리비아 출신 왕조

1. 세숀크 1세(Sheshonq I) 945 ~ 922 - 구약성서의 '시삭(Shishaq)'

2. 오소르콘 1세(Osorkon I) 922 ~ 887

3. 세숀크 2세(Sheshonq II) 887 ~ 885

4. 타켈로트 1세(Takelot I) 885 ~ 872

5. 오소르콘 2세(Osorkon II) 872 ~ 837

6. 세숀크 3세(Sheshonq III) 837 ~ 798

7. 세숀크 4세(Sheshonq IV) 798 ~ 785

8. 파미(Pami) 785 ~ 778

9. 세숀크 5세(Sheshonq V) 778 ~ 740

10. 오소르콘 4세(Osorkon IV) 740 ~ 720

<>
좌계님의 화백론에 대한 발견

좌계님의 경제인류학적관점에서 재구되는 고대사에 관심은 많으나
저의 실력으로는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멘트를 할 도리가 없군요..

신라의 '화백'이 고대 교환경제의 의사결정구조라는 점에 대해
처음엔 의아했는데 우연히 만주원류고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通考新羅語言待百濟而後通事與衆議號和白
통고신라어언대백제이후통사여중의호화백

'검토하건데 신라어는 백제의 통역이 있은 후 (중국)과 통하였다고 하며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집단회의를 일컫는 말을 뜻하는 '화백'이다.

이 문장은 만주원류고의 저자가 신라어와 만주어의 유사함을 고증하다가 양서의 구절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주원류고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답니다.

按滿洲語赭伯商議也與此音義俱相合
안만주어자백상의야여차음의구상합

'생각건데 만주어 '자백(赭伯)'은 통상회의(商議)를 뜻한다. (화백)의 그 발음과 뜻이 일치한다.'

윗 글은 만주원류고 저자가 신라어 '화백'과 만주어 '자백'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라 '화백'의 그 뜻이 통상을 위한 집단회의를 말하는 만주어 '자백'과
어음과 어의가 서로 같다고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어 '和白'은 만주인들에게는 교역회의를 뜻하는 '赭伯'과 유사하게 들리고 그것은 아마도
'sa-ba' / 'se-be'에 가까왔던 듯 합니다.

좌계님의 화백= 고대 경제통상회의기구 론에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김성겸 (2007-07-02 22:11:21)

귀중한 조각을 찾아내셨읍니다. 고마울 뿐입니다.

솔본 (2007-07-02 22:25:38)

운이 좋았을 뿐이죠..^^;

문종서 (2007-07-03 00:52:35)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통상회의기구 중에서도 어째서 경제인가요?

좌계 (2007-07-03 08:56:14)

/솔본 님.

이럴 수가 .... 늘 '복잡하고 딱딱한 경제인류학적인 입장'에서 고대의 이상한 화폐를 이야기하면서, 화백을 설명하였기에..."그런 경제적인 거래와 화백을 연결시키는 사료(史料)가 있기나 한가요?!"라는 질문을 받는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원스럽게 연결해주는 사료(史料)가 있다니....

십년 체증이 풀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진정... 고마 와 같습니다.

<>
[자료] 마자르족의 극동아시아 기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올립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Asian Studies

에 소개된 '마자르족의 극동아시아인의 기원'이라는 국제 학술 논문입니다.
제목은

The Far-East Ancestors of the Magyars :
A Historical and Linguistic Excavation

이고요..

내용의 핵심은 현재 헝가리와 동유럽의 마자르인의 조상은 바로
말갈인과 부여 그리고 고구려계라는 겁니다.

이들의 성씨가 헝가리와 동유럽 귀족들의 성씨로 대체되었다고 하는군요..

제 생각에는 그 시기가 한참 전이라고 보여지는데...

마한(馬韓)즉 고대 '마가르'로 불리우던 집단의 초기 정복이주와 관련하여
제가 나중에 한번 논증해 보겠습니다.

유상욱 (2007-07-02 23:01:22)

그럼 마한이 말갈이 되는건가여?

솔본 (2007-07-02 23:58:55)

마한이 곧 말갈이라기 보다는 말갈이 마한이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나누어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문종서 (2007-07-03 00:53:17)

인종의 문제는 .... 환경에 따라서 모습이 변화한건가요

솔본 (2007-07-03 02:32:30)

인종이란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몽골리언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치면서 많은 혼혈이
생겼을 겁니다.

이른바 투라니안이라는 것이죠.

마자르는 분명하게도 인도-유러피언이 아닙니다.

우자 (2007-07-03 18:04:56)

마자르 족이 몽골리안 계통의 피가 섞여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부여, 고구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니 흥미롭네요.

<>
동이족과 활에 대한 소고(小考)

우리 동이족은 활과 관련해서 잘 알려져 있지요.

숙신은 '단궁'(檀弓)을 중국에게 전해주었구요..
읍루는 화살에 독이 있어서 맞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지나인들이 기록하고
있지요.

여진(女眞)족을 흔히 '주얼친'이라고 하죠.

왜그러냐하면 '주얼친'이 여진의 몽골발음인데 몽골이 유라시아를 제패하면서
여진을 '주얼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얼'이란 말이 '활'을 뜻해서 만주-퉁구스어로 활잘쏘는 이를 일컬어
'주얼 무린'이라고 합니다. 소위 '주몽'에 대한 만주-퉁구스 음가인데요...

만주어로 활을 뜻하는 단어에 'jur@'가 있습니다.
'무린'의 만주어는 원래 '메르겐'(mergen)이고요.. 그 뜻은 '기술이 뛰어난'입니다.

그래서 '줠 메르(ㄱ)인' 이 발음이 되기를 '주얼무린'>'줠먼'/'줘멀'이렇게 들리는 것인데 그
뜻은
'활쏘는데 뛰어난'인 것입니다.

'여진'(女眞)은 지나어로 '누전'인데 이때 女의 고대음가는 'nr@'이었지요.
바로 '마누라'/ 며느리의 nr@입니다.

그런데 이 nr@와 관련해서 만주-퉁구스어로 '화살'을 뜻하는 단어가 있었으니
바로 누라(nur@)입니다.

==========
Proto-Tungus-Manchu: *n/uru (~-i)

Altaic etymology:

Meaning: arrow

Russian meaning: стрела

Evenki: n/ur

Even: n/u.r

Negidal: n/oj

Spoken Manchu: n/ur@, jur@ (820)

Literary Manchu: niru

Jurchen: niru (237)

Solon: niru, nu.r(u.)

Comments: TMC 1, 648. Manchu jo:ro 'arrow with bone tip' may be a variant of the same root (hardly a loan from Mong. z^|orug|a, because z^|- > j- is not possible).

결국 만주어로 활과 관련된 단어에 '누라'(nur@)와 주라(jura)'가 있고 이것이 한자의 고대음으로
누라진, 몽골/만주어로 '주얼친'의 어간인 것이죠.
모두 '활' 또는 '화살'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따라서 여진(女眞)족의 女는 여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숙신이 중국에 전수해 준 '단궁'은 박달나무로 만든 활일까요??
천만에요..

박달나무는 탄성이 없어서 활을 못만듭니다.
그러면 왜 지나인들은 숙신이 전해준 활을 '단궁'이라 했을까요?

그것은 만주-퉁구스어로 활을 '뎅구'/뎅굴'이라고 한 것을 지나인들이 '檀弓'이라고
가차한 것입니다.

스타로스틴 교수의 설명을 보시죠.

==========

Proto-Tungus-Manchu: *de:n|gu

Altaic etymology:

Meaning: 1 cross-bow 2 arrow

Russian meaning: 1 самострел 2 стрела

Ulcha: de:n|gure 1

Orok: de:n|gure 1

Nanai: de:n|gure 1

Oroch: den|gu 2

Comments: TMC 1, 234.

==========

다시말해 숙신이 지나에게 전해준 '뎅구'/단궁은 그냥 활이 아니라 석궁, 즉 cross bow였던 것이죠.

이 크로스 바우, 즉 석궁의 유래에 대해서 학자들은 동아시아로 봅니다.

The weapon probably originated in China or the ancient barbaric tribes in Asia.[2] The earliest documention of a Chinese crossbow is in scripts from the 4th – 3rd century BC attributed to the followers of Mozi.

- wikipedia-

==========

그런데 이 석궁이 왜 石弓일까요?

화살대신 돌을 날리는 도구라서?

천만에요..

만주-퉁구스어로 '활'의 또 다른 단어가 'C^uk'(슉)입니다.

다시말해 지나인들이 활에 대해서는 한 수접고 들어갔던 종족이 바로 '숙신'이었고요.

숙신의 활이란 뜻이 바로 '석궁'(石弓/ sh@k k^ng)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있는 것이죠.

결국 '숙신=주선=누라진(여진)=주얼친 모두 활과 관련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말 '활'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번 설명을 기대해 주세요

-솔본-

저격수 (2007-07-12 00:41:30)

우와~~! 이 감탄사 밖에 안나와요. 밤늦게 들어와 또 보석을 건졌습니다.

요즘 구이넷에는 정말 인재들이 넘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인문적 논리의 좌계님, 김성겸님 등 그저 대단하고 고맙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네요.

솔본님의 소중한 글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마치 잃어버린 내 유전자의 까마득한 원류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는 짜릿함과 경이로움입니다. 부디, 내 유전자의 원류 전부를 가르쳐 주세요.^^

<>
동이족과 활에 대한 소고(小考)-2 夷자의 수수께끼

일전에 숙신-여진-주리친-주선등이 모두 활(bow)과 관련된 명칭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이의 夷라는 글자에 대해 잠시나마 살펴보려 합니다.

1. 동이의 이(夷)에 대한 의문들

설문해자에서 夷자는 '大와 弓을 따른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夷는 동방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문의 해설이래 많은 사람들이 '夷'가 큰 활을 둘러맨 동방부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후대에 들어서면서 이 '夷'라는 글자가 처음부터 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夷자의 갑골문과 금문의 형태가 오늘날과 상당히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은대 갑골문의 '夷'자의 여러 형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은대 갑골문 夷]

오른 쪽 맨 마지막 것을 제외하면 이 상형문의 의미는 어떤 대인(大人)에게 다른 사람이 허리를
굽혀 복종함을 뜻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형문의 큰 사람이 바로 갑골문에서 大자를 뜻한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바로 군주나 임금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로부터 夷는 '크다'(大) / 다스린다 (平)의 뜻이 유래되었을 겁니다.

[갑골문의 大자]

그런데 다시 夷자의 갑골문을 보면 맨 오른 쪽 마지막의 자형은 이 대인이 여러 곳에서 창에 찔리거나 화살을 맞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두고 夷자의 뜻에 다치다는 뜻의 '상(傷)'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후대에 등장하는 夷자의 금문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Bronze Characters

b15000 b15001 b15002

[夷의 금문형태]

분류기호 b15000(좌측 끝)의 모습은 바로 갑골문 시(尸)자와 같습니다.
다시말해 '죽은 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夷자는 尸자와 같은 의미로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나머지 금문형태는 모두 화살에 끈 같은 것이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夷자의 전서형태는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Seal Characters

s07484

[夷자의 전서(篆書)]

이러한 흐름을 보면 夷자는 은대이전에는 대인에게 복종한다, 공경한다, 다스려진다
라는 의미로 통하다가 어느 순간엔가 '죽이다', '다치다'라는 뜻이 포함되었다가
그 후에는 '주검'과 '끈을 동여맨 화살'을 뜻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군요.

그러한 夷자가 秦시대에는 마치 사람이 활(弓)을 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人이 아니고 원래는 화살을 뜻하는 矢였음을 알 수 있고 弓자로 보여지는
것은 원래 끈 모양이 달리 해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夷자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누가 대인(大人)을 죽였나?

夷자는 실로 다양한 용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용례를 살펴보면,

[뻔뻔하다,거만하다]
傲慢 [arrogant]
由礼则雅,不由禮则夷固僻违,庸众而野。——《荀子》

[기쁘다]
通"怡"。喜悦 [happy;joyful]

云胡不夷?——《诗歌郑风风雨》
我心则夷。——《诗.召南.草蟲》
羌馀术兮可夷。——《楚辞.九怀》

[대량살육하다]
夷戮 yílù
[massacre] 杀戮;誅戮
自相夷戮。——南朝梁. 丘迟《与陈伯之书》

夷자의 상형문은 고대에 '정복과 복종, 위대한 군주'를 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살, 주검, 교만함'을 뜻하고 또 여기에 '환희, 즐거움, 편안함'
의 뜻도 가미됩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화살'(矢)그것도 끈이 얽힌 화살로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갑골문에서 보여지는 대인과 절하는 소인의 정체가 각각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나의 사서는 이르기를 '동방은 군자의 나라'라고 했고 '황제는 대대로 동이(東夷)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夷자의 갑골문에 등장하는 대인(大人)은 동이 임금이고 예를 취하는
이는 화하족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夷는 동이계 대인(大)이 화하계를 '다스리고 정복'(平)했으며 그 후에 화하족의
반란으로 동이계의 쇠약(傷)과 몰락을 통해 화하족이 안정과 기쁨을 찾았다는 스토리가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살에 끈을 묶은 ' '夷'자의 고형은 지나가 동이의 무력을 방어하였다는 표시가 아니겠느
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뜻은 동이의 무력 (활)을 조심하자라는 의미도 들어 있을 것입니
다.

다음번에는 우리말 '활'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합니다.

-솔본-

孤雲™ (2007-07-14 14:37:39)

참고.

낙빈기의 금문신고에 보면 화살 모양의 그림을 "족속(族屬)"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자로 풀어보는 한국 고대신화(김용길)"에 나온 것처럼 화살은 '살붙이'의 의미가 있
으며 '겨레' 등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族字는 '살붙이', '겨레'의 의미였던 矢가 '화살'과 '살붙이'의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전
된 형태가 아닌가 합니다.

솔본 (2007-07-14 23:31:27)

겨레 '족'(族)자는 10개의 화살 묶음을 세는 말 'z^ock'이 었다고 합니다.

이 '족'이 겨레를 뜻하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오구즈(oguz)족이
10개의(On) 화살(guz)이라는 뜻으로 미루어 고대의 중앙아시아에서 제작기 다른 모양의
활과 화살로 집단종족의 표시를 삼았던 것이고 지나가 이를 '族'이라는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리 (2007-07-15 04:39:55)

솔본님 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글중에 위 옛글자들의 여러형태의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솔본 (2007-07-15 22:47:36)

target=_blank>http://www.internationalscientific.org/CharacterASP/CharacterEtymology.aspx?characterInput=%E9%A9%AC&submitButton1=Etymology

로 가시면 됩니다.

수리 (2007-07-17 03:50:19)

솔본님 감사합니다....

<>
만주어 노래 가사

Šongkoro
숑코로
송골매

šanggiyan alin de,
샹기얀 알린 더
새햐얀 오름 에 (백두산에)

gukiong nimanggi be fehume tuwaci,
구컹 니만기 버 퍼후머 투와시
깨끗한 눈 을 바라 보니,

leli abka na de,
럴리 압카 나 더
너른 하늘 땅 에

mini deyere enduri šongkoro bi.
미니 떠여러 언두리 숑코로 비
나의 떠오르는 신 송골매 있네

weji i hafu yome,
워지 이 하푸 요머
수풀 의 길을 지나가니

abkai mangga beri darambi.
압캐 망가 버리 다람비
하늘이 강한 활 주네.

mangga beri darara age, ==> age (아거) : 황자,임금, 지도자 : 우거, 우야고
망가 버리 다라라 아거
강한 활 지닌 황자여,

coktolome yabuki.
속톨로머 야부키
교만하게도 분주하구나.

šanggiyan alin serengge,
샹기얀 알린 서렁거
새하얀 오름 저것은 (백두산 저것은)

musei manju i fulehe da.
무서이 만주 이 풀러허 다
우리 만주 의 뿌리 다

sahaliyan ula serengge,
사할리얀 울라 서렁거
새카만 강 저것은 (흑룡강 저 것은)

muse i manju i fulehe da.
무서 이 만주 이 풀러허 다
우리 의 만주 의 뿌리 다.

šongkoro deyeme,
숑코로 떠여머
송골매 날으며

bolgo na be coktolome tuwambi. ==> bolgo na (볼고 나) ==> 불구+내 ==> 밝은 땅, 성스러운 땅
볼고 나 버 속톨로머 투왐비
빛나는 땅 을 교만하게 바라보네.

colkon be dasihime,
솔콘 버 다시머
큰파도 를 덮어버리고,

coktolome iserakū.
속톨로머 이서라쿠
교만하며 두려움 없네.

age sujumpi,
아거 수줌피
황자 달리며,

boconggo gerhen be sihambi.
보쑹고 거런 버 쉬암비 ==> gerhen (거런) / 빛 (거란의 어원)
다채로운 빛 을 내리쪼이네.

batu katun kiriba mujingga, ==> batur/batar (바투르/바타르 : 영웅 , 배달)
바투 카툰 키리바 무징가
용감하고 거뜬하며 참아내며 정직한,

akdacun banjiha.
신앙을 만들어내네.

šun mukdeke dergi ergi de,
슌 묵더커 더르기 어르기 더
해 떠오르는 동 쪽 에

alin hada ula bira,
알린 하다 울라 비라
산, 봉우리 강, 물

fafuri niyalma be ujime hūwašabumbi.
파푸리 니얄마 버 우지머 화사붐피
부지런한 사람들 을 길러내네.

tese i hethe,
떠서 이 허더
그들 의 가업이,

šun i gese eldengge. ==> šun (슌 :태양)
슌 이 거서 얼던거
해 와 같이 빛나네.

bi coktolome,
나 교만한 땅,

imbe manju seme hūlambi.
그것을 일컬어 만주라고 부르네.

<>
단군왕검은 단일인물이 맞다.

일전에 어느 분께서 단군이나 왕검의 이름이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논의 전개로

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開國號朝鮮의 문장을

2천년전에 단국의 군왕 '검'이 도읍을 아사달로 정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했다라고 해석할 것을 주장했지요.

하지만 저 솔본이 보기에 이 해석은 근거가 없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석대로라면 조선을 개국한 임금은 '검'이 되는데
후대에 우리는 '검'에 대한 아무런 전승이나 기록이 없고요.

더구나 윗 문장은 일연 스님이 위서를 인용해 삼국유사에 기록한 것인데
그 제목에는 고조선왕검조선 (古朝鮮王儉朝鮮)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연스님이 이후의 위만이 찬탈한 조선에 대해 '왕검'이 세운 고조선을
구별하기 위햇던 것입니다.

다시말해 일연 스님은 고조선의 군왕으로서 '단군'이라는 명칭에 대해 그 실존적
인물로 '왕검'이 있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왕검'이라는 단어는 지나 사서에 이름의 용례로도 등장하는 어휘입니다.

아울러 권근의 응제시주에도 명황제 주원장에게 바친 어제시에 '단군 가신지 궐천년'
이라는 문장을 보고 주원장 스스로 '그러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단군'의 존재에 대해 명황제 주원장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군과 왕검은 모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단어들입니다.

이는 알타이 제어에서 지도자, 군왕을 뜻했던 '타르훈' 또는 천군의 의미인 '텡리칸'
과 으뜸을 뜻하는 '웅칸'과 '왕검'의 관계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본-

<>
[re] 왕검은 분명히 우리 역사의 실체입니다.

≪삼국사기≫ 권17 동천왕 21년조에는 “평양성은 본래 선인 왕검의 택이다. 또는 왕의 도읍을 왕험이라 한다(平壤城 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險).”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삼국유사에는 웅녀가 신단수에 기도하여 아들을 낳으니 바로 단군왕검(孕生子. 號曰壇君王儉)
이라는 기록도 등장합니다.

왕검이 있던 도읍을 고조선에서 왕험이라 불렀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것은 평양, 아사달과 함께 또 다른 이칭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단군왕검이 '박달나무 임금'의 한자적 표기라는 규원사화의 해석은 일종의
민속학적 해석일 뿐 그 근거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박달나무는 우리 민속에서 신목으로 여기는 성스러운 나무도 아니고
제사에 등장하는 나무도 아닙니다.

더구나 '단군', '왕검'이 순수 우리말을 한자어로 뜻을 적어 놓은 것이라면
아사달은 한자로 무슨 뜻이며 치우는 또 무엇이고 솔나, 마물, 벌음등은 도대체
한자로 무슨 뜻이라는 것인가요?

단군, 왕검은 분명히 우리 역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단어들이며 한자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입을 통해 그렇게 불려졌던 단어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이름에 담긴 유라시아적 의미가 무엇인지
입니다.

단군의 원 이름이 그 당시 동북아 제족의 기본 어족이었을 알타이어나 퉁구스어 기반의
조어적 뿌리를 갖지 못한 채 그냥 현재 우리 한반도인만 알아듣는 '박달임금'이었을 까요?

그렇다면 단군의 이름이 '박달임금'이어서 적어도 4천년전 만주 벌판에서 '박달임금'!
이렇게 외쳐서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건가요? 박달나무에 내려온 왕이라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분명히 동북아에서는 '박달임금이나 백달임금이 아닌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가 통했다고 봅니다.

이희석 (2007-09-24 23:47:47)

님의 주장은 ...

고조선 왕검성 -> 위만조선의 왕검성 -> 한나라 사군 -> 고구려 평양성

이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희석 (2007-09-25 00:06:32)

사기 조선열전....
朝鮮王滿....收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

통지 권194
高麗本朝鮮地漢武置縣屬樂浪郡時甚微弱東漢以後累代皆受中國封爵所都平壤城則故朝鮮國王險城也...

조선사략
燕人衛滿因盧綰亂亡命來渡浿水誘逐箕準據王儉城仍號朝鮮至孫右渠不奉漢詔武帝遣公孫遂滅之
漢武帝討右渠分其地為樂浪臨屯玄菟真蕃

대청일통지 권 421
平壤城即朝鮮國王險城也

사기 권6 중에 주석
括地志云高麗治平壤城本漢樂浪郡王險城即古朝鮮也

조선지 권 상
平壤府: 本三朝鮮高勾麗之故都唐堯戊辰歲有神人降太伯山檀木下國人立為君都平壤號檀君是為前朝鮮周武王克商封箕子於此是為後朝鮮傳至四十一代孫準燕人衛滿奪其地都王險城即平壤是為衛滿朝鮮其孫右渠時漢武帝遣将討之以王險為樂浪郡

<>
엄리대수 , 비류수 그리고 패수

광개토왕비에는 주몽이 동부여를 떠나 엄리대수에 이르러
자라와 물고기의 도움으로 이 강을 건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몽이 비류수 졸본에 도읍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리대수와 비류수의 위치를 두고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 이 엄리대수가 송화강이라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우선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의 시호테 알린 지역에 Buya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부여의 위치는 이 하바로프스크 동북지역이라고
비정하고 싶은데 이 곳을 가르는 강이 바로 '아무르'입니다.

아무르강 서쪽으로 'Urmi'(우르미)라는 강이 흐르고 보다 서남쪽에
Bureya(부레야)강이 있고 그 지류로 Bira(비라)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아무르 남동쪽에 'khor'(코르)라는 지명도 있지요.

'부야' '아무르' '우르미' '부리야' '비라' '코르' 이러한 명칭들은 모두 러시아 말이 아니고
과거 여진과 숙신의 후예인 난나이나 오로치인들의 만주 퉁구스어들입니다.

만일 이 어휘들의 전통이 고대 만주-퉁구스계로 부터 내려온 것이 맞다면 고구려어에 가장
가까운 어휘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엄리수는 우수리강 북쪽으로 흐르는 Urmi (우르미)강 또는 아무르강의
가차이며 비류수는 그 서남쪽의 Bureya강 그리고 패수는 바로 이 Bira강의
가차가 아닐까 생각되는 군요.

모두 고대의 요하나 난하가 아니라 현재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 지역입니다.
다만 Bira강 즉 패수는 하얼빈 북쪽입니다.

-솔본-

한국인 (2007-09-24 11:50:05)

관련지도가 있는 사이트 입니다.

http://www.britannica.com/eb/art-548/The-Amur-River-basin-and-its-drainage-network?articleTypeId=1

한국인 (2007-09-24 12:2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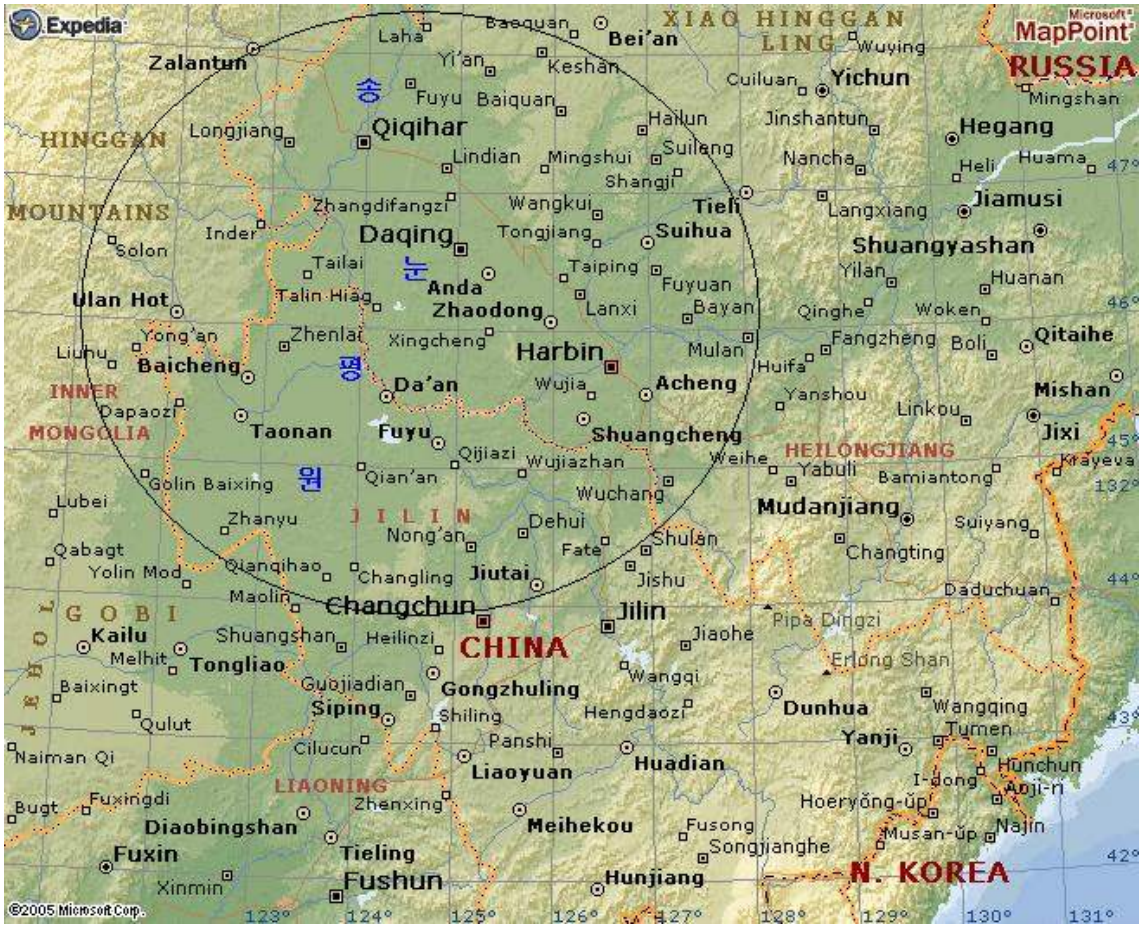
러시아 카바로프스크 지역의 사진들을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target=_blank>http://www.adm.khv.ru/invest2.nsf/pages/en/photopage1.htm

네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그 중 두번재 페이지를 보면 곰호수 (Pearl of Dusse-Alin. Bear lake)도 있구요.

사람 키만한 물고기 사진도 나옵니다. 순록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구요. 생김새가 우리랑 똑같군요.^^

엄리대수가 부여의 국계역할을 했다면 엄리대수는 송화강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 백두산 폭발이전에 심강평야(대황)이 고려-조선조와 같은 늪지대였는지 확인이 어렵지만 부여가 유목기반으로 건국된 나라임을 고려할때 흑룡강성 치치하얼의 대초지인 송눈평원없이 강국 부여의 형성이 어렵습니다.
현 흑룡강성과 러시아일대 지도로 현지의 지리조건을 참고해 볼때 최소한 부여의 남계는 요하평원은 몰라도 송눈평원은 차지하고 있어야 농경지역이 별로 없는 초원의 유목국가라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발해말 고려초의 현백두산 폭발이전의 심강평야가 현재와 같은 목축지나 농경이 다 불가능한 불모지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동부여나 흑수말갈의 영역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동부여의 위치는 러시아 유태인 자치주와 하바로프스크일대와 심강평원을 아우르는 솔본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현재의 러시아와 지나에 의해 나뉘어진 흥개호일대의 흥개호평원의 두곳중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여와 말갈(고구려 여러 부중의 하나라 생각됨)의 관계등을 추적하면 어느곳이 동부여의 위치인치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흥개호일대는 옥저의 강역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참조하시도록 이일대 지도 참조로 붙여드립니다.


Expedia
MapPoint
XIAO HINGGAN LING
RUSSIA
HINGGAN MOUNTAINS
INNER MONGOLIA
HEILONGJIANG
JILIN
LIAONING
CHINA
N. KOREA
Zalantun
Laha
Baoquan
Bei'an
Yi'an
Keshan
Wuying
Cuiluan
Yichun
Mingshan
Fuyu
Baiquan
Qiqihar
Hailun
Jinshantun
Hegang
Longjiang
Lindian
Mingshui
Suilang
Nancha
Heli
Huama
Shangji
Zhangdifangzi
Wangkui
Tieli
Langxiang
Jiamusi
Inder
Daqing
Tongjiang
Suihua
Solon
Shuangyashan
Tailai
Taiping
Yilan
Huanan
Anda
Fuyuan
Ulan Hot
Talin Hiag
Zhaodong
Lanxi
Bayan
Qinghe
Woken
Yong'an
Zhenlai
Xingcheng
Harbin
Mulan
Fangzheng
Boli
Qitaihe
Liuhu
Baicheng
Da'an
Wujia
Acheng
Huifa
Yanshou
Mishan
Dapaozi
Linkou
Taonan
Fuyu
Shuangcheng
Jixi
Weihe
Yabuli
Bamiantong
Krayevka
Qijiazi
Wujiazhan
Golin Baixing
Qian'an
Wuchang
Lubei
Zhanyu
Dehui
Mudanjiang
Nong'an
Shulan
Suiyang
Qabagt
Fate
Changting
Yolin Mod
Qianqihao
Changling
Jiutai
Jishu
Maolin
Changchun
Jilin
Daduchuan
Pipa Dingzi
GOBI
Kailu
Shuangshan
Heilinzi
Jiaohe
Melhit
Tongliao
Erlong Shan
Wanggi
Baixingt
Gubjiadian
Gongzhuling
Siping
Shiling
Hengdaozi
Dunhua
Wangqing
Qulut
Tumen
Yanji
Panshi
Cilucun
Naiman Qi
Liaoyuan
Huadian
Hunchun
I-dong
Anji-n
Fuxingdi
Zhenxing
Hoeryŏng-ŭp
Bugt
Diaobingshan
Meihekou
Fusong
Musan-ŭp
Najin
Songjianghe
Fuxin
Tieling
Xinmin
Fushun
Hunjiang
©2005 Microsoft Corp.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47°
46°
45°
44°
43°
42°

송눈평원은 하얼빈일대쪽은 농경지로 더 적합하지만 대부분 원래 유명한 초지였습니다.
현재도 지나전체 강역에서 3번째 또는 4번째로 넓고 훌룡한 초지로 유명합니다.
고대에 고구려,발해,금등의 만주에서 대제국을 세운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전쟁병기가 된 군마의 주된 목축지가 이곳입니다. 만주만을 고려하면 만주에서 최고의 넓이와 목초품질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송눈평원입니다.
서쪽으로 진출하려면 물론 대흥안령산맥 이서지역도 고구려-발해강역이었지만 기마병을 양성하기 위해 이곳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솟대 (2007-09-24 15:20:22)

지도상의 장성은 발해시대의 남은 유물로 생각됩니다.

발해때의 흑수말갈과 거란의 위치를 표시해 보았는데 원래는 좀더 서쪽입니다. 거란이라고 쓴 호수일대는 바로 실위의 땅이었고 실위는 고구려 멸망후 이탈되었다 다시 발해로 흡수됩니다. 발해의 번국으로 서쪽변경을 맡고 있었는데 발해말기에 거란이 발해침략전의 사전조치로 실위를 공격하여 거란국으로 복속시킵니다.

아래 만주지역 전체의 4대평야지역에 대한 개요입니다.

고구려와 같은 철갑기병을 양성하려면 군마를 생산할 수 있는 훌룡한 목초지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1. 송눈松嫩[쑹넌]평원 - 흑룡강 수계의 송화강松花江, 눈강嫩江유역일대의 북부 평야지대로 면적이 제일 넓으며 쌀·콩·수수·옥수수·조·밀 등 생산하며 특색작물로 사탕무·아마(亞麻)등이 재배됩니다.

2. 요하遼河[랴오허]평원 - 요하遼河 수계의 유역의 남부 평야지대로 역시 쌀·콩·수수·옥수수·조·밀 등 생산하며 특색작물로 목화등이 재배됩니다.

3. 흥개호興凱湖[싱카이호]평원 - 러시아의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와 경계인 흥개호일대 평원지대

4. 삼강三江평원平原 - 북동부의 송화강,우수리강과 헤이룽강 세 강의 합류점 부근의 습한 평야.

배수상태가 좋지 못하고 깊은 진흙층이 존재하여 개발이 늦어졌음.

종래 북대황(北大荒)이라 불리던 황야였음.

중공수립후 많은 국영농장이 건설되어 새로운 곡창지대로 개조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1992년 1월 자원 및 농업을 공동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한 지역)

그리고 말씀하신 하바로프스크와 알바진들을 지나는 흑룡강지역 이북으로 올라가면 동서로 횡단하는 거대한 산맥이 있어 만주지역과 동부시베리아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바로프스크에서 북으로 진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바로프스크 북단의 동서횡단산맥위의 지역은 대부분 소홀히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곳의 지리적 넓이는 만주지역만큼 넓습니다. 저는 이곳을 전세계 투르크족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단고기등에 나오는 단군조선이나 고구려시대때 북쪽에 있다고 나오는 낯선 국가들이 바로 이지역에 위치합니다.

<>
대쥬신은 오류적 표현

우리 겨레의 상고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은
불가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력은 팩트와 팩트를 연결하는
틈새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상상이란
공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쥬신'은 그야말로 오류에 기반한 공상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쥬신'이란 단어가 우리 상고사의 대명사로 자리잡는데에는 신채호
선생의 부정확한 언어적 접근과 대쥬신제국사라는 화보집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김윤회교수의 '대쥬신 제국사'라는 책도 일조했지요.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朝鮮을 '쥬신'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 역사는 아주 엉터리가 되어버린 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선 조선을 쥬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원류고에서 '숙신肅愼의 본음을 주신珠申''이라고
하며 이 주신珠申의 뜻이 관경을 말한다고 한 주석을 신채호 선생이 숙신=조선으로 보아
'조선=쥬신'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퉁구스 알타이어로 경계나 지역을 뜻하는 말을 영문으로는 jecen 정도로 표기할 수 있는 데.
우리 발음으로는 '제센'정도이고 이 말은 경계(boundary)를 뜻하는 동시에
'시장'(market place)를 뜻하기도 합니다.

고 스타로스틴 교수는 이 만주-퉁구스어 '제센'을 한국의 고어로 시장을 뜻하는
'저자 혹은 저재'와 동족어로 분류하지요.

문제는 만일 朝鮮이 관경을 뜻하는 '쥬신'/ 제센'의 음차표시라고 본다면
이 朝鮮이라는 한자어의 독음이 5세기 이후 , 즉 당이후의 북경어 음가 표준을 따른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한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하는 朝鮮의 음가는 어찌되는

것인가?

사마천의 사기가 지어질 무렵의 한자로 朝鮮을 읽는 다면 그 음가는 'tw@-sh@-r'(테샤-ㄹ)
정도가 됩니다.

이 음가로는 만주-퉁구스어로 '쥬신/제센'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당연히 朝鮮은 '관경'을 뜻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말해 우리가 조선=쥬신이라고 한다면 漢대의 朝鮮의 음가가 唐대의 朝鮮의
음가와 일치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신채호 선생은 한자의 고음가와 비교언어학에 정통하지는 못했으므로 만주원류고의 숙신=주신
을 조선-숙신-쥬신으로 단순하게 연계해서 추론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단순 연계 가설을 후대가 엄밀하게 고증하지 못하고 대중을 상대로 일종의 프로파간다
의 방식으로 주장한 것이 바로 '대쥬신'인 것입니다.

조선=쥬신이라는 등식으로는 朝鮮의 엄밀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비합리인 대중적 프로파로는 역사가 복원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솔본-

솔 (2007-10-14 06:26:39)

조선을 쥬신으로 발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조선을 테샤~ㄹ이라고 발음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없이, 설득을 하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식으로 말하면,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잎 (2007-10-14 07:15:02)

<<신채호 선생은 한자의 고음가와 비교언어학에 정통하지는 못했으므로 만주원류고의 숙신=주신
을 조선-숙신-쥬신으로 단순하게 연계해서 추론했을 뿐입니다. >>

신채호 선생이 조선=숙신=주신으로 연계했다.

한나라 이전시대, 삼한 이전시대, 에 조선 주신이 존재한 시기이며,

조선이 맞는 말이냐, 주신이 맞는 말이냐, 아니면 조선 주신은 별개냐,

한나라에서 한문을 만들어, 한문식 발음은 조선,

주나라에서 사용한 주나라문자의 발음으로는 주신,

주나라 당시에 사용한 문자의 발음은 주신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는 서양에 조선이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선은 한문식 발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역사 (2007-10-14 09:57:51)

어떤분은 쥬신을 달지로 발음해야 한다는분이 계시더군요...
여기에도 대대적인 연구가 진행되야 할거 같읍니다
그렇죠? 세잎님?

라디오 (2007-10-14 10:29:52)

조선상고사에서 내물왕편에서 신채호 선생의 발언에 어이 상실했습니다.

비판를 할 수 있으나..그냥 넘어갑니다.

Mimesis (2007-10-15 01:05:15)

솔본님/ 고대한자음에 대한 소개할만한 책자있으면 부탁드립니다.(입문서가 좋겠습니다.)

좌계 (2007-10-15 10:13:25)

/ 솔본 님.

눈을 번쩍 띠게 하는 자료(資料)를 올리셨습니다.

- 말씀하시기를.....
우선 조선을 쥬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원류고에서 '숙신肅愼의 본음을 주신珠申''이라고 하며 이 주신珠申의 뜻이 관경을 말한다고 한 주석을 신채호 선생이 숙신=조선으로 보아 '조선=쥬신'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퉁구스 알타이어로 경계나 지역을 뜻하는 말을 영문으로는 jecen 정도로 표기할 수 있는데. 우리 발음으로는 '제센'정도이고 이 말은 경계(boundary)를 뜻하는 동시에 '시장'(market place)를 뜻하기도 합니다.

고 스타로스틴 교수는 이 만주-퉁구스어 '제센'을 한국의 고어로 시장을 뜻하는 '저자 혹은 저재'와 동족어로 분류하지요.

- 각설(却說)
신시(神市)의 실체를 집요하게 연구하는 좌계의 입장에서는 숙신(肅愼)과 '저자(시장(市場)' 그리고, 관경(管境)의 개념이 연관성이 있는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눈을 번쩍 띠게 하는 자료'입니다.
'선생'의 귀띔에 이 싸이트(site)에서 찾아보니, 흠정만주원류고(欽定滿州源流考) 의 서문(序文)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古肅愼地 我朝肇興時 舊稱滿珠所屬曰珠申 後改稱滿珠而漢字相沿訛為滿洲 其實即古肅愼為珠申之轉音....

문제는 <舊稱滿珠所屬曰珠申>의 해석 문제입니다.
선생께서 경계(boundary)를 뜻하는 말이 소속(所屬)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boundary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속(所屬)이란 말이 참으로 독특한 것임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天文學)을 공부하면서, '서양의 별자리'는 별과 별을 선(線)을 그어서 마치 '땅따먹기'처럼 "여기는 무슨 좌(座), 또 여기는 무슨 좌(座).." 하는 식으로 그 경계(境界)가 명확히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이 별은 자미원(紫微垣)에 소속(所屬)된다." 하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소속(所屬)의 개념이 경계가 칼로 자르듯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별자리 '속'에서도 소속(所屬)될 수 있음을 알고 몹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속(所屬)의 개념이 원래 '구슬 꿰듯'이란 뜻의 주신(珠申) - 신(伸)과 신(申)은 통(通)함 - 이란 언어학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었군요...

공간 인식이 네트워킹(networking)의 개념으로 고조선(古朝鮮) 시대때부터 있었고, 이것이 '저자'의 개념을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市場)의 개념 형성을 언어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주셔서....깊은 고마움을 드립니다.

이희석 (2007-10-15 14:34:22)

珠申는 jecen정도로 발음되지 않고 정확히 말하여 "츄션(tşuşən)"입니다.
만주원류고가 청나라때 저작이므로 중세국어와 연결시켜본다면...

珠申은 현재 츄션(tşuşən)이고, 朝鮮은 중세에 "됴션"입니다.
우리나라 발음 중 "ㄷ"이 단어 초성에서 발음되면 "ㅌ"과 더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따라서 珠申은 츄션(tşuşən)이고 朝鮮은 툐션(tjoşən)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모음만 약간 다르고 같은 발음입니다.

김사인 (2007-10-15 15:00:34)

쥬신=조선 또는 숙신=조선으로 보는 신채호의 설은 완전 오류입니다.

숙신=쥬신=쥬르친=유르친=여진=만주족이 정답입니다.

만주족과 한민족은 말도 전혀 다르며 단지 지리적으로 이웃하여 일방이 강할때 다른 일방을 지배하고 그것이

서로 입장이 뒤바뀌어온 만주에서의 역사입니다.

고구려,발해가 강성할때 만주족이 신민이 되어 제국의 구성원이 되었고 금,청이 강성할때 고려,조선이 번속이

되어 제국체제에 순응하였습니다.

아구타의 신라인 후손설,발해와 여진 일가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당대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유리

한 대로 끌어다 붙인 편의주의적 화법에 불과하고 언어나 문화적으로도 확연히 다릅니다.

아득한 상고대에 숙신이 배달국이나 고조선의 일부 구성원일수는 있었겠으나 그렇다고 동족이라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작금의 만주족과 한민족을 동일시하려는 작태는 재야 민족사학계의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제국주의 사관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보고 뭐라 할 자격이 없게 만드는 행태입니다.

만주족이 현재 쇠약하다하여 맘대로 유리한대로 한민족사에 편입시키는 것은 양심있는 사학자의 할 일이

아닙니다.

최근 잔존한 만주족 청년들이 고유 언어와 문자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강좌를 여는 등 여러 움직임을 시작했

다고 하니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하나의 민족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용히 중국정부 모르게 도울 방법을 찾는 것

이 우리 한민족에게 유리한 처신일 것입니다.

이희석 (2007-10-15 15:11:48)

"주신=조선=식신=직신"설은 신채호 설이 아니라 정인보 설입니다.
구하기어렵지만 정인보의 조선사연구를 읽어보세요.

Mimesis (2007-10-16 00:58:50)

저는 역사나 언어에 대한 지식은 없읍니다만...
작태라는 단어는 이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널려있는 곳들에 써야할 단어 같군요.
그리고 양심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양심이 아주 조금만 찾아져도 옳은 방향으로 바로 잡히는데 크게
기여할 곳 역시 이곳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도 제대로 못찾고 있는 판에 다른 것은 그 다음으로 신경쓰고 싶군요.

김사인 (2007-10-17 23:36:38)

지식이 없다고 자처하시니 한 수 가르쳐 드리죠.

대륙삼국이 공인되고 만주족사를 한민족사에 편입할 때 비로소 우리 역사가 제대로 찾아진다고 착각하십니까?

극우 민족주의 사관에 눈이 멀면 중국,일본이 극도로 증오스러워지고 멸족시켜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또한 해동삼국의 정설을 당연시하는 이른바 강단사학계를 반도식민사관으로 몰아붙여

적대시하게 됩니다.

현 정설을 수호하는 강단이 양심이 없고 식민사관의 작태를 부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강단뿐만이 아닌 중국과 세계 사학계가 찍소리 못할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런것도 쥐뿔도 없으면서,맨 황당한 어거지들이나 늘어놓으면서 뭘 그렇게 증오하고 난리부르스입니까?

확실한 것이 있으면 합리적인 학자들이 왜 인정안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것이 있으면 서로 먼저 공인학설로 발표하려고 앞다투어 달려들 것입니다.

여기 활동하는 몇몇 사람들은 아마 학위가 있고 논문발표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그래서 재야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단교수들이 여기의 대륙설들을 보고 그럴싸한 것은 자기가 취해서 가감편집하여 자기 논문이라

발표해도 누가 뭐랄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누구하나 제정신인 사람은 이런 황당설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증거를 찾는 작업중이라고요?진행중이라고요?

그러면 확증을 확실히 건질때까지는 제발 현 정설을 신봉하는 강단을 매국식민반도사관이라 매도하지 마시오.

같은 민족끼리 같은 역사애호가끼리 증오하고 욕질해대고 하지 마시오.

아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채 욕질,어거지만 쓰는 쪽에게 작태란 단어가 어울리고 양심이 없다란 표현이

어울릴 것이오.

그리고 대륙설 때문에 아리까리해진 자들은 섣불리 극우 민족주의사관에 가담하지 말고

누구말만 듣고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다 반도식민사관의 잔재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증오스런 싸이트들의 내용들도 여기 이 싸이트의 내용들과 함께 찬찬히 비교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실의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사랑,역사사랑도 정상적인 머리로 해야합니다.

이희석 (2007-10-18 17:55:57)

사.인.님.

머리를 쓰라고 하셨죠. 그럼 남들이 해놓은 연구를 생각도 안하고 그냥 읽지만 말고 한번 혼자 깨우쳐보시죠.

珠申의 발음은요 현재 만주말로 츄션(tşuşən)입니다.

중세국어 툐션과 같은 발음이라구요.

김사인 (2007-10-20 16:37:44)

그래서 츄션=툐션=조선 이니 주신=숙신=츄션=툐션=조선=여진=만주 라는 얘기?

그래서 조선=여진=만주 이며 조선이 곧 만주 이다. 곧 조선인과 만주인은 동족이다?

1.만주어와 한국어는 도저히 같은 계통의 언어가 아니다.한뿌리에서 갈려나온 말이 아니다.

2.생활풍습이 다른 것까진 지역편차라고 백번 양보한다해도 두발과 복색은 어쩜 이리 다를까?

고구려왕들은 과연 호두변발 하였을까? 왜 만주족은 상투를 틀지 않는가?

3.현재 만주국이 건재하다면? 동족이 아니라 역사의 주적이 중국에서 만주국으로 당연히 옮아간다.

금,청의 정통성은 당연히 만주국 차지이다, 그럼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의 정통성은?

과연 당연히 한국사에 정통을 순순히 부여해줄까?

"고조선은 하북,요녕에 있었고 부여는 서북만주에 ,장수왕 평양은 현재 요양이며 발해 도읍 역시 온통

만주에 있었으므로 너희 한반도 한국과는 별 연관이 없는 당연한 만주국의 역사이다.너희는 백제,

신라,고려의 역사이다."라고 만주국 사학계가 주장할때 과연 당신의 반응은?

내가 예상할때 이렇다.

당신 왈 "아니다.고조선 평양,장수왕 평양은 모두 대동강 평양에 있었다.따라서 고조선,고구려는 한국

역사다.부여는 고구려 조상이고 발해는 국서에 스스로 고려라 했다.그러니까 한국사다"

뭐 어떻게 대응해도 궁색하긴 매한가지.

아니면 너네와 우리는 지금은 달라졌어도 옛날에는 동족이었으니 역사를 공유하자고 할려나?

간도와 백두산 정계비를 놓고 치열하게 분쟁중인데 과연 그런 궤변이 통하겠는가?

4.현재 만주족들이 과연 한국인,조선족들과 동족의식을 눈꼽만치라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지나가던 짱깨가 코웃음칠 일이다.

신채호,정인보 등 민족사학계의 선구자들을 추앙,신봉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들도 사람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당시는 한민족이 존폐의 기로에 있을 때이니 어떻게든 민족주체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무리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중국대륙을 정복했던 금,청 역사를 차용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못난 부모도 내 부모요 내가 그 자식인 것이지, 부모가 변변히 재산도 없고 가문에 영광도 없었다

하여 돈많고 벼슬 많은 남의 가문,남의 부모를 내 부모라고 강변하는 것은 어리석고 추악한 인간의

일면을 드러냄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삼전도에서 인조 임금이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의 치욕을 겪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만주와 조선은 본시 동족이니 오늘 조선의 작은 왕이 신하로서 대청의 아버지 황제에게 예를 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역사의 순리이다.이로써 황제께서는 옛적 고조선의 강토를 모두 회복하시니 마침내

다물의 도를 이루었도다.이제 조선왕실을 아예 폐하여 대청과 병합하고 하나의 임금아래 동족끼리 뭉치는

것이 하늘의 명에 응하는 것이리라.대청황제폐하 만만세!!!"

이렇게 주장할 생각이 있다면 계속 만선일체설을 주장하시라.

<>
동이겨례, 씨름, 그리고 이스라엘

서기전 2000년경...

한 청년이 메소포타미아의 거친 광야를 헤메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야곱 (jacob)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히브리민족의 족장 아브라함이었다.

야곱은 팥죽 한그릇으로 그의 형인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얻은 사실이 탄로나서
그의 형이 분노하여 자기를 죽일까봐 하란의 땅으로 도망치는 중이었다.

절망감과 두려움에 지칠대로 지친 그는 길에서 야훼의 천사를 만났고
천사는 야곱에게 만일 씨름에서 자신을 이기면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겠다고 제안한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와중에서도 천사의 축복을 얻기 위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벌였다.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날이새자 천사는 야곱에게 씨름을 중단하고 축복을 내린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Isra-el)이라 하라"

이로써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성서가 기술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솔본은 이 대목에서 자못 흥미진진한 사실을 발견한다.

히브리어로 '이스라'(Ysra)라는 말은 '싸워서 이긴'이 아니라 그냥 '겨루다'(strugle)의
뜻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Ysra-El)은 그 의미가 ' 신과 겨룬' (Struggled with God)이다.

이 ' Ysra'/ Isra (이스라)는 퉁구스 만주어 'Isele'(이썰러 : 싸우다, 겨루다)와
같은 의미인데 우리말에는 '씨루-다' 가 있다.

그래서 흔히 '씨름'의 어원을 이 '씨루-다'의 '씨룸'으로 보기도 한다.

주목할 만 한 것은 이 '씨름'(wrestling)을 당시 페르시아와 아랍에서 ' صراع '라고 적고 '쎄라'(ṣerāʕ) 라고 발음했다는 점이다.

[페르시아 전통 씨름 "쎄라']

위의 경기가 바로 중동의 씨름 "쎄라"다.

솔본은 우리의 '씨름'이 고대 페르시아의 "쎄라'로 부터 왔다거나 혹은 그 반대라고 섣불리 말하지는 않겠다.

히브리어로 레슬링은 קבא : 아박 (âbak)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Y(I)sra'하고는 거리가 먼 어휘다.

'이스라'라는 단어에서 씨름인 '아박'이 나오기 보다는 우리말 '씨루다'에서 '씨룸'이 나오기가 자연스러워서 이 '씨름'이 페르시아의 "쎄라'로부터 차용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스라', 만주 퉁구스어의 '이설러'(Isele),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어떤 커넥션에 놓인 것일까? 모두 다 우연의 일치인 것일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만났던 천사는 바로 먼 과거에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한 우리 동이겨례의 장사는 아니었을까?

-솔본-

홍승희 (2007-11-29 00:13:55)

좋은 시각을 늘 제공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밤새 씨름하고 날이 밝자 결과적으로 '이긴' 것이 된 그림이 우리 민속의 풍경과 많이 닮지 않았는지요. 밤길에 도깨비를 만나 밤새 씨름하다 날이 밝아 보니 나무등걸이었다거나 하는 것이지요. 사막 땅을 가던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 자리에 큰 돌을 세웠다고 했으니 혹 큰 선돌을 붙들고 씨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런지요. 아무튼 솔본님의 글은 늘 흥미진진하게 보게 됩니다.

관리자 (2007-11-29 09:32:52)

솔본님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송준희 드림

<>
[re]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러 저러한 변화들이 있어서요..
좀처럼 글을 못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들어 옵니다.

여러분곁에 늘 있을 거고요..
틈나는대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솔본-

문종서 (2007-11-06 09:48:28)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건필!

Mimesis (2007-11-06 23:28:34)

댓글 만으로도, 아니 닉네임이 보이는 것 만으로도 반가운 생각이 드네요..솔본님^^

<>
단오제를 지나인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다니..

지나인들이 얼마전 단오제를 한국에 도둑맞았다고 한바탕 난리를 쳤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역사적 도둑놈들 정도로 치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하나 여기에 반론을 펴지 못한다.

정말 한심하고 등신같은 작태다.

문화란 그것을 태동시킨 자의 것이 아니라 향유하고 있는 자의 몫이다.

따라서 지나인들이 단오제를 도둑맞았다고 염병을 떠는 것은

바이올린이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민속악기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바이올린 협주곡의 창작 지재권에 대해 오스트리아

정부의 동의를 구하라는 주장만큼이나 황당한 것이다.

단오제는 지나인들의 민속축제에서 동부와 남부쪽에 편향된

민속축제이다.

단오절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지나인들은 사실 잘못 알고 있다.

지나인들은 단오절이 강물에 투신한 초나라 굴원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믿지만 사실 단오제는 굴원의 생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한국의 단오제가 일개 역사적 인물인, 그것도 한민족과 관계없는 굴원의 투신자살을 기리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절동안 성대히 벌어져 왔겠는가?

현재 단오제에 대한 가장 설득력있는 기원은 용(龍)신앙과 그 토템숭배에 있다.

즉 지나인들이 단오제에 대표적인 행사로 인식하는 용선(龍船)경주는 바로 장강유역의 용토템과 용숭배신앙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기원이 BC 3000년 경의 중국 동남부의 하모도유적에서 발굴된 용문양의 토기들, 그리고 유적과 관계 있다는 것이 현재 지나학계의 주장인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터 BC3000년 경에 중국 동남부 하모도문화의 주인공들이 누구였는지가 바로 단오제 기원의 핵심이 된다.

지금부터 5천년전에 중국 동남부에는 동이(東夷)계 인들이 살고 있었다. 당시 화하(華夏)계는 동쪽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 못했다.

아울러 5천년전에 나온 하모도유적의 용토템은 비슷한 시기 발해 이북의 홍산문화 유적과도 연결된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홍산문화는 지나인들이 자신의 뿌리로 여기는

화하문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문화들을 지나인들이 중국것이라 우긴다면 그 주장은 현재 아메리카

의 앵글로 색슨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를 자기네 색슨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코미디가 된다.

지나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주(周)나라에서부터 찾는다.

소위 중국(中國)의 역사적 시작을 주의 봉건제로부터 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천년전의 하모도문화에서 시작된 단오제는 주나라든 중국이든

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 보다는 주의 동천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곳에서 오랫동안 터잡아 생활해

오던 동이계의 문화라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동이계는 바로 우리 한민족과 뗄래야 뗄 수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지금 지나의 한족들에게 '너희는 동이의 후손이니 우리 한국인과 같다'

라고 말하면 더할 나위 없는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결코 동이의 후손이 아니며 화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동이의 단오제를 화하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단 말인가? 아메리카에 진출한 색슨족이 호피족 인디언의 문화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단오제의 기원은 양기가 가장 충만한 음력 5월5일을 기리는 것이고 그것은 여름의 시작과 태양신을 기리는 고대 태양숭배 전통이 핵심이다.

고대 동방의 최고신은 태호(太昊)복희였다.
태호(太昊)의 호(昊)는 여름 하늘을 의미하며 그 문자의 기원은 하늘에 높이 뜬 태양이다.

단오제는 바로 태양신으로 상징되는 태호복희를 기리는 고대 동이족의 여름축제였고 그것이 지나 화하족에게 전파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다.

역사란 한 문화공동체가 기억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다.

따라서 역사적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두 문화공동체는 결국 자기 정체성에 대해 타자와 투쟁하는 것이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화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과 역사적 갈등과 대립상황에 놓여 있다. 다시말해 두 문화적 집단간에 자기 정체성을 건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싸움에서 양보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자기 정체성에 대해 양보하는 것이 된다. 이 싸움에서 헤게모니를 빼앗긴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타자의 인식을 용인한다는 것이 된다.

그것은 조상과 후손에 대한 죄악이다.

따라서 어차피 시작된 중화(中華)와 대한(大韓)의 문화적 투쟁은 회피할 수도 없거니와 물러설 수도 없는 전쟁이다.

-솔본-

prada (2008-08-31 19:53:34)

東夷列傳第七十五 - 馬韓... 中..

常以五月田竟祭鬼神, 晝夜酒會, 聚歌舞, 舞輒數十人相隨 地爲節.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항시 오월이면 논경계에서 귀신에 제사지내며, 주야로 술마시며 모임을 가지고,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추다. (&그러다가)문득 수십인이 서로 춤추며 땅을 밝으며 따른다. 시월 농사일을 마치면 또한 이와 같이 한다.

三國志 - 韓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聚歌舞, 飮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 ,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항시 5월 씨뿌릴때가 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춘다. 쉬지않고 밤낮 술을 마신다.

그춤은 수십사람이 함께일어나 따르는데, 손발도 응한다. 10월 농사일 마치면 또 이와같이 하는데, 귀신을 믿는것이다.

글쎄요... 추수감사절 같은 귀절인데요.. 다시말해 절기를 보내면서 행해지는 과정들에 대하여 표현하는 행위로써 전형적인 샤머니즘적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心濟 (2008-09-01 12:44:13)

무식하다면 용감하다는...알고 이야기 하면 저정도는 아닐텐데..

target=_blank>http://news.joins.com/article/3281144.html?ctg=1207

Mimesis (2008-09-02 22:47:10)

솔본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나공산당의 분열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과 지나친 자만심에 의한 야욕이 그 발단의 핵심같습니다.

역사사실을 사실대로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나은 의식 수준으로의 발전이 용이하고 보다 오래가는 진정한 '주도권'을 향한 태도일 것 같은데...그런데 역사에 대한 '매너'는 상호간에 지켜야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지 일방만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엉뚱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

씨름이 생각나네요.

내가 잘하는 기술로 이기든 상대의 힘과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이기든

맞잡아야 길이 생기는 것이지,

집중을 않하고 한순간 멍하니 방심한다거나 아니면
기가 죽어 위축되어 허리를 조금 펴는 순간...

하늘이 돌고 입안엔 모래만 씹히게 될 것 같습니다.

<>
등신들의 육갑

우리 역사에 등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신(等神)이란 글자 그대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등신은 인간과 세상사를 초월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등신들이 하는 말과 행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긴 찰나적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등신들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인간은 등신과는 논쟁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존재와도 논쟁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서양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괴테는 말하길 '바보와는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바보'는 따져보기 보다는 그냥 우기기 때문이죠.
우기는 자 앞에서 논쟁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등신은 바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적어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러한 등신들이 있고 그들이 육갑을 말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아유타국이 인도였고 그래서 석탈해,허황옥이 다 인도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쌍어문이 인도의 아요디아에 있었고 가락국도 쌍어문이니 가락국이 인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 타밀어가 한반도에 들어와 가락국이 되었다는등..
타밀어와 한반도어가 같다는 등...

그러면...

타밀어 ko(코)는 군주(Lord)와 높다 (high)라는 뜻인데..

호(胡)와 고(高)는 옛 한자발음에서 같은 것이 었고..

같은 한자발음은 같은 뜻으로 갈아쓸 수 있어서..

胡(호)는 곧 高(고)였고
그래서 지나사서는 고구려를 胡라 했고

그 호(胡)는 또한 浩(클 호)며 또한 昊(하늘 호)였고
그래서 동이의 천자는 昊天大帝(호천대제)였으며 결국 그 모든 뜻이
타밀어 ko와 같으니 고구려도 타밀이 세운 나라고 중국도 타밀이 세운 나라인가?

쌍어문은 반포도기에도 있었고
반포문화는 어로문화였고..

어로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시원지는 동북아였고..
어로에 쓰였던 가장 오래된 그물문양과 뼈낚시 바늘이 아무르강영역에서
나왔다는 사실로부터..

그것이 세계화된, 다시말해 지금으로부터 1만년전 동북아의 어로문화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인도 아유타의 쌍어문이든 머든 살펴봐야 한다는 점은 새카맣게 모르는
등신들이 있는거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타밀어가 어떻게든 한국어와 비슷하다면
그 타밀어는 알타이어와 비슷하고
결국 알타이의 영향력 아래 놓였던게 타밀이라고..

이제 우리 역사는 지나에서 인도로 가야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나요.

몽골과 지나와 일본과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인도 타밀로 가야하나요?
참으로 한심(閒心)한 사람들이네요

-솔본-

문종서 (2008-10-24 22:24:05)

등신하고 말 섞으셨나보네요..

<>
흠.. 좌계님의 질문엔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가림토문자가 실제로 당대에 존재했었는지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림토문자의 음가를 재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림토문자로 된 텍스트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어군이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림토문자의 존재는 당대 다른 문화권의 문자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자모음이 단순화 되어 있어서 저로서는 신뢰하기가 곤란하고요..

현재 추정하는 자모음의 음가를 적용하면 고조선은 현재의 한국어 발음과
거의 일치한다는 건데...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가림토문자로 된 텍스트가 나와야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솔본-

솔본 (2008-12-04 00:35:30)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림토문자가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을 초기 연구할 때
모델로 했던 일종의 시제품(?)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걸 더 다듬고 해서 현재 한글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후대에 누군가 버려진 초기 모델을 발견했고 그것을 한단고기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조선 글자로 오해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좌계 (2008-12-04 13:46:17)

솔본 님.
솔직하신 견해에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좌계는 이 가림토가 '쌍방향적 언어학습기'의 흔적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자원리(制字原理)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비록 가설(假說)이긴 하지만, '발음기호를 체계화한 체계'를 추정해보았던 것입니다.

과감하게 상상은 하되, 이를 팩트(fact)라고 무리하지 않는 솔본님의 자세가 다시한번 가슴에 와 닿습니다.

<>
인터넷에 등장하는 싯담어 괴담

간혹 인터넷에 보면 한국어의 사투리가 싯담어(Siddham: 悉曇語)라 하며 희한한 사례들을 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싯담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구어를 적기 위해 인도 북부에서 고안된 문자입니다.

브라만 문자로 부터 이어져서 나중에 산스크리트어를 적는 데방가리 문자의 원조이죠.

따라서 싯담어라는 말은 틀린 것인데 싯담문자라 해야 옳고 그 음가는 바로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러면 산스크리트어와 한국어는 얼마나 가까울까요?

솔직히 가깝고도 멉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유럽어의 한 갈래이고 프로토 인도유럽어는 유라시어나 노스트라틱어군 속에서 알타이어,퉁구스어의 공통조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어의 사투리가 산스크리트어였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구요..

-솔본-

<>
만주어와 우리말에 대한 몇가지 생각...

오랜만에 들렸더니 장진근선생님께서 만주어에 대한 소고들을 올려 주셨군요..
일단 만주원류고 출간에 대해 경하드립니다.

아래 지적하신 만주어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을 보태볼까 합니다.

1. 만주어는 알타아이어족으로서 퉁구스어로 분류되는데 사실 알타이어계에서 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이 어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만주어의 모태가 되는 여진어의 성격과 그것이 갖고 있는 퉁구스어와의 관계도 명확하지가 않죠. 또 만주어에는 구어와 문어가 있습니다. 현재 구어로서 만주어를 완전히 구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만주어는 몽골어와 교합된 어휘들이 많고 또 몽골어는 투르크어와 친연성을 가져서 만주-몽골-투르크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다만 현재 만주어의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과거 만주어내에서 경합하던 다른 어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 지 우리로서는 감감할 따름이죠.

일단 제시하신 어휘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름에 수어(秀魚: 숭어)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그보다 좀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속칭 "야래(夜來)"라고 하며, 높은 언덕을 "덕(德)"이라 한다고 하엿다.

==> "야래(夜來)"라는 물고기는 아마 우리 열목어(熱目漁)와 동원관계인 것 같습니다.

흔히 열목어를 '눈에 열이 많아 눈이 빨간 고기'라고 하는데 이건 속설이라 보이구요.
아마도 산을 끼고 흐르는 강을 뜻하는 우리말 '아리'와 '모케'라는 민물대구 종을 부르는 순 우리말과 의 복합어가 아닐까 합니다.

아리모케> 아리목>여리목(이모음동화)>열목(음운축약) 이런 과정이 있었다 보이고요
그것이 아마 만주어 "야래(夜來)"를 뜻하는 것이라 봅니다.

시베리아와 몽골의 이 열목어를 'lenok'(레녹)이라고 합니다.
'야래'-열목-레녹'은 분명히 하나의 선상에 있을 겁니다.

높은 언덕을 "덕(德)"이라 한다는 것은 언덕 그 자체에서 보여지는 예겠지요.

그리고 또 "여진어인 dege(高阜) 혹은 만주어인 den(高)를 가리킨다"를 인용하셨는데
'높다'라는 말의 만주어 deng(高)는 사실 우리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어휘라고 봅니다.

고구려에 부여신과 함께 나무를 깍아 고등신(高登神)을 모셨다는 기록에서
登神의 登(deng)이 '높다',지존'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신(高登神)은 '고구려의 거룩한 신'이라는 뜻이겠지요

이 登神은 동시에 우리 음차로 '당검'/당감'/당금'과 같은 말로
불렸지 않았을까 합니다.

위서에는 이 고등신을 等高神(등고신)으로 썼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여진어
dege=高의 이형표기가 아닐까 하는군요.

이것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등관대묘'(登冠大墓)에 모셨다'라고 쓰여진 문자를 해독하는데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은 아직 해석이 안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여진어
dege=高와 같이 登冠 :de(ng)-gw(en)=高의 표현일 것으로 생각되는 군요.

다시말해 '등관대묘'(登冠大墓)에 모셨다'는 말은 높은 대묘, 또는 거룩한 대묘에
모셨다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等神'(등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풀과 흙따위로 만든 우상'이라고
국어사전은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 한자어가 중국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等神'(등신)이 '高神'의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上자의 고음(古音)이 dang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說文》上, 高也。時掌切 에서 上의 반절음인
時의 상고음은 '시'가 아니라 'twe'입니다. 그래서 칼그렌을 비롯 중국의 상고음 학자들은
이 上자의 고음을 dang/tang으로 재구하는 것이죠.

아울러 時의 상고음이 twe/때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한자의 창제가 지금의 지나인들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강희자전을 보면 이 上자가 '지존'을 말한다는 뜻에서 과거 이 上자는 帝자 처럼 지고의 존재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존자를 우리나 만주에서 '당/뎅/둥/'과 같이 불렀을 겁니다.

저는 당골이라는 말과 제주무가에서 '당금애기'의 이 '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土자의 갑골문은 바로

입니다. 이걸 갑골문 당시에는 '상'이 아니라 '당'/등'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이 갑골문의 형태는 대문구토기의 그것과 같고 또 메소포타미아를 비롯 수메르-아카드문화에서
자주등장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쓸 말이 많지만 차차 하기로 하죠..

-솔본-

玄濟 (2009-01-21 12:48:28)

전부터 항상 의문을 품어왔는데, 마침 솔본님이 계시니 이번 기회로 통칭 만주어로 통하는 영역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와서 만주어 복원 시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1990년대까지 현 동북삼성(요녕성 · 길림성 · 흑룡강성) 등지에는 만주어로 말할 수 있는 종족이 거의 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 # 지금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찾을 수 없어서 제가 본 기억을 그대로 구술할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섬서성(陝西省) 서북방 및 북방과 접하는 현 내몽고 중부의 하투(河套) 지방에 소수 여진족이 남아 있고, 거의 근세 조선 언어의 원형과 흡사할 정도로 언어를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후의 만주어 영역으로서 만주(滿洲)이라고 가설을 세워야 한다면..
현 내몽고 중부의 하투(河套) 지방에는 최후의 만주(滿洲)으로서 위치해 있어야 하나 추측해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나라(淸) 멸망기 부터 일제 시기에 와서 현 동북삼성(요녕성 · 길림성 · 흑룡강성) 등지까지 동쪽으로 이동하여 만주국(滿洲國)을 세워질 때, 현 한반도(韓半島)와 함께 여러 지명을

옮겨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가설을 세워 보겠습니다만,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연구하면서 찾아보고 알게 된 것은..
현 요녕성(遼寧省)에 위치하는 지명들 대부분은 후금사(청사고)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진 지형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현 내몽고 중부의 하투(河套) 지방에 만주어 원형이 아직 남아 있는가 관련되는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데.. 조언을 구하고자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본 (2009-01-22 02:40:00)

아마 xibe(시버)족을 말씀하시는 것 샅습니다.
시버족은 지금의 만주에 있다가 청대에 섬서성으로 이주된 퉁구스어족입니다.
현재 그곳에는 만주어 구어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만주족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과거 여진때 몽골과 연합하면서 동에서 서로 많이 이동했을 걸로 봅니다.

지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명은 분명히 어족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으로 이동경로를
따지려면 다른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세 조선에는 여진어 어휘가 상당히 많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여진어는 아마도 그 전대의 읍루,물길등의 언어와도
관련이 있고 부여어가 존재했다면 그것의 갈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아직은 확신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玄濟 (2009-01-22 12:32:48)

네.. 친절한 담변을 해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Mimesis (2009-01-24 15:50:38)

일본서기의 아리나레해도 같은 계열로 봐야겠군요.

<>
영고탑은 天祭를 드리던 소도였을 것

장진근 선생님께서 올리신 삼국사 국어해의 영고탑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寧古(영고)라는 단어는 上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寧古劑(영고제)는 六즉 6을 말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만주어로 六은 일반적으로 'ningun'(닝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寧古라는 발음이 'ningu'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上을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上(high, top,above)을 뜻하는 만주어는 deng이고 '닝구'와 비슷한 음가를
가진 만주어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이전의 프로토 퉁구스어군에서는 寧古에 대한 유사음가를
찾을 수 있는데 솔롱어에서 上을 뜻하는 말로 '우거'(un-ge)를 볼 수
있습니다.

Proto-Tungus-Manchu: *ug-

Meaning: 1 above, up 2 to mount

Evenki: ug|i: 1, ug|- 2

Even: o"g|ъ- 1, u:- 2

Negidal: uvi- ~ ug|i- 1, okc^a-la:- 2

Literary Manchu: ve-si- 1

Jurchen: wi-si (594) 1

Ulcha: uji- 1, u:.- 2

Orok: ui, uwu 1, u:.- 2

Nanai: uwu-j 1, o:- 2

Oroch: ui-si 1, u:- 2

Udighe: ui- 1, u:-na- 2

Solon: ug|e-sxi: 1, ugu- 2

그렇다면 이 만주어 寧古가 上을 의미할 때 그 발음이 '우구'/'우거'에 가까왔다면
이것은 만주어가 그 이전의 퉁구스어에서 분기되기 이전의 음가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말해 아주 오래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上을 뜻하는 여진어가 '위-시' Jurchen: wi-si (594) 라는 점에서
이는 우리말 '웃' /윗 (u-s/ wi-s)와 동원관계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일본어 うえ (ue)와도 동원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시말해 한국어-만주어-일본어가 하나의 어군에 있을 때 上의 발음은
ag- /ug- 또는 as/us와 같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上げる, ageru),

이것은 우리말 '더욱'에서 더 +욱의 '욱'(ug)이 바로 上일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6을 의미하는 만주어 '닝군'과 삼국사국어해의 寧古劑
그리고 영고탑(寧古塔)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영고탑이 처음부터 6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上塔(상탑: high-tower)을
의미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上을 뜻하는 ug-과 六의 상고음 (yuk)간에 어떤 습합을 통해
六이 신성한 숫자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六을 만주인들이 한자로 표할 때 寧古라는 어휘를 썼을 가능성입니다.

중국의 학자들은 만주어 寧古塔을 寧古 (六) + 塔(個)로 해석해서 영고탑을 '6개'(六個)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주인의 조상인 寧古塔貝勒(영고탑패륵)을 6개의 패륵이라는
이상한 해석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寧古塔貝勒(영고탑패륵)은 삼국사국어해의 만주어대로 라면 '우거터 삐얼러'(uge te biele)
라고

읽는 것이 맞고 그 뜻은 上塔貝勒, 즉 '거룩한 탑이 있는 곳의 貴人'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寧古塔, '우거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영고(寧古)가 上이라는 뜻에서 그것은 높다, 거룩하다, 신성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태양,天. 神,군주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거'(U-ge)는 고조선의 왕 이름이었고 한단고기에는 '우야고'한웅이 등장합니다.
aga(아가)는 몽골,투르크인들이 군주앞에 붙혔던 칭호고 그 뜻은 '위대한'입니다.
금태조 '아구타' 역시 이 agu- ==> 寧古==> 上==> top. high, holy의 커넥션상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거터'(寧古塔)는 태양 또는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높은 제단을 의미하고 군주가 있는 또는 대 제사장 샤먼이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다시말해 우리 소도와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만주의 영고(寧古)는 부여의 영고(迎鼓)로부터 차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여말로는 이 迎鼓(영고)를 '웅거'/ 앙거'정도로 부르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Proto-Mongolian: *on|go-n

Altaic etymology:

Meaning: spirit, ancestor spirit

Russian meaning: дух, дух предков

Written Mongolian: on|g|on (L 614: on|g|un)

Middle Mongolian: on|g|un (HY 31)

Khalkha: on|gon

Buriat: on|go(n)

Kalmuck: on|g|@n

Ordos: on|Gon, un|Gun

Dagur: on|gore (MD 202) ==> 다구르어는 원몽골어와 퉁그스어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여어와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됨.

Shary-Yoghur: on|go

Comments: KW 287, MGCD 528, TMN 1, 179-181.

-솔본-

心濟 (2009-01-23 13:05:11)

솔본님 반갑습니다. 향상 좋은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승하세요.

솔 (2009-01-23 18:30:28)

재밌는 글이네요.

글을 읽고, 느낀바를 쓰고 갑니다.

영고: 열다, 하늘로 여는 곳...고는 위,하늘, 영은 여는 곳
六은 천지인의 지에 해당하는 것, 열리는 것, 수확을 뜻하기도 함.
수확을 하고 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실려나?

위시,우게,우가등등 모두 하늘과 관련된 것

아가 : 넓게하여, 끝(가)로 뻗는....위대한, 크나큰, 크나크면서 계속 크는, 그런 뜻이 나올

수 있겠고요.

참조하식고, 이만....

말이 그 음과 조합이 어느정도 바뀌어도, 근본 뜻은 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솔본 (2009-01-23 20:10:39)

心濟/ 감사합니다.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imesis (2009-01-24 12:39:35)

소리말이라는 시각을 잃어버리면 절반 이상, 혹은 그 이상 거의 모든 시야가 닫혀버리는군요.

솔 (2009-01-24 13:09:15)

제 댓글을 읽어 보니 선듯, 이해가 안갈 부분이 있군요.
저도 제가 왜 그런 댓글을 달았는지 모르는 글이 있습니다.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六은 여섯, 즉, 섯(셋)의 복수의 의미로, 이론적으로, 人에 해당하는데, 갑자기 地라하였으니,
글로써 스스로를 잠깐 혼동에 빠지게 한듯합니다.

사실 육을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육을 산출한 결과가 잠깐 혼동에 빠져서, 추출해낸 것입니다.

즉,
하나,1,天,4,7,
둘,2,地,5,8,
셋,3,人,6,9
에 근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저러한 이론으로 글을 쓴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숫자를 세는 기능이 약간의 착각을 일으켜 잘못된 결과를 낸 것입니다.

개인[기본](1,2,3), 사회[국가](4,5,6), 우주(7,8,9)를 규정한 것이 우리말의 숫자의 비밀입니다.

단순하게 음을 나눈 것이 아니라, 우주의 운행원리를 담았습니다.

틀린 부분은 그냥 두겠습니다.

잘못된 기록도 기록은 기록이니....

<>
김일제가 신라김씨의 진짜 조상일까?

얼마전 이리저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신라김씨의 조상이
김일제(金日磾, 기원전 134년－기원전 86년)라는 뭔가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이 주장을 근거로 KBS에서 다큐멘터리도 했더군요.
그런데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이건 좀 해도 해도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지식이 짧은 일반인들이 보면 좀 혹 하겠지만 잘 드려다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신라김씨가 흉노계였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신라의 문화는 유라시아적인 면모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일제라는 역사적 인물이 신라김씨의 조상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입니다.

김일제는 흉노 휴도왕의 아들이고 그는 곽거병에 의해 포로가 되어
광무제의 말치기가 되었다가 무제의 암살위기를 방어함으로써 신임을 얻고
투후(秺侯), 곧 '투'라는 지방의 제후로 임명되었더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일제는 나라를 잃고 무제의 노예가 되었다가 그의 목숨을 구한
댓가로 경호실장에 올랐고 그 덕으로 잘먹고 잘 살은 사람입니다.

신라김씨의 조상이 결국 광무제의 경호원출신이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뭐 그런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선 그러한 주장을 편 김대성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한국문자학회 부회장
이라는 분의 글 원문" 흉노왕의 후손 김일제 유적을 찾아서"를 인용하며 검토해 봅니다.

우선 김씨는 신라 문무왕의 비문에 나오는 "투후제천지륜전칠엽(秺侯祭天之胤傳七葉)"
이라는문장을 오독하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투후는 하늘에 제사지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로 해석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분이 한문을 공부한 분인가 싶습니다.

첫번째 투후제천지륜전칠엽(秺侯祭天之胤傳七葉)의 해석을 문장대로 하면

"투후가 하늘에 제사지냄(祭天)이 이어져(胤) 전하길(傳) 일곱대(七葉)에 이르고..".

또는 "투후의 천제를 지내는 후손이 전하여 7대를 이르고"입니다.

胤은 자손이라는 뜻과 이어지다라는 두개의 뜻이 있습니다.
葉은 이파리라는 뜻외에 '세대'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만으로는 투후와 신라김씨간의 연결고리를 단정할 수없는데
대개 비문은 과거 역사의 이야기를 전거로 삼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무왕비문의 마모가 심해서 문장들을 서로 연결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판독되는 부분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김씨는 이 문장의 '투후'를 보고 감명받아 중국에 있다는 투후 김일제묘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죠.

오히려 중국에 가서 김일제의 이름을 '미티'(miti)라고 부른다며 오히려
의아해 하죠.

==> "일제의 묘는 현지에서 ‘미티(Miti)’라고 부를 뿐, 실제로는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묘를 만들어 두었는지 관심 밖이었다."

저는 그런 고백을 보고 그야말로 배꼽빠지게 웃었습니다.
미리 공부 좀 하고 가시지...
김일제와 김알지가 발음이 비슷했던 것에 흥분하셨다가 좀 실망스러웠나 봅니다.

김일제를 'MiTi'라고 하는 것은 선우를 일컫는 투르크어 '메테'(MeTe)의
변음입니다. 따라서 김일제의 日은 아마도 目자를 잘못 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김알지하고 '김미티/킴메테'는 일단 발음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구요.

문무왕비문에는 '투후' 말고도 여러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 비문의 다른 내용은 접어두고, 가장 주목되는 7단계의 출자 부분은 이렇다. "

① 화관지후(火官之后): BC 2300년대
② 진백(秦伯): BC 650년대
③ 파경진씨(派鯨津氏): BC 200년대

④ 투후(?侯): BC 100년대
⑤ 가주몽(駕朱蒙): BC 50년대
⑥ 성한왕(星漢王): AD 20년대
⑦ 문무왕(文武王): AD 660년대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위에 열거된 사람들이 문무왕의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 "문제는 ①의 '화관지후'가 사람의 이름인지 당시의 관직 이름인지 ②의 '진백(秦伯)'이나 ③의 '파경진(派鯨津)'이 무슨 뜻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후대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신라 문무왕 당시에는 이런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새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왜 모른답니까? 저는 금방 찾았는데..

더 가관인 것은,

==>일단 결론부터 추단해 본다면 ①의 화관지후는 BC 2300년 경 관직 이름으로 현재로서는 삼황오제(三皇五帝)시대의 임금인 순(舜·재위 9년 BC 2320~2312), ②의 진백(秦伯)은 진시황제의 20대 선조인 진 목공(穆公), ③의 파경진씨(派鯨津氏)는 진나라가 망하면서 안전지대를 찾아 경진씨를 파견한 휴도왕, ④의 투후는 김일제, ⑥의 성한왕은 김일제의 4대손인 김성(金星)으로 이 성한왕이 바로 김알지라는 것이다.

화관지후는 순임금이 아니라 바로 불의 신 축융의 후예들로 彭(팽)씨를 비롯
8개의 성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좌구가 지은 국어(國語)에는
"火官祝融之后,八姓之一有彭姓" (화관축융지후,팔성씨 지일 유팽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8성씨는 :"祝融之后, 八姓, 己、董、彭、禿、女、斟、曹、芈, 周灭之"죠
金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요..

진백(秦伯)은 진의 목공이 맞고요
여기에 가주몽?이 등장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성한왕(星漢王)이 김일제의 4대손 김성이고
이 김성이 바로 김알지라는 것이죠.

김씨는 성한왕 김성과 김일제 사이에 놓인 가주몽(駕朱蒙)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합니다. 살짝 건너뛰는 애교?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김일제의 아들이고 성한왕은 주몽의 아들인셈인데..그렇다면 주몽은 고씨가 아니라 김주몽????

문무왕비에 주몽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위에 열거된 이름들은 문무왕의 치적을 찬양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인용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문무왕에 비교하면서 문무왕을 그 반열에 놓으려는 것이지요.

결정적인 오류는 맨 처음 김씨가 지적한 "투후제천지륜전칠엽(秺侯祭天之胤傳七葉)"
의 7대를 위에 열거된 사람들에 꽤맞춘 것입니다.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투후위로 화관지후, 진백,파경진씨 3대가 놓이는데 이게 어떻게 투후 이후
7대라는 문장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문무왕비에 등장하는 이름들에 이어지는 문장들은 대개 이러할 것입니다.

화관지후(火官之后)는 황제의 덕을 만방에 펼쳐 세상을 이롭게 했고
진백(秦伯)은 지혜로운 자의 덕을 입어 진나라의 위상을 드높혔으며
파경진씨(派鯨津氏)는 ……했고
투후(?侯)의 천제는 7대를 전해왔다. (그 만큼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주몽(朱蒙)이 마한을 세운이래...(당시 고구려를 마한으로 인식했음)
성한왕(?)으로부터 삼한을 지켜내고
문무왕에 이르러 ……하였도다.

그러나 저러나 혹시 김씨는 중국과 한국에 金이라는 성이 김일제가 최초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김일제에게 金이라는 성을 하사한 무제, 그의 어머니가 바로 김씨였지요.
그녀의 이름은 Jin Wangsun (金王孫) 이었는데 무제를 낳기전에 이미 평민과 한번 결혼했던 여자였고 무제와는 배다른 딸들이 있었지요.

김씨는 소호금천으로부터 비롯된 성씨가 맞습니다.
그것은 동이족계열의 성씨였구요..
김일제와 김알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성이 박씨였던 알지 거서간, 그리고 김알지의 알지는 아마도
alchi라는 흉노계 종족의 칭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그것은 '뛰어난, 독보적인'이런 뜻이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 金은 소벌(蘇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소벌蘇伐은 금을 뜻하는 흉노계 언어인데 金을 자신의 종족표시로 했던 suvar 족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신라의 소벌공이 제일 먼저 박혁거세의 알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신라6촌 중 소벌씨가 가장 상위였는데 박씨라는 외래세력에 눌렸다가 후에
권력을 잡으면서 소벌가문이 金을 칭했다고 생각되는군요.

사실 박씨는 Bagh이라는 흉노계 투르크어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영웅,군주라는 뜻이죠.

적어도 우리 신라조상님이 지나 임금의 말치기에서 경비원으로 승진한
따까리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무왕비에 '소호금천'이라는 문구가 단 한 줄이라도 등장한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던데...

혹시 화관지후(火官之后)를 소호로? 에이 설마...
배울만큼 배운 분들이...그런..

-솔본-

돌비 (2009-01-27 10:22:32)

솔본선생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화관지후 ~ 문무왕까지의 해박한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도 일반인으로서 한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투후제천지륜전칠엽(秺侯祭天之胤傳七葉) 자구의 해석은 어찌 되었던 왜 하필이면 문무왕비에 중국 귀퉁이의 한 제후에 불과한 투후를 언급했을까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말치기하다 경호실장에 이르는 한마디로 따까리가 왜 문무왕비에 등장할까요?

요즘 인터넷을 읽다보면 저도 와전된 지식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추적 방송이후 잘못 이해하여 마치 투후 김일제 본인이 직접 신라로 온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후' 자체가 하나의 역사추적의 코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일제의 후손이 신라로 이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왕망의 난에 연루되어...) 김일제는 따까리에서 경호실장으로 최후에는 제후가 됩니다. 이주해온 것은 제후의 후손들이란 말이지요!
더 이상 따까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 사서에서 보이듯 초기 신라는 제손으로 사신 하나 꾸미지 못해 백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작은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 김일제의 후손이 신라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서나 자구의 해석 이외에 몇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제의 후손은 김왕망의 난에 연루되었다가 도태되어 도피한 정치집단의 이주로 봅니다.

왕망의 신나라는 몇십년 지속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망전(화천)이 신라, 가야, 일본지역에서 발굴됩니다.

이런 동전은 역사의 시기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아닙니까? 먼 이역 땅인 신나라에서 잠시 쓰였던 화폐가 신라지역 등에서 발견되었다.
물론 꼭 김일제 후손이 아니더라도 이미 신나라와 신라간에 누군가는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투후지역에서 신라 땅으로 이주는 해상루트였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상루트도 나중에는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동복(청동솥)입니다. 왜 기마민족의 상징인 동복이 신라고분에서 출토되었을까요?
요즘말로 동복은 유목민의 이동시 캠핑도구입니다. 김일제의 후손은 누굽니까? 한때 한나라도 정벌했던 휴도왕의 후손입니다. 전형적인 기마민족인 동이인의 후손이죠! 이 코드를 신라에 와서도 지니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를 이용한 집단이 화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투국지역에 金鄕이 있는데 이곳이 금성이었답니다. 신라의 경주가 금성이죠! 지역의 명칭 일치가 단순한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보통 이주민들은 자기의 고향을 칭한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박씨 석씨로 시작된 신라가 어느 정도 경과하자 김씨로 성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한 김씨 세력이 처음부터 권력을 잡지는 못한거로 보입니다. 여러부족간의 이해관계가

맞추고 세력을 규합하며 17대 내물왕에야 비로소 김씨 왕조를 시작합니다. 특히 가야지역의 병합이 신라의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저의 조상 창녕 曺씨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다음에 기회에...)

제 생각에 김알지는 알지> 알치> 알티 > 알타이 결국 '金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성한왕은 '김알지의 아들 세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부터 금장식 등 이것 저것 금을 쓰는 사람들의 집단 이주가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솔본 선생님의 견해에 대하여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솔본 (2009-01-27 14:24:36)

문제는 문무왕비에 기록된 명문의 전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들을
신라김씨조상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망전의 신라시대 출토는 교역의 정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동복의 출토 역시
그것이 증거는 되기 어렵죠. 예를들면 신라 호우총에서 고구려 유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라의 금성은 金을 수바르(suvar)라고 불렀던 흉노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미
Suvar=> 소벌>서벌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는 소벌공파가 주도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봅니다.

그것이 김일제와 어떤 관계냐는 것은 지금 미국의 주류를 이루는 앵글로잭슨족 가운데
누가 이민의 주인공이었느냐는 질문과 다를 바 없는거죠.

신라초기에 김씨가 세력을 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님의 추정은 저와 같습니다.

알지=알치=알티=알타이의 동원관계는 충분히 의미있습니다.
다만 김일제는 당시에 미티(MiTi)라고 불렸는데 이와는 관계가 없죠.

결론적으로 저는 대륙의 흉노계가 김씨의 조상일 것이라는 심증에는 찬성합니다.
사실 박혁거세조차도 기미민족의 이주와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니세이어중에 케트어족의 단어에는 우리 고대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가능성이 많은 어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흉노어의 근간으로 이 예니세이 케트어를 지목하는 학자들도 있죠.

케트어로 버커커지 (berkekeji)는 통치자(Ruler)를 의미하고 Senang은
샤먼적 존재 즉 우리말로 서낭/성황을 뜻합니다.

-솔본-

솔본 (2009-01-27 14:33:29)

이어서.. 사실 제 심증은 대륙의 흉노나 신라김씨,박씨 모두 한 공동체로부터
분기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신라의 역사가 흉노보다 후대이기 때문에 흉노가 신라의
조상이거니 할 뿐이죠.

삼국사기에는 신라를 고조선의 유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조선과 그 이전의 정치공동체로부터 흉노-선비-고구려-신라등이
분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솔본 (2009-01-27 14:45:31)

아..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출자되었으니 당연히 상대에 포함되겠죠.^^;

大東民族史 (2009-01-27 19:31:24)

KBS 역사추적에도 거론되었던 부분이군요. 그렇다면 신라의 김씨 왕족이 고구려, 백제 사람들과 언어가 달랐다는 문헌 기록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옳을까요?

솔본 (2009-01-27 20:42:25)

大東民族史 / 음.. 신라김씨 왕족이 고구려,백제와 언어가 달랐다... 그런 문헌기록이 있던가요?
전 금시초문인데...

혹시 '신라의 언어는 백제를 기다린 후 중국과 통했다'라는 기록을 말씀하시는가 보군요...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라와 백제의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신라는 중국에 통역해 줄
백제사신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대구사람이 중국에 가서 상담을 하려하는데 중국어를 모르는 관계로
광주사람이 통역을 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광주 사람과 대구사람은 당연히 말이 통했겠죠?

임호진 (2009-01-30 10:46:19)

솔본님의 글에 덧글 달려고 가입한...임호진 입니다...^^*
2년전 솔본님의 글을 보고 참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글이 안쓰시는것을 보고 많이 기다린 독자라고 할까요...??
오랜시간 기다리다 최근 글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것을 보니 기쁩니다.

저도 글의 내용을 보기전 kbs 다큐가 엉성하다...또는 ...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솔본님의 글을 보고 더욱 ....
앞으로도 종종 좋은 의견과 글 부탁드립니다....^^*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

바라기 (2009-02-01 13:47:33)

"진한은 마한 사람과는 그 말이 달랐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낙랑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사람 같다는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한문엔 약하기 때문에 고문을 그대로 해석을 못하지만 해석한 글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쨋든 저는 개인적으로 위지 동이전의 기록은 곧이 곧대로 믿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 역사나 풍습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직접 우리 나라에 와서 기행하면서 쓴글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김일제가 신라김씨의 조상은 맞는것 같습니다.

위에 돌비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문무왕의 비문에 중국의 일개 제후였던 사람을 굳이 비문에 적어놓을 이유가 없지요. 김일제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흉노의 피를 이어 받은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맞는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정황은 우리 나라 사람의 해부학적인 특징으로 볼때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까운 민족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족이 라는 군요. 이는 기존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카자흐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주요 민족이고 우즈벡과 중국의 섬서성에도 거주하는 종족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투르크계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초원의 길을 장악했던 흉노가 우리와 같은 피을 가진 민족이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좀더 알아 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위지 동이전의 기록이나 삼국사기의 기록 문무왕 비문의 기록 등으로 종합하건데 우리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결론은 이미 80%이상 결론 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한것 같습니다.

동명성(東明星) (2009-02-03 12:31:01)

바라기 님.

삼국지에 그런 말(진마한이 언어가 달랐다는)이 있다고는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을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잘 해 놓으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사 연구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외 신채호 선생의 다른 글들을 보시면 중국의 역사서들이나 그것들을 텍스트로 하여 지어진 삼국사기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꿈보다 해몽이 더 황당한 부도지..

부도지에 대한 해설 을 봤습니다.

" 마고성은 파미르"라는 건 그렇다 치고

"율(律)은 상승파장이고 '려(呂)는 하강파장"

"실달성은 물질세계,허달성은 정신세계"..

"조선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에 '주신'이다"라든 지..

"오미(五味)의 화(禍)는 식욕이고 그것이 성욕과 같은 것이다"라든 지..

정말 차마 낯뜨거워 읽기가 거북하더군요.

부도지는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텍스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위작이라해도 그 정도의 수준 높은 텍스트를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작품입니다.

텍스트를 읽으려면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텍스트는 코드로 인코딩되기 때문에 그 코드를 모르면
텍스트는 문자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죠.

부도지에 "선천(先天)의 시대에 마고대성(麻姑大城)은, 실달성(實達城)의 위에, 허달성(虛達城)과 나란히 있었다. "

이 문장의 뜻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누가 좀 해설해 주시겠습니까?

실달성은 무엇이고 허달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허달성이 실달성위에 있고 그것이 마고대성과 나란히 있는 것인지..

-솔본-

[Mr.Crow] (2009-02-03 08:21:19)

드디어 솔본님이 다시 돌아와 주셨군요.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와 돌아오시다니...

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무지몽매한 후학들에 대한 많은 깨우침 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 (2009-02-03 12:26:45)

부도지 해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어디에서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을 까요?

해석을 곁다리로 본것이지만, 그 분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어떤 해석이 내려지고, 솔본님 처럼, 반대의견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제3의 인물이 또 나와서, 의견들을 절충하겠죠.

玄濟 (2009-02-03 12:51:51)

솔본님의 글을 보고 크게 동의하기는 처음입니다..

국학정립 (2009-02-03 23:48:19)

너무 매너없이 댓글을 다시네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쓰셔야죠.유감스럽습니다.

<>
임나(任那)는 담로(擔魯)의 이형표기였을 것

양서(梁書) 백제전(百濟傳)에 따르면 백제는
"읍(邑)을 담로(擔魯)라고 하는데, 중국의 군현(郡縣)과 같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서보다 이른 시기에 씌여진 남사(南史) 백제전(百濟傳)에는 이 담로를 '簷魯'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 百濟國號王所都城曰固麻, 邑曰簷魯,

여기서 담로의 담은 각각 擔 또는 簷 이렇게 표현되는 데
남사가 양서보다 일찍 편찬되었으므로 양서의 擔魯는 남서의 簷魯를 잘 못 베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강희자전에 보면 이 남서의 簷에 대해
《廣韻》屋簷。與檐同。《釋名》簷, 檐也, 接檐屋前後也。亦作櫩。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광운에서는 이 簷은 지붕과 지붕이 연접해 있는 처마들을 말하며 그것은 檐과 같다고 하고
석명에서는 簷, 檐也라고 다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양서의 저자는 남사의 簷을 그 뜻과 음이 같은 檐자로 적는 다는 것이 그만 擔자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서의 簷魯는 그 발음이 '담로'였을까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입니다. 그 보다는 '얌로' 또는 "임로"에 가까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가 있습니다.

簷의 발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를 처마 첨, 이라고 발음합니다.
하지만 簷의 중국발음은 '얀'(yan)입니다.

집운과 정운의 발음을 따르면 '염'/임에 가깝죠 ==> 《集韻》余廉切《正韻》移廉切

● 簷 / yán一ㄢˊ (chinese etymology)

백제와 일본은 한자음에 대해 북경음이 아닌 오(吳)음을 따랐을 것이기에
이 음을 광동어에서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antonese
Hanzi

簷 (yim4)

즉 남서에 쓰여진 簷魯를 당시 백제가 차용한 오음으로 읽으면 '임로/임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백제의 簷魯(임노)와 임나(任那)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설명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의 설명을 봅시다.

==========
천관우(千寬宇)는 ≪일본서기≫의 임나관계 기록들을 재해석,
기록의 주어를 왜왕이 아닌 백제왕으로 봄으로써 '왜의 임나 지배'가
아닌 '백제의 가야 지배'라는 시각으로 가야사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는 근초고왕이 369년에 가야지역을 정벌해 백제권에 편입시킨 후,
가야 지배를 위해 설치한 파견군사령부가 이른바 임나일본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5세기부터 6세기 초에는 군사령부가 김천·달성 등의
낙동강 중·상류방면에 있었고, 530년대 이후에는 진주·함안
등의 낙동강 하류방면에 있었다는 것이다.

김현구(金鉉球)는 보다 신중하게 긴메이기의 기록만을 이용해,
임나일본부는 백제가 가야 통치를 위해 설치한 기관이었다는
천관우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6, 7세기
백제와 야마토 사이의 외교관계의 특징을 용병관계(傭兵關係)로 파악하였다.
==========

김현구의 연구를 보면 백제가 가야통치를 위해 설치한 기관이 '임나일본부'라는 점에서
바로 이 임나와 백제의 簷魯(임노)간의 연결고리를 발견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말해 일본은 백제의 고마나리를 중심으로 백제가 설치한 22개의 簷魯(임노)와 연합했을 가능성
입니다.

그러한 簷魯(임노)가 또 다른 이형표기를 통해 임나(任那)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 솔본의
추측입니다.

任那라는 뜻은 '맡겨진 땅' 즉 봉분 받은 땅이라는 의미로부터 그것이 우리가 담로제라고 알고 있는
백제의 簷魯(임노)를 뜻과 발음이 일치하게 적은 일본측의 기록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광개토왕비문의 백잔,신라 구시속민의 백잔(百殘)은 이 簷魯(임노)를 뜻하고
이 簷魯(임노)가 왜와 세력을 결합한 것을 고구려는 임나(任那)로 본 것이 아니었을까요?

-솔본-

Mimesis (2009-02-08 04:37:36)

담로의 발음에 대한 추적은 간략하고 짧게 언급하셨습니다만, 충격적이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백잔과 임나에 대한 솔본님의 추측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시기에 따른 위치 비정은 아직 정리되어 받아들이진 못하고 있지만, '임나신론'(김문배.김인배 저)에서
지적한 백잔과 임나에 대한 해석이 솔본님의 추측 내용과 일치합니다.

동명성(東明星) (2009-02-08 14:56:35)

임라를 일본어로는 미마나라고 읽는다고 알고 있는데, 단재는 이두를 사용하여 밈라(나)라고 읽는 것일거라고 해설해 놓았습니다.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지만 재주가 일천하여 죄송합니다.

동명성(東明星) (2009-02-08 17:01:23)

개인적으로는 임라는 임의 뜻인 맡(기다) 에서 맏을 따와 '맏이(큰아들)의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또는 '님의 나라' (일본에서 볼 때)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동명성(東明星) (2009-02-09 09:31:49)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보충설명을 더 올립니다.

임라가라는 곧 대가라입니다.
임라 가야 --> 맏이 나라 가야 --> 큰(형) 나라 가야 --> 대가야

대가야의 왕인 이진아시(뇌실주일)가 김수로(뇌실청예)를 비롯한 다른 가야왕들의 큰 형이며 정견모주의 큰 아들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
산해경의 조선. 그 수수께끼

산해경 <海內經>에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 朝鮮天毒, 其人水居, 偎人愛之.”

이 구절은 다 아실 겁니다.

과거 천독(天毒)에 대해 毒을 育과 갈아쓰기로 보았는데
물론 강희자전에 의하면 毒은 育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상으로 毒을 동사로 보면 수거水居의 주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위 산해경의 문장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은

'동해 안쪽에, 그리고 북해 모서리에 나라가 있으니 조선천독이라 한다.
그 사람들은 물가에 살며 서로 공경하고 사랑한다'입니다.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산해경은 지나인들의 중화사상이나 황제우월사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산해경에서 황제 헌원에 대한 헌원국을 소개할 때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확한 저술시기를 모르는산해경은 적어도 지나에서 황제나 중화이데을로기가
시작되기 이전, 즉 周대 이전의 컨텐츠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해경의 특성상 그것이 신인공복, 즉 신과 인간이
함께 산다고 믿었던 은대의 컨텐츠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은의 미자와 기자가 주의 공세과정에서 '이제 은나라에 天毒이 내렸다'
고 한탄하는 구절이 송미세가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대에 천독이란 하늘의 재앙, 즉 천명에 역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조선천독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해경에는 분명히 서역의 천독국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천독의 천독과 서역 천독의 천독은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산해경의 저술이 상이한 시대를 거쳐 여러 버전으로 개편되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존재한 조선 천독과 서역의 천독국이 동시대적 텍스트에 나타났을 가능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독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인 것입니다.

만일 천독이 은의 미자가 탄식한 대로 하늘의 재앙이라면 조선천독에는
무언가 빠진 구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有國名曰 朝鮮, (以)天毒, 其人水居, 偎人愛之.

" 나라가 있으니 조선이다. 하늘의 재앙으로 그 사람들은 물가에 살았는데
서로 공경하고 사랑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왜 천독으로 인해 사람들이 물가에 살게 된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아주 오랜 과거에 즉, 조선지역에 지속적인 침수가 있었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홍수로 육지가 침잠되고 산들이 섬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은
황해평야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하에 살펴본다면 산해경의 조선 기록은 적어도 은나라 이전에 관찰된
전승으로 황해 해안선을 기준으로 볼 때 B.C 8천년~6천년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이 조선이었는 지 아니면 조선의 선조들이었는 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산해경의 기술로 볼 때 어쩌면 홍수와 침수를 피해 흩어진 동이계의 제족속을
'조선'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닐까 싶군요.

그것은 사마천이 고조선을 동이가 아닌 蠻夷라고 본 점, 그리고 주은래가 고조선이
현재의 중국 동남쪽에서 기원했다는 주장등을 새롭게 고찰해 보는 단초가 됩니다.

중국 사서는 고조선이 매우 강력한 국가였음에도 조선에 대한 기원과 풍승등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마천이 비록 중화주의자 였으나 흉노나 제 이족의 기록을 비교적 정확히 남긴 것으로 보아
조선에 대해서는 그 기원과 뿌리를 알 도리가 없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이죠.

-솔본-

玄濟 (2009-02-18 07:55:46)

솔본님의 글을 읽다보면.. 하늘에는 다양한 구름의 모습이 [단계적으로 높이에 따른 층] 마다 다르는 것을 재미로 보았는데.. 이외로 하늘에도 물이 존재하는 층이 있는데, 먼 고대에나 존재하였으나 사라져 버렸다는 글도 있어서 지금에서야 희미하게 기억납니다..

어쩌면, 천독(天毒)이라 함은 [하늘에 존재했던 수층]과 관련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하다보면..

여러 문헌에 따르면, 옛 옹주(雍州)는 본디 현 감숙성(甘肅省) 서북부 지역에 위치했고, 후에 옹주(雍州)는 현 감숙성(甘肅省) 서남부 지역으로 옮겨진 지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적어도 당나라(唐) 전후 시대에 있어서, 여러 문헌에 따른 옹주(雍州)는 현 섬서성(陝西省)과 관련될 수 없는 지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려(高麗 : 고구려)의 최후 서쪽 경계 영역은 현 섬서성(陝西省)의 서쪽까지 유지되어 있음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 섬서성(陝西省) 서남부의 피라밋은 원래 고려(高麗 : 고구려)의 강역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유물론적 근거로 볼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오스 (2009-02-18 11:27:52)

음...

.../중국 사서는 고조선이 매우 강력한 국가였음에도 조선에 대한 기원과 풍승등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마천이 비록 중화주의자 였으나 흉노나 제 이족의 기록을 비교적 정확히 남긴 것으로 보아 조선에 대해서는 그 기원과 뿌리를 알 도리가 없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이죠./...이라...

카오스가 보기에도 사마천은 비교적 공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이므로 사마천이 조선을 몰라서 소략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마천은 흉노전 보다도 조선전을 더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봅니다...그것은 흉노 보다도 조선이 더 문화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앞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그 상세한 조선전이 후대에 짤려 나갔다고 본다는 것입니다...실제로 사기를 읽어보면, 조선전과 흉노전 그리고 남만전(오,월 등)을 비교해보면 우선 페이지 숫자부터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선전이 분량이 작습니다...그리고 문맥도 어딘가 끊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 많이 발견됩니다...그래서 카오스는 분명히 이 조선전이 후대에 2~3차례의 교간을 거치면서 개작되었다고 봅니다...사기는 8세기초 당나라 시기와 18세기초 청나라 때에 정식으로 교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동안의 여러 다른 사서들과의 불구합된 내용들이 이 두번의 교간을 거치면서 모두 아귀를 맞추어서 수정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산해경의 저 문구도 이러한 일련의 짜맞추기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문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즉, 누군가가 처음에는 제대로된 조선을 산해경에 기록해 둔 것을 전승되면서 차츰차츰 핵심 키워드를 빼먹거나 바꿔치기해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카오스가 보기에 그 최종적인 시기는 아마 8세기(당나라 시기)일 것으로 봅니다...어쨋든 여러가지를 생각케 하는 주제임에는 틀림 없다고 생각합니다...잘 읽었습니다.

일죽 (2009-02-18 20:23:49)

순서를 좀 바꾸고 다른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東海之內 有國名曰 朝鮮
北海之隅 (有人名曰) 天毒 其人 水居 偎人 愛之

동해 안에 있는 나라이름은 조선이고
북해모퉁이에 있는 천독 그 사람은 水居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

조선과 천독을 띄어야 하는것은 천독은 국명이 아니기 때문이고
주역의 괘명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주역의 산천대축 풍천소축 두 괘명이
이전 귀장역에서 산천대독 풍천소독으로 썼다고 합니다.

위 문장의 天毒은 산천대독山天大毒으로 서역국에 나오는 天毒은
풍천소독風天小毒으로 치환하면 산해경 최초원본에 大毒과 小毒으로
썼는데 후에 변조 가능성이 있을수 있고 아니면 구분없이 天毒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천독이 거하는 北은 물이고 陽이고
大하기에 山天大毒으로의 치환이 무리가 없습니다.

천독은 괘명이기에 (有人名曰)을 쓸 수 없고 천독 뒤에 其人으로 받아야
하니 동해지내 북해지우를 한꺼번에 썼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山天大毒은 괘의 성격이 時이고 風天小毒은 寡(적음)입니다.

水居란 사람이 물에 살수 없으니까 물같이(물의 성질로)거한다.
상선약수인 물 성질은 낮은땅으로 흘러 아래와 친함을 뜻합니다.

다시 풀어보면
동해안에 있는 나라이름은 조선이고,
북해 모퉁이에 때를 아는 천독 그 사람은
물처럼 아래와 친밀히 거한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
(또는 물처럼 거하기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
본인도 전에 해석이 영 매끄럽지 않더니 조금 업그레이드된거 같은데 어떤지.

玄濟 (2009-02-19 12:52:23)

짧은 시간내에 빨리 쓰기 위해서, [하늘에 존재하는 수층]을 간단히 천수층(天水層)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제서야 기억이 나는데.. 천수층은 가시광선을 제외한 모든 해로운 광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며, 통과한 가시광선은 지표면에 온화한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한 기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천수층은 공기에 있는 산소 농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이론도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내에 흡수되는 산소의 농도는 과다 흡입되는 경우가 있어 노화를 빨리 촉진시키게 되는데..
먼 고대에 천수층에는 산소의 농도를 유지시킴으로써 골고루 산소 흡입하여 노화를 느리게 진행됩니다..

특히 해로운 광선이 통과하지 않는 지표면에 온화한 기후가 유지되어 있는 이상, 노화가 느리게 진행함과 더불어 젊음이 오래 길게 유지하여 수명이 몇백년으로 연장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조선(쥬신 이전의 시대)부터 마고시대 및 구리시대에 이어 고조선(古朝鮮)까지 터무니없이 긴 수명을 유지되는 경우에 대하여 연관지어보면 조금 이해할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지표면에서 생산 또는 발생하는 어떤 화학 물질이.. 천수층을 유지하는데 역할하는 버팀목 물질을 붕괴시켜, 거의 바다의 양에 준하는 엄청한 호우로 바꾸어 내리게 되지 않는가 집작합니다..

마치 어떤 물질을 생산하여 프레온 가스를 지표면에 배출하게 됨에 따라 오존층을 뚫어버리게 되고, 이로 인해 해로운 광선의 노출도가 커지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비 (2009-02-19 17:24:53)

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 朝鮮(也)

天毒其人 水居偎人 愛之

동쪽 바다의 북쪽 모서리에 있는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다.

하늘이 그 사람들을 괴롭혀(고난을 줘서) 물근처 가까이 사는데 서로 사랑한다.

그렇다면 천독은 뭘까요?

'하늘의 대재앙'일 것입니다.

홍수나 화산폭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성경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경우 대홍수의 피해,

2. 백두산 등의 화산폭발과 같은 경우 화재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근처로 모이게 되겠죠!

실제로 백두산의 폭발 기록은 존재하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또 모르죠! 두 경우외의 소혜성 충돌 같은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도?

결국 실제로 물 근처에 사는 이유는 직접 물로 고난을 받거나 불로 인하여 고난을 받거나 두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돌비 (2009-02-19 17:47:41)

아! 또 생각나는 것이 있군요!

산해경이 BC 이전 기록이라고 하니...

1. 오키나와 근처 바다의 석축구조물이 수면 밑 25M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과

2. 최근 황해 속 지표면 연구에 의하면 황해의 많은 부분이 육지였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한 것 같군요!

<>
동이문명의 비밀- 아리나 코드 (Arina Code)

1998년부터 시작된 저 솔본의 우리 고대사 연구가 이제 꼭 10년이 되는군요.

제 연구는 1997년 카자흐스탄에서 위구르 독립 반군 지도자를 만나 인터뷰하며 알게 된 우리 고대사의 흔적들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위구르 반군 지도자는 저에게 아주 오래된 지도를 보여주었는데
현재의 중국과 한반도 전역이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를 훈나(Huna)라고 불렀고 위대한 박딸(Vaktar)들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성산 한텡그리는 바로 '텡그리 칸'(Tengri khan)이 머문 곳이고
그의 뜻에 따라 옹칸(ongkhan)들이 바로 훈나를 다스려 왔던 것이죠.

지나인들이 한자로 표기한 천산의 '박격달봉'의 그들 이름은 '복따'(bogda), 즉
'거룩한 산'이었으며 그 정상에는 '텡기즈'(Tengiz)라 불리는 천지(天池)가 있었지요.

그 복따산 저 멀리에는 아스타나, 고대에는 '아스타라'라고 불리웠던 카자흐스탄의
오래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후에는 수메르어와 중국 고어(古語)간에 수많은 일치성을 지적하는 외국의 논문들과
서적을 찾았고 중국 고대어의 원형에는 알타이어적 요소가 있으며 결국 그와 가장
유사한 어족은 중세 한국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바다 海자는 고대에 그 발음이 하이(hai)가 아니었고 '메'/'미'였다는 사실로 부터
고대 중국인들이 海風(해풍)이라는 글자를 '하이 펑'이 아니라 '메프람'이라 쓰고 읽었던
사실을 알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만주어 이설러 (isele)는 우리말로 '씨루다'는 뜻이고 그것이 히브리어의 이스라(Ysra)
와 동원관계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씨름'과 메소포타미아의 '쎄라'는 그 기원의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했습니다.

이 밖에도 헬리코 피로린 박테리아의 유전적 분포와 개의 기원과 전파등 무수한 사례들로
부터 얻은 잠정적인 결론은 고대 1만200년~8천년전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서방으로 문명집
단의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방을 향해 이동한 그들에게는 '개'와 샤먼의 꽃 '무궁화' 그리고 '그릇'이 있었습니다.

만주어 '사만'(shaman)은 우리 제주도의 '선문' 대할망의 그 '선문'이고 m과b의 자음은
흔히 교환되어서 그것이 '심방'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그 선문, 또는 설문 큰 할망이야말로 은에서 서모(西母)라 불리운 서왕모의 기원이라는
사실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고 그 여신이 결국 인안나,이슈타르,비너스의 요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동양인종 '하자르'는 징기스칸의 후예가 아니며 그 보다
더 훨씬 전에 동이계에서 서로 이동한 그룹이며 결국 그들의 일부는 힉소스의 리더그룹이
되어 '살만, 또는 '잘만'이라 불리는 히브리의 왕 솔로몬을 히브리의 샤먼킹으로 봉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이의 군주 치우는 유라시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리안들에게는 ziu, 히타이트에는 Siu로 숭배되었고 神을 일컫는 제주방언 '또' (귀내깃또. 백조또)는 은나라의 帝(de), 그리스의 Teo의 어원(etymology)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녹에게 처음으로 지식을 전해준 뱀의 얼굴의 주시자들..
이집트의 아시아틱 파라오의 정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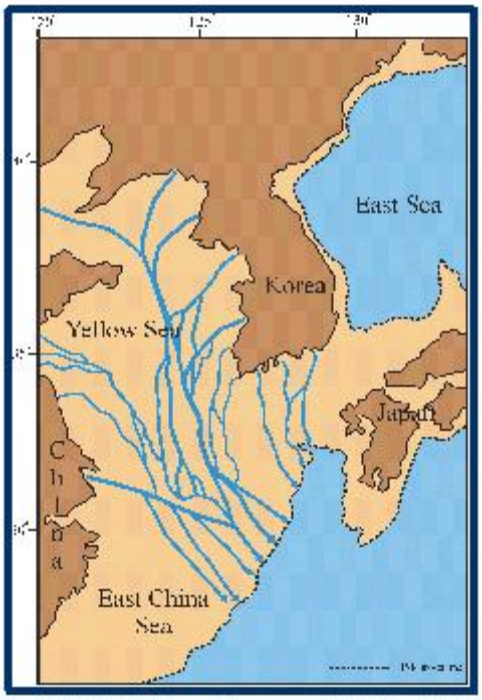
이들 모두는 아주 오래된 고대에 동이로부터 진출한 이들이고 그 이주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황해평원의 침수였으며 그것이 구약의 창세기를 비롯 인도의 쿠마리 한담, 그리스의 아틀란트의 기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명의 기원이 동에서 서로 이동한 후로부터 5천년이 지나자 다시 서에서 동으로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아리나 코드'(Arina Code)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아리나'란 산스크리트어로 '물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대 동방에서 海라고 쓰여진 글자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海는 처음부터 바다가 아니었고 물을 관장하는 한 무서운 여신, 바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시 멸망시킨 존재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갑골문에는 '바다'라는 존재가 아예 없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러서는 안될 금기어였으니까요.

海의 금문 : 발음 1. me (바다의 경우)
발음 2. s-me : 선문, 서모, 시버, 그리고 모든 물과생명,문명의 기원으로서의 '샘'/'새미'



< 최대간빙기(LGM)인 18,000년 전, 해수면이 낮았을 당시 황해평원을 흐르던 고황하수로(파란색)와 고해안선을 추정하여 그린 그림. 물줄기 본류인 고황하수로에 한강, 금강, 압록강 등이 합류되어 흐른 것으로 나타난다.(원저자: 박용안) >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 朝鮮

(동해와 북해모서리, 즉 옛 황해평원에 데사(De sa)가 있었다 : De sa는 조선의 고대발음

(以)天毒　其人水居　/ 하늘의 재앙(황해평원의 침수)로 그들은 물가에 살게 됐는데

偎人愛之 /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다

-솔본-

김성겸 (2009-02-20 15:11:11)

솔본 선생님,

훌륭하신 정리로 보입니다.

"천독"을 "하늘이 다스리시어" 정도로 보아왔었는데
"하늘의 재앙으로"로 풀어내셨습니다.

고마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솔본 선생님 !

econom et (2009-02-20 23:47:25)

항상 너무나도 좋은 가르침 경청하고 있습니다.

치우와 관련해서는 북구신화에 많은 것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海의 음이 메/미 라는 말씀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구신화를 모태로 하는 게르만 즉 독일어의 바다가 바로 Meer "메어"내지는"메르"로 발음이 됩니다.
같은 언어권인 영어의 sea에 해당하는 말이 있기는 한데 See (제) 담수호도 지칭을 하고 순수히 바다만 지칭하는 것은 바로 위의 Meer메어 인것이기에 솔본선생님께서 알려 주신 그 고대문화의 잔재가 북구신화뿐만이 아니라 게르만과 뒤를 이은 독일어에 남아 있는 해海의 발음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Mimesis (2009-02-22 22:16:03)

솔본님의 글들은 두고 두고 읽어봐도 언제나 참신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역사 찾기에 앞서

인문학 혹은 역사학의 매력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갈 (2009-02-23 15:16:53)

솔본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가끔씩 여기를 방문하다보니 솔본님이 쓰신 그 글을 전 못 봤습니다.

솔본 (2009-02-18 01:07:29)

황해평원 Asta는 이 솔본이 제안한 건데..
아무런 인용도 없구만요.. 흠..

솔본 (2009-02-24 00:16:20)

김성경님이하.../

과찬의 말씀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임호진 (2009-03-23 12:30:14)

^^ 솔본님 글보고 그동안의 글의 총리 개념인듯 하네요....^^*
열성팬 잘 읽고 많은걸 느꼈습니다

<>
웅신기(熊神記) 스토리를 올려 봅니다.

이곳 쿠투에서 맨날 재미없는 이야기만 하다보니 저도 상상의 나래를 한 번 펼쳐보고 싶군요.

웅신기라는, 단군신화와 단군의 탄생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걍 허접하고요.. 재미로 한번 읽어 주세요..

-솔본-

한계남 (2009-03-10 06:22:13)

안녕하신지요. 꼭 읽어보고 싶은데 파일네임이 한글이라서 다운로드가 않되는 군요. 이곳 구이넷 게시판은 영문윈도우를 쓰는 사람에게는그림이나 서류파일이 한글이름이면 뜨지 않거나 다운로드가 않됩니다. 좀 수고 스럽겠지만 영문이름으로 바꾸어 주심이 어떻신지요. 아마 솔본님의 웅신기가 단군신화에 때한 소설문학의 효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님의침묵 (2009-03-10 10:05:59)

줄거리도입부가 어쩐지 .....모세랑 많이 닮아있네요.

아무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역사를 왜 황제국 아래에 두는지....
동이가 왜 황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발상의 시작이 왜곡되어 내려온 오늘날의 역사관이라면
결국 삼류소설에 머물지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소설이라면 좀 더 과감한 줄거리가 필요하지않겠나요?
영웅만들기...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 터를 시궁창으로 몰아가는 줄거리에
식상할 때가 된듯한데....
오늘 매체의 역사드라마 영화가 다 그러한데

씨가 뿌려진 그 밭의 소용가치를 왜곡하면서까지 뭘 바로 세우려고 하는지...
현대소설이 아닌 역사소설이라면 그것이 소설이기전에 역사를 보게되는 것이 일반적인 터라 조금은 신중하심이 옳은 듯합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불의에 대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음을
아름다운 서사시로 꾸며주실 수는 없는지.....

조금 외람된 듯하지만 좋은 소설나오길 기대합니다.

<>
솔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선비족의 우문술을 아시나요?
물론 아시겠지요..

그러면 탁발씨..즉 타브가치도 아시죠?
그런데 도대체 우문(宇文)이는 뭐고 탁발(拓跋)이는 누굴까요?

제가 선비어를 좀 공부헸는데요..
이런 거더군요..

托 土 魏書卷一 序紀第一 北俗謂土為托, 謂后為跋
跋 后 魏書卷一 序紀第一 北俗謂土為托, 謂后為跋
宇 天 周書卷一 帝紀第一 其俗謂天曰宇, 謂君曰文,
文 君 周書卷一 帝紀第一 其俗謂天曰宇, 謂君曰文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托(탁)은 선비어로 土(토)라는 뜻이고요..
跋(발)은 선비어로 后(후) 즉 제후라는 뜻이고요

宇(우)는 선비어로 天(천)이라는 뜻이고요
文(문)은 선비어로 君(군) 즉 임금이라는 뜻이더군요..

그래서..

탁발은 선비어로 토후(土后)여서 땅을 가진 자라는 뜻이구요..
우문은 선비어로 천군(天君) 즉 하늘의 임금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탁발(托跋)의 선비어 발음은 투버 (Tu be)이고
우문(宇文)의 선비어 발음은 워먼(we men)이니까...

위만(衛滿)의 발음도 당시에 워먼(We men)인 즉슨..
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곧 천군(天君)이라는 뜻이죠.

託文(탁문)은 결국 투먼(Tu men)이어서...

그것이 바로 두만(頭萬)이고요..
뜻은 土君이구요...

유화가 해모수를 만나 헤메던 강 우발수는 宇跋(우발)과 같아서요..
선비어로는 天后의 강인 셈이죠..

바로 만주족이 말한 송화강.. 즉 숭가리 울람, 하늘의 강인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눈치채야 합니다.
왜 주몽이 천신과 수신의 결합인지를....
그리고 왜 선비가 결국 고구려에 복속될 수 밖에 없는 지를..

에효...

이 나라 역사학자들이 이런 걸 얼마나 이해할까....

-솔본-

최용기 (2009-05-09 09:02:55)

재미있고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일죽 (2009-05-09 19:01:45)

항상 솔본님의 좋은 자료 고맙게 보고 있습니다.
우발수가 天后의 강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솔본님 글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주몽이라는 인물에 대해 의견을 내 봅니다.

주몽은 어머니가 하백녀 유화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자료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옥저후 불리지, 즉 해모수의
아들인 고진의 손자로서 북부여 시조인 해모수의 증손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주몽의 성별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됩니다.

癸亥二年帝巡到寧古塔得白獐冬十月帝崩高朱蒙以遺命入承大統
先是帝無子見高朱蒙爲非常人以女妻之至是卽位時年二十三
북부여기 하편 6세 고무서 기사의 기존 해석은 이렇습니다.
"계해 2년 제가 영고탑을 순시하다 흰 노루를 얻었다. 겨울 10월 제가
붕어하고 고주몽이 유언에 따라 대통을 이었다.
이보다 앞서 단제는 아들이 없었는데, 고주몽을 보고 사람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딸로서 아내를 삼게 하였었는데 이에 이르러 즉위하니 이 해
나이가 23세 였다."

見高朱蒙爲非常人以女 妻之 이 부분을 제 방식대로 하면
"고주몽이 범상치 않은 여자임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다시 말해 주몽은 고무서의 부인으로서 고무서가 죽자 대통을 이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高無胥라는 이름은 "사위가 없다"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어 기존해석이 재검토돼야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왜 주몽은 부여인에게 쫓겨 도망갈 때 "我是天帝子-나는
천제의 子이다"라고 할까? 아마도 고대에 우리 민족은 남녀평권으로
아들 딸 구별없이 한자로는 子로 표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몽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오히려 남녀 평등을 일찍 실현한
진취적인 면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북부여기 하
六世檀君 高無胥 在位二年
壬戌元年帝卽位于卒本川與父老會于白岳山立約祭天頒行事例內
外大悅
帝生而有神德能以呪術呼風喚雨善賑大得民心有小解慕漱之稱時
漢寇騷亂遍于遼左屢戰得捷
癸亥二年帝巡到寧古塔得白獐冬十月帝崩高朱蒙以遺命入承大統
先是帝無子見高朱蒙爲非常人以女妻之至是卽位時年二十三時下
夫餘人將欲殺之奉母命與烏伊摩離陜父等三人爲德友行至岦陵水
欲渡無梁恐爲追兵所迫告水曰我是天帝子河伯外孫今日逃走追者
垂及奈何於是魚鼈浮出成橋始得渡魚鼈乃解
6세 단군 고무서 재위 2년
임술 원년 제가 졸본천에서 즉위하고는 백악산에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

사례에 따라 널리 하늘에 제사할 것을 약속하니 모두가 크게 기뻐하였다.
제는 나면서부터 신과 같은 덕이 있어 능히 주술로써 바람과 비를 불러
잘 구제하므로 민심을 크게 얻어 소해모수라고 불렀다. 이때에 한나라의
오랑캐들이 요하의 왼쪽에서 널리 소란을 피웠으니 여러차례 싸워서
크게 이겼다.

계해 2년 제가 영고탑을 순시하다 흰 노루를 얻었다. 겨울 10월 제가
붕어하고 고주몽이 유언에 따라 대통을 이었다.
이보다 앞서 단제는 아들이 없었는데, 고주몽을 보고 사람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딸로서 아내를 삼게 하였었는데 이에 이르러 즉위하니
이 해 나이가 23세 였다. 이때에 부여인이 그를 죽이려 하였는데
오이 마리 협보 등 세사람과는 덕으로써 사귄 친구였던지라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길을 떠나 분릉수에 이르렀다. 그러나 건너려고
하여도 다리가 없으므로 뒤 쫓아 오는 군사들에게 몰릴까 두려워하여
물에 고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인데 오늘 도주함에
있어 추격병은 다가오고 있는데 어찌하란 말인가?'하니, 이때 물고기와
자라 따위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므로 주몽이 건너가자 물고기와 자라는
다시 흩어졌다.

카오스 (2009-05-09 19:07:59)

음....그렇다면????....[뭔가 짚히는 것이 있어서] 아주 궁금해 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탁발씨나 우문(宇文)씨가 역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와 그 사서가 언제/어디인가요?...
혹시 아신다면,.... 그 원문을 곁들여 알려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만...

玄濟 (2009-05-09 20:43:38)

솔직히 뒤통수 맞은 기분으로 놀라웠습니다..

대수맥 (2009-05-09 21:07:26)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저도 이걸 바탕으로 반론의 전거를 만들기 위한 귀중한 사료로서 저장해도 되겠지요?

이준재 (2009-05-10 01:53:41)

托拔 (탁발)중국발음은 퉈빠(tuo ba) 그런데 제가 사극이나 일반적인 교재에서 본바로는 기탁할 탁자가 아니고 개척할 척(拓) 자로 척발(拓拔 tuo ba 퉈빠,중국식발음은 같음)이던데요.

宇文 (우문)중국식 발음은 위원(yu wen)입니다.

Mimesis (2009-05-10 02:59:21)

복속관계인지 조선 및 고구려의 기저 세력 중 일부로 봐야 하는 것인지....잘 모르겠습니다.